2021

기획연구 2021-0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연구진 황영모 · 조원지 · 이병훈 · 정호중 · 박로운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기획연구 2021-0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황 영 모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6장
공 동 연 구	조 원 지	부연구위원	제2장 1절 일부, 제5장 3절 일부
	이 병 훈	전문연구원	제2장 2절 일부, 제5장 7절 일부
	정 호 중	전문연구원	제3장 1절~5절, 부록
	박 로 운	전문연구원	제4장 1절 일부, 제5장 5절 일부

자 문 위 원	송 해 안	전주대학교 교수
	유 학 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정 치 형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연구관리 코드 : 20GI1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 ‘도농융합상생’은 ‘도농분리 사회’에 주목한 대응전략으로 ‘도농교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성격을 갖는 바, 도농융합상생의 개념과 실천적 논의를 위한 근거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전라북도가 농정(農政)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융합상생’의 정책적 근거를 기본구상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화를 위해 우선 검토해 나갈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한 열쇠말을 중심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면서 농촌-도시 간의 구체적인 관계맺기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대안과 대책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도시-농촌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은 상호 교류를 지속시켜야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농촌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연결망과 네트워크’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함
- 둘째, 도시-농촌의 교류는 수요자인 도시민과 공급자인 농촌주민이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농촌의 매력요인과 도시의 결핍요인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그 관계맺기의 핵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함
- 셋째, 도시와 농촌은 ‘공생(共生)의 관점에서 사람·물건·정보가 서로 왕래’하는 활동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농촌에 도시민이 어떻게 머물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일시체재, 2지역 거주, 정주생활’ 등으로 다양화해야 함
- 넷째, 도농교류의 범위와 영역을 ‘도시농업, 농촌관광, 귀농·귀촌’까지 확장해야 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와 관련된 ‘농촌지역의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다섯째, 사회적인 수요변화를 고려할 때 ‘도시민이 인생소원(버킷리스트)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농촌’에 주목하고, 이를 농촌사회의 필요와 서로 연결하여 농촌의 삶의 질 수준을 높여가는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실행이 중요함

- 여섯째, 인구구조의 제약을 고려할 때 인구이동 관점에서는 이주하는 '정주인구'와 일시적 '교류인구'의 한계를 넘는 '관계인구'에 주목해, 이들이 농촌지역의 사회혁신을 실행할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장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일곱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귀농·귀촌을 늘리려는 지원정책을 넘어, 예술·문화·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인력(창조계층)을 주체로 파악하고, 그러한 창조계층으로서 청년들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야 함

❍ 도시와 농촌이 '관계맺기 주체'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융합하고 상생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인가 기본방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북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농촌주민의 생활태도와 농촌활력 의향을 조사·분석하였음
- 첫째, 전북도민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삶의 질 만족도 수준은 '치안, 안전, 생활서비스, 환경·경관, 사람관계, 사회기반시설, 도로, 주택' 등은 높은 반면, '문화·여가, 보육·돌봄, 평생교육'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일터, 삶터, 쉼터로서 농촌주민이 일정한 수준에서 만족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되, 돌봄,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함
- 둘째,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는 도농융합 활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데, '정서적 관계, 생활에서 관계, 관심·애착심, 체험·관광 의향' 등은 높은 반면, 현재는 '체험·관광, 일속에서 관계, 농촌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 농업·농촌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농촌에 우호적 인식을 갖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 결과를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함
- 셋째, 사람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의료·복지, 기초생활 기반, 주거환경, 경제활동 기회'를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도농의 '교류·협력 활동'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하였음
- 도농융합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에 앞서, 일상 생활 속에서 농촌에 대해 갖고 있는 불편함 또는 거부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교류·협력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야 함
- 넷째, 도농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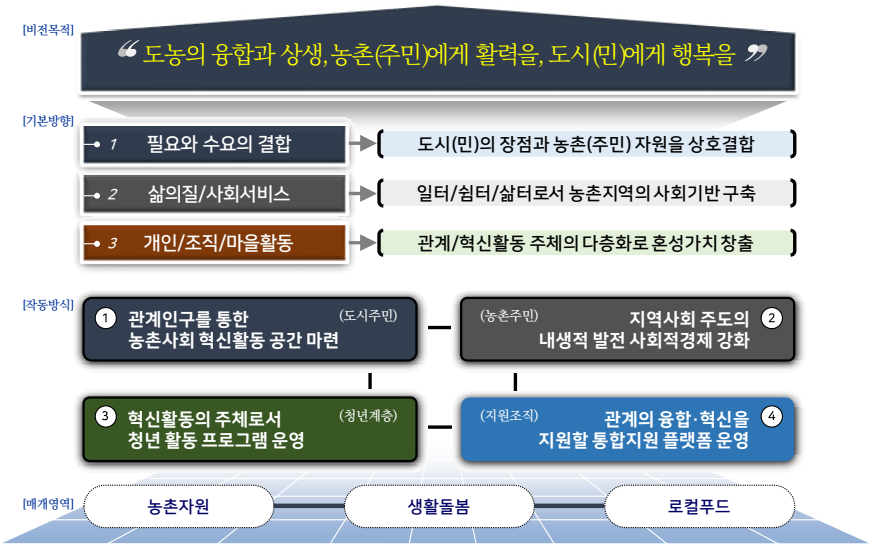
보통 수준의 의향을 보였는데, 농업·농촌에 대해 갖는 태도의 수준을 구분하여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과제가 요구됨

- 농업계는 도시민이 영농 등 영역에서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도시민의 태도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농촌지역에서 발휘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됨

❍ 이상의 주요논의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정책화를 위해 마련해야 할 내용으로 '도농융합상생'의 개념, 기본구상, 전략체계 등을 정리·제안하였음

- (정의) '도농융합상생'은 농촌과 도시가 서로의 필요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관계(망)를 통해 공동의 선(善, 이익)을 구현해나가는 영역과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비전) 도농융합상생은 '도농(都農)의 융합(融合)과 상생(上生)-농촌(주민)에게 활력을, 도시(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방식으로 비전과 목적을 제시함
- (방향) 도농융합상생은 '도시-농촌간 필요-수요의 결합,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개인과 조직 등의 주체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아 방향을 구체화하였음
- (방식) 도농융합상생의 '작동방식'은 '관계인구를 통한 농촌사회 혁신활동 마련,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사회적경제 방식, 혁신활동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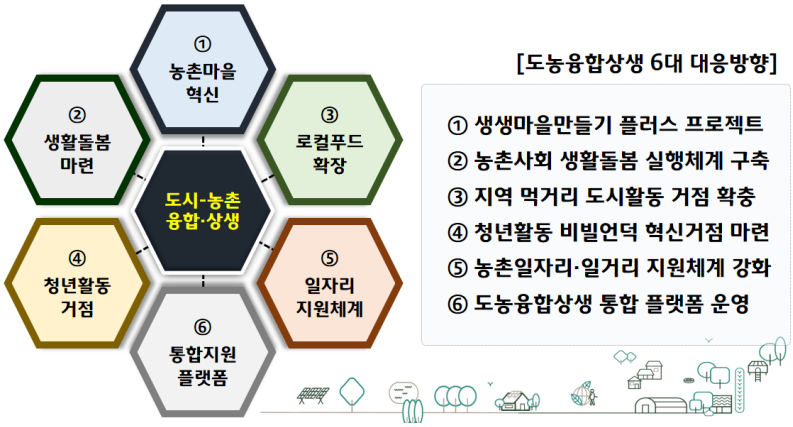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의 전략체계〉



주체로서 창조계층의 활동, 주체 간 관계의 융합·혁신 지원'으로 제안하였음

- (매개) 도농융합상생 활동이 실제 이뤄지는 컨텐츠는 농촌 필요와 도시 수요를 고려하여 '농촌자원, 지역 먹거리, 생활돌봄'을 매개로 '도심-마을'를 잇는 혁신활동 거점·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 (전략) 도농융합상생의 실행은 '⓪삶의 질 영역을 집중 관리하고 주체(관계인구)를 (조직적으로)형성해 혁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①농촌마을 혁신, ②생활돌봄 마련, ③로컬푸드 확장, ④청년활동 거점, ⑤일자리 지원체계, ⑥통합지원 플랫폼' 등 6+1 추진전략을 제안하였음

〈도농융합상생의 대응방향과 전략〉



❍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과 전략체계'에 따른 6+1 추진전략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⓪ 기본전제.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인력 확보'

- 도농융합상생이 구체적 활동으로 일어나는 공간은 '농촌'을 중심으로 하므로, 농촌을 '행복 삶터, 일터,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수준과 삶의 질 기준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함
- 고령화·과소화된 농촌사회의 여건을 고려할 때, 도농융합상생의 실체적인 활동은 농촌지역과 교류·협력 또는 이주·정착하는 도시민을 주체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귀결되므로 이에 대한 실효적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함

① 추진전략 1.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는 생생마을에 도시민의 사회적 수요와 농촌주민의 생활적 필요를 결합한 종래의 마을만들기에 도농융합상생 관점의 '두 번째 삶터로서 색깔 입히기' 전략임
-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①농촌여행 플러스, ② 건강+치유 플러스, ③문화·예술촌 플러스, ④귀농(농사) 플러스' 등 4대 프로그램을 제안함

② 추진전략 2. '농촌생활 돌봄과 생활기술종합학교'
- 생활돌봄이 필요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미충족 생활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조직'이 프로그램을 맡도록 담당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 대응인력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임
-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의 문화·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사회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과 도전에 필요한 기술인 '생활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농촌생활기술학교' 운영을 제안함

③ 추진전략 3. '지역 먹거리 공유부엌과 치유·돌봄농장'
- 지역 먹거리 체계의 관점에서 먹거리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공유부엌(커뮤니티키친)' 등 먹거리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는 실천공간을 도시지역에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함
- 농업·농촌은 다기능성이 있어 농업에 관련된 (치유·돌봄)활동을 통해 현대 사회 도시민이 안고 있는 사회적·신체적 문제를 의학적·사회적 치료로 개선할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치유·돌봄농장'을 제안함

④ 추진전략 4.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과 협업농장'
- 청년 활동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농촌, 청년-은퇴자, 정부-민간, 영리-비영리, 지역-세계 등 세대·공간 경계를 넘어 소통과 교류, 연결이 이루질 수 있는 이른바 '농촌형 사회혁신허브' 조성을 제안함
- 도시지역 청년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의 경로를 볼 때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활동을 매개로 농촌에 필요한 혁신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역할을 모색하는 거점으로 '청년협업농장'을 제안함

⑤ 추진전략 5.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 강화
-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시·

군 '농업·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가 관련 주체들의 구심점이 되어 농촌 일자리를 총괄 지원·담당하고 역할방안을 더욱 높여내야 함을 제안함

- 농업·농촌의 일자리·일거리 지원조직은 '청년의 창직(創職)과 정착기반' 조성, 농촌기업의 '지역사회 고용확대' 촉진, 지역사회 '농업·농촌 일자리 DB구축' 등 직접 수행과 통합적 관리·지원 등의 역할이 중요함

⑥ 추진전략 6. '도농융합상생 O2O 통합 플랫폼' 운영

- 도시-농촌의 교류와 협력, 융합을 촉진시킬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분산·운영되는 기존 홈페이지 기능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개설·운영할 것을 제안함
- 도농융합상생 통합 플랫폼에는 농촌사회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농지, 주택, 일자리, 재능기부, 먹거리 등과 관련한 지원조직·사업조직의 정보도 통합적으로 연결하며, 오프라인 플랫폼(창구)도 결합시켜야 함

❍ 이 연구는 도농교류의 수단을 넘는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도농융합상생'의 정책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어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 농촌 마을만들기 혁신전략 도출 등 정책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그동안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 농촌활력 영역의 정책을 고도화하여 '살기 좋은 행복 삶터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연구의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개념은 학술적으로 더 많은 후속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추진전략 등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정책현실을 고려할 때 세부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연구가 필요함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구성 ····· 5

제2장. 도농융합상생, 주요논의 ····· 9
1. 선행연구 검토 ····· 12
2. 도농융합 관련 주요논의 ····· 21
3. 주요 논의의 시사점 ····· 35

제3장. 도농융합상생, 수요진단 ····· 39
1. 조사개요 및 응답현황 ····· 42
2. 삶의 질 수준의 진단 ····· 44
3. 농업·농촌 태도와 생활만족도 ····· 50
4.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필요조건 ····· 52
5. 농촌지역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태도 ····· 58
6. 조사결과 종합논의 ····· 61

제4장.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 65
1. 도농융합상생, 개념검토 ····· 68
2.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 71
3. 도농융합상생, 대응방향 ····· 74

제5장. 도농융합상생, 추진전략 ····· 79
1.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인력 확보 ····· 82
2.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 84
3. 농촌생활 돌봄과 생활기술종합학교 ····· 87
4. 지역 먹거리 공유부엌과 치유·돌봄농장 ····· 91
5.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과 협업농장 ····· 96
6.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 강화 ····· 100
7. 도농융합상생 O2O 통합 플랫폼 운영 ·····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7

참고문헌 ····· 117

부 록 ····· 123
1. 농촌지역 활동·프로그램 참여의향 특성 분석 ····· 125
2. 삶의 질 수준 진단과 농촌에 대한 수요 조사표 ····· 141

표 목차 | Contents

〈표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7

〈표 2-1〉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 21
〈표 2-2〉 도시와 비교한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 23
〈표 2-3〉 도시-농촌의 연계와 상호 의존성 구조 ····· 27
〈표 2-4〉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대별 ····· 37

〈표 3-1〉 응답자 현황 ····· 43
〈표 3-2〉 삶의 질의 만족도와 중요도 ····· 44
〈표 3-3〉 삶의 질 항목별 도시민-농촌주민 만족도·중요도 비교 ····· 46
〈표 3-4〉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전체) ····· 47
〈표 3-5〉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농촌주민) ····· 48
〈표 3-6〉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도시민) ····· 49
〈표 3-7〉 농업·농촌의 태도와 삶의 질 수준 ····· 50
〈표 3-8〉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 필요조건의 만족도와 중요도 ····· 52
〈표 3-9〉 농촌 필요조건의 중요도·만족도의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 54
〈표 3-10〉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전체) ····· 55
〈표 3-11〉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농촌주민) ····· 56
〈표 3-12〉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도시민) ····· 57
〈표 3-13〉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태도 ····· 59
〈표 3-14〉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 ····· 60

〈부표-1〉 농촌에서 (일정기간) 살아보기 체험 활동 참여 확률 ····· 127
〈부표-2〉 농업소득을 올리는 전문적 영농 활동 참여 확률 ····· 128
〈부표-3〉 취미와 소일거리 등을 위한 농사짓기 활동 참여 확률 ····· 129
〈부표-4〉 농산물·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과 판매활동 참여 확률 ····· 130
〈부표-5〉 농촌 관광사업 활동 참여 확률 ····· 131
〈부표-6〉 농촌의 환경·생태자원 보전 활동 참여 확률 ····· 132
〈부표-7〉 농촌지역에서의 취업 또는 창업활동 참여 확률 ····· 133
〈부표-8〉 농업과 먹거리를 통한 체험·교류활동 참여 확률 ····· 134
〈부표-9〉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확률 ····· 135
〈부표-10〉 마을공동체 연계 참여활동 참여 확률 ····· 137

〈부표-11〉 취미와 여가 등의 동아리(모임) 활동 참여 확률 ····· 138
〈부표-12〉 지식·경험을 활용한 지역사회(단체·조직) 활동 참여 확률 ····· 139
〈부표-13〉 개인적인 예술·문화 창작 활동 참여 확률 ····· 140

그림 목차 | Contents

〈그림 2-1〉 농촌 유토피아 구상 실천영역과 과제 ····· 12
〈그림 2-2〉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전략 ····· 13
〈그림 2-3〉 충북형 농시(農市)의 비전과 영역 ····· 14
〈그림 2-4〉 농촌 지역재생의 사업모델 ····· 15
〈그림 2-5〉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패턴 ····· 22
〈그림 2-6〉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농촌 이슈 ····· 24
〈그림 2-7〉 농촌의 지역개발 프로세스 : 구조, 흐름 및 정책 개입 ····· 27
〈그림 2-8〉 도농교류의 구성요소와 흐름 ····· 28
〈그림 2-9〉 일본의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 이미지 ····· 29
〈그림 2-10〉 도농교류의 범위와 영역-1 ····· 30
〈그림 2-11〉 도농교류의 범위와 영역-2 ····· 31
〈그림 2-12〉 도시수요-농촌문제 연결 유토피아 플랫폼 ····· 32
〈그림 2-13〉 관계인구의 양적·질적 분류 ····· 33
〈그림 2-14〉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 ····· 33
〈그림 2-15〉 창조계층 유치 플랫폼 ····· 35

〈그림 3-1〉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의 틀 ····· 43
〈그림 3-2〉 삶의 질 항목별 만족도 비교 ····· 45
〈그림 3-3〉 삶의 질 항목별 도시민-농촌주민 만족도·중요도 비교 ····· 45
〈그림 3-4〉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전체) ····· 47
〈그림 3-5〉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농촌주민) ····· 48
〈그림 3-6〉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도시민) ····· 49
〈그림 3-7〉 농업·농촌의 태도와 삶의 질 수준의 항목별 비교 ····· 51
〈그림 3-8〉 농업·농촌의 태도와 삶의 질 수준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 51
〈그림 3-9〉 농촌 필요조건의 중요도·만족도의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 53
〈그림 3-10〉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전체) ····· 55
〈그림 3-11〉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농촌주민) ····· 56
〈그림 3-12〉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도시민) ····· 57
〈그림 3-13〉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 ····· 58
〈그림 3-14〉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 59

〈그림 3-15〉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태도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 59
〈그림 4-1〉 도농융합상생, 기본개념 검토 ····· 70
〈그림 4-2〉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의 전략체계 ····· 73
〈그림 4-3〉 도농융합상생의 대응방향 ····· 77
〈그림 5-1〉 행복 삶터 농촌,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 기준 ····· 82
〈그림 5-2〉 농촌사회에서 청년인력의 유입·확보 흐름 ····· 83
〈그림 5-3〉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의 기본구상 ····· 85
〈그림 5-4〉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의 예시 ····· 86
〈그림 5-5〉 농촌 생활돌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개념 ····· 88
〈그림 5-6〉 청년농촌정착 플랫폼의 기본구조 ····· 91
〈그림 5-7〉 부천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사례 ····· 92
〈그림 5-8〉 치유농업의 개념과 작동체계 ····· 95
〈그림 5-9〉 농촌형 사회혁신허브 개념도 ····· 97
〈그림 5-1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사업구조 ····· 98
〈그림 5-11〉 젊은협업농장의 교육프로그램 예시 ····· 99
〈그림 5-12〉 젊은협업농장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활동 연계망 ····· 99
〈그림 5-13〉 농촌사회 일자리·일거리 지원 핵심전략 ····· 101
〈그림 5-14〉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의 역할 구조 ····· 102
〈그림 5-15〉 도농 연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예시 ····· 103
〈그림 5-16〉 도농 연계 통합지원 플랫폼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예시 ····· 104

1 장

연구의 개요

Jeonbuk Institute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구성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 우리 사회는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에서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1)]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거점개발' 방식의 한계로 농촌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은 도시보다 크게 뒤쳐지는 등 '상대적 배제'를 야기하였고, 그 자체로 '농촌문제'가 되고 있음

❍ 이렇듯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는 우리 사회가 양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는 역사적으로 상호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실 산업화 시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값싼 노동력·식재료 등과 같은 자원동원 체제에 근거하였는데, 농촌지역은 그러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충실한 자원 공급처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임

❍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로의 '자원 집중'은 농촌지역의 '자원 과소'를 이르는데, 이로 인해 농촌의 주거, 교육, 의료, 생활, 경제 등의 여건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이어져 결국 농촌의 과소화로 귀결되고 있는 것임

❍ 한편 농촌지역의 현실 문제에 집중하여 그동안 많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으로 이어지지 못해 농촌현실은 크게 나아지거나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시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방법은 '주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삶터'로 바꾸어 내는 지속적인 시도와 실천을 꼽을 수 있겠음

---

1) 압축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민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음(국제통화기금(IMF), 2019년말 기준)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주목하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접근하는 여러 시도와 실험이 이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반농반엑스(半農半X)[2]와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실천적 실험과 논의로 꼽을 수 있음

○ 농업·농촌 문제는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이 집중된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민)이 갖는 농촌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전략의 일부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높은 시점임

○ 이러한 인식은 농업·농촌 영역에 국한된 문제해결 방안·노력으로는 농촌지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음

○ '도시↔농촌' 간의 교차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도시가 결합된 생활방식(rural+urban)이 함께 디자인 된 공간으로 농촌이 주목받고 있지만, 평면적인 교류와 체험 등과 같은 과거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임

○ 이에 사회적 변화와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문제(조기은퇴, 재취업, 노후준비 등)와 농촌문제(과소화, 고령화, 삶의 질 저하, 문화·예술 빈곤 등)를 결합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농융합상생'의 필요가 제안되고 있는 것임[3]

○ '도농융합상생'은 '도농분리 사회[4]'에 주목하는 대응전략으로서 '도농교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도농융합상생의 개념과 정책화를 위한 논의의 근거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지역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농촌개발 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5]

---

2) 반농반X는 농업과 다른 직업을 동시에 함께하는 생활 패턴을 말하는 것으로 반은 농업에 종사하며 반은 농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

3) 성경륭(2019), '포용국가와 新균형발전', 전북연구원 콜로퀴엄 발표자료.

4) 이에 대해 성경륭(2019)은 도시와 농촌은 제로섬(zero-sum)의 관계로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농융합문명의 창출'을 제안하고 있음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진행한 '농촌 유토피아' 정책연구와 함양군 '아이토피아' 사례가 대표 사례라 할 수 있겠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전라북도가 '농정(農政)'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융합상생'의 정책적 근거와 내용을 기본구상 수준에서 마련하고, 이에 기반해 전북도정에서 우선 검토해 나갈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방향을 정립하는 전북연구원의 '기획연구'이며, 전라북도가 관련 정책을 준비하기 위기 위해 내용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정책연구'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2. 연구내용과 구성

○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는 연구목적을 위해 도농융합상생에 대한 '①주요논의, ②수요분석, ③기본구상, ④대응전략' 등 4개 영역으로 연구를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함

○ 첫째, '도농융합상생의 근거정립'을 위해 관련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함

- 도농융합상생의 문제의식은 농촌과 도시는 일방향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제로섬(zero-sum) 관계이므로 공생(共生)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있음
- 이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연계, 교류, 연결, 혁신'을 다룬 선행하는 사례연구 등을 검토하여 도시와 농촌, 도농교류, 도농융합의 주요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둘째, '도농융합상생의 필요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문제에 관련된 환경변화와 이슈를 정리하고, 사회적인 수요를 조사·분석하고자 함

- '도시 과밀화와 농촌 공동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현실 변화를 포착하여 도시-농촌의 관계에 대한 수요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함
- 이를 근거로 도농융합 활동의 참여 주체가 농촌활력에 필요한 활동·프로그램에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는지 전북도민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셋째, 도농융합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수요를 진단하여 새로운 대응전략으로서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을 마련하고자 함

- 도농융합상생은 '도시-농촌의 관계, 융합과 상생의 사회적 맥락'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개념을 정립·대별하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 넷째,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제안하여 정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도농융합상생의 지역사회 대응에 필요한 '전제, 방식, 매개, 영역' 등에 입각하여 핵심적인 실행수단으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기본전제를 제시하고, 정책화 여건을 고려해 '①농촌마을 혁신, ②생활돌봄 마련, ③로컬푸드 확장, ④청년활동 거점, ⑤일자리 지원체계, ⑥통합지원 플랫폼' 등 6+1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문헌연구'는 도농융합상생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색하고 집중 검토하여 연구의 주요내용과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하였음
- '설문조사'는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한 전북도민의 의식과 태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어 전북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는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함께 활동참여 의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수정 IPA 분석, 순서형 프로빗 모델분석)을 병행하여 전략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 '자문회의'는 농업·농촌, 도농교류, 사회혁신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진이 견지해야 하는 관점, 추진전략 도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자문받았음[6)]

❍ 이 연구는 도농교류의 수단을 넘어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도농융합상생'을 제

6)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삼락농정위원회 농촌활력분과 위원으로 구성된 '도농융합상생 TF(2020)' 회의를 3차례 진행하였음

안하고 현실적인 정책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과 농촌마을 만들기의 혁신전략을 도출하고 정책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전라북도 '삼락농정' 농촌활력 영역(사람찾는 농촌)의 정책을 고도화하여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음

❍ 다만,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개념은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학술적인 후속 논의와 정책화를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에 따른 전략체계와 추진전략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추가 연구가 필요함[7)]

〈표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구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1장〉 문제의식	· 도농융합상생, 주목하는 배경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2장〉 내용검토	· 도농융합상생 선행연구 검토 · 도농융합상생 주요논의 정리	문헌검토 자문회의
〈3장〉 수요분석	· 도시민-농촌주민 삶의질 진단 · 도농융합 활동 관련 인식·태도 · 활동참여 관한 의향·태도특성	설문조사 통계분석 자문회의
〈4장〉 기본구상	· 도농융합상생, 개념정리 · 도농융합상생, 체계구상 · 도농융합상생, 대응방향	자료검토 자문회의
〈5장〉 추진전략	· 도농융합상생, 기본전제 · 도농융합상생, 추진전략 · ①농촌마을, ②생활돌봄, ③로컬푸드 · ④청년활동, ⑤일자리, ⑥통합플랫폼	자료분석 자문회의
〈6장〉 요약정리	· 연구의 주요내용 요약과 정리	

7) 연관된 전북연구원의 연구과제로 2020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완료), 2021년 '생활기술종합학교 운영방안'(진행중) 등이 있음

2 장

도농융합상생, 주요논의

Jeonbuk Institute

1. 선행연구 검토
2. 도농융합 관련 주요논의
3. 주요논의의 시사점

제2장. 도농융합상생, 주요논의

❍ 그동안 농촌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농교류가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농촌관광 등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주목해 왔음

❍ 이들 선행연구는 도시의 인적·물적 자원을 농촌으로 유입·촉진시킬 방안에 집중했고, 그 방식으로 농촌지역개발 정책 프로그램 논의에 집중해온 측면이 큼

❍ 그러나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등과 같은 정책수단은 도시와 농촌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교류하며, 누가 주체가 되어 관련 활동을 담당하여 문제를 시정·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8)]

❍ 이 연구가 견지하는 관점은 농촌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기반하되, 농촌 문제는 도시 수요와 농촌 필요에 근거할 때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임

❍ 이를 위해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하여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농융합 방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농촌과 도시는 일방향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제로섬 관계'이므로 공생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임

❍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전략적 실천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최근 수행된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는 도시-농촌의 혁신적 연계가 왜 필요하며, 무엇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대별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관계맺기 영역에서 어떠한 점을 다뤄야 할지 정리하고자 함

❍ 인구구조, 경제성장 등과 같은 변화는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적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어, 환경 변화와 이슈를 정리하여 현실의 수요를 객관화시키고자 함

---

8) 일방적 자원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농촌관광은 '소비되는 농촌'을 만든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한 내용은 小田切德美(2010)를 참조

1.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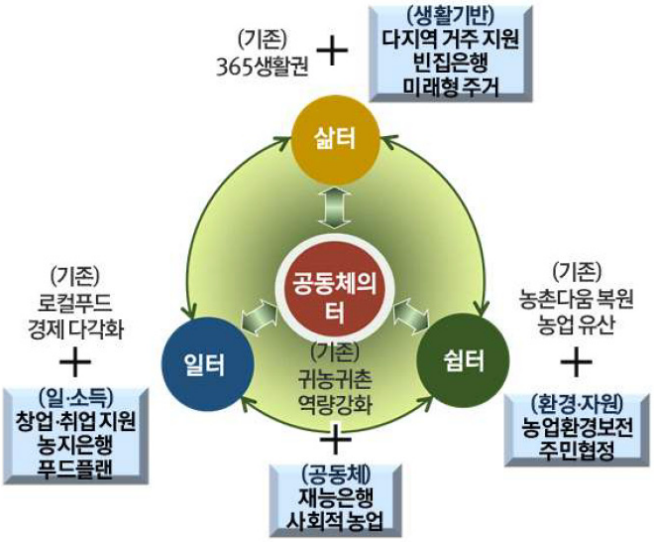
1) 국내연구

○ ‘도농융합상생’과 관련된 연구의 열쇠말은 ‘농촌 유토피아, 농촌 커뮤니티 재생, 도농교류, 농촌지역 재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의 대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개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첫째,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한 국내 대표 선행연구로는 송미령 외(2019)의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꼽을 수 있음[9)]

- 이 연구는 인구 과소화 위기에 직면한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 유토피아’ 방안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트렌드와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검토하면서 농촌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 평가하고, 이 과정

〈그림 2-1〉 농촌 유토피아 구상 실천영역과 과제



자료 : 송미령 외(2019)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9년 수행한 ‘농촌 유토피아 구현 기반구축 연구’와 ‘사회실험 추진방안 및 실증연구’를 종합한 정책연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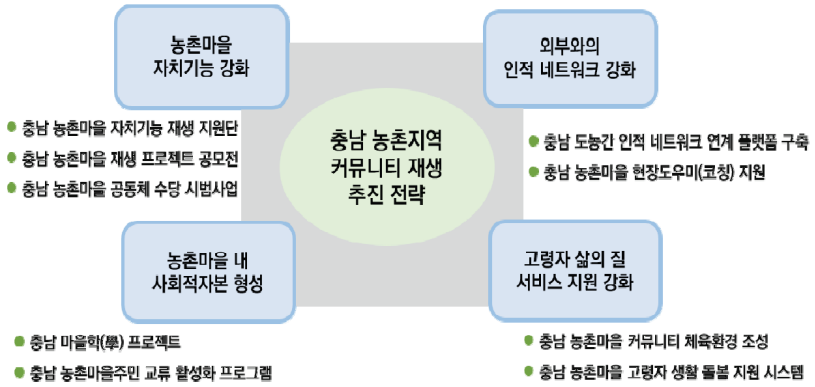
에서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있음

- 균형발전과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현과제로 '생활기반 부문, 일·소득 부문, 환경·자원 부문, 공동체 부문, 기반구축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음
-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트렌드 속에서 농촌의 미래가 변화할 것으로 보고, 도시민의 인생의 소원(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장(공간)이 바로 농촌지역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둘째, 농촌지역 재생전략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유학열(2021)의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전략'을 살펴볼 수 있음[10)]

- 이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은 고령화·과소화로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충청남도 차원의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전략을 제안하고 있음
-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재생시키기 위해 '농촌마을 자치기능 강화, 외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농촌마을 내 사회적 자본 형성, 고령자 삶의 질 서비스 지원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있음
-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농촌마을 자치기능 재생 지원단, 농촌마을 재생 프로젝트 공모, 마을학(學) 프로젝트, 농촌마을 커뮤니티 체육환경 조성' 등의 사업

〈그림 2-2〉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전략



자료 : 유학렬(2021)

10) 유학열(2020),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농촌지역정책 구상' 연구 수정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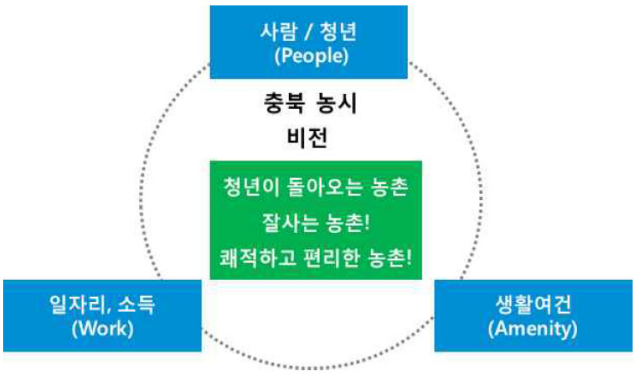
등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농촌마을이 수행해 온 공동체 본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상실해가고 있는 기능을 되찾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커뮤니티) 재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셋째, 도시-농촌 간의 공동 대응을 통해 농촌 생활권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연구로 마상진 외(2020)의 '충북형 농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가 있음[11)]

- 이 연구는 도시적·농촌적 어메니티가 충족되면서 지역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농촌의 365 생활권 구현을 위한 정책구상 성격을 가짐
- 여기서 다루는 '농시(農市)'는 농촌 생활권 차원에서 지역사회 주체들이 공동으로 과제 대응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창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농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조례제정·행정조직·협약체결·인력육성 등의 추진체계를 전제로, 농업형·농촌형·도시형 유형 구분, 청년임대농장,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조성 등의 신규 사업을 제시함
- 이 연구는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과 같은 농촌개발사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청년과 활동가 등과 같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그림 2-3〉 충북형 농시(農市)의 비전과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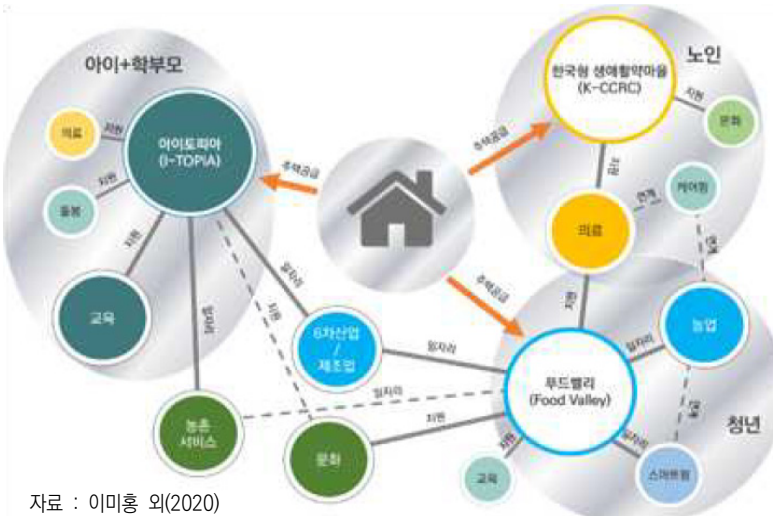
자료 : 마상진 외(2020)

11) 충청북도가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

❍ 넷째, 농촌 유토피아 구상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공간적 관점에서 농촌 지역재생 사업모델을 다룬 연구는 이미홍 외(2020)의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모델 연구'를 들 수 있음

- 이 연구는 도시민이 갖고 있는 농촌사회에 대한 높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프로젝트 연구(송미령 외, 2019)를 배경으로 사업기관(토지주택공사, LH)의 사업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맞춤형 지역재생 전략으로 학교살림마을 모델, 로컬푸드 생산유통마을 모델, 의료복지마을 모델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부처별 연계협력 방안도 검토하였음
- 읍·면 단위 인구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여 관계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자리, 생활SOC, 주거 등을 조합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업의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 연구는 주택 및 공간을 다루는 사업기관(토지주택공사)의 입장에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음

〈그림 2-4〉 농촌 지역재생의 사업모델



자료 : 이미홍 외(2020)

2) 국외연구 검토

❍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한 국외 선행연구의 키워드는 'rural-urban linkage, urban-rural interdependence, regional network model, urban-rural convergence' 등으로 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Akkoyunlu, S.(2015)[12]는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촉진하는 거래의 중요성 분석을 통해 도농 간 관계는 서로 지속적인 발전과정에서 교류를 촉진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의 연계는 농업, 산업, 서비스 분야 간의 전후를 연결하는 흐름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도시는 농촌경제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관계를 맺으며 시너지를 얻고 지역경제의 발달과 지속성을 향상시켜 나간다고 분석함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적 활동을 도시 공간에 중심화하기 보다 농촌-도시 간 연결의 영향에 관심을 두어야 그러한 활동을 촉진해야함을 강조함
- 이러한 농촌과 도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계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는 곧 정책의 분권화와 맞닿아 있으므로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주장함
- 도시와 농촌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고 파악함
- 연결이 잘 되고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과 도시 간의 클러스터는 집적(agglomeration)과 경제적 다양성(economic diversity)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류(上流, 후방연계, upstream)와 하류(下流, 전방연계, downsteam)의 연결을 담아낼 수 있고 지역 내에 그 영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파악함
- 결국, 농촌과 도시지역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존재하는 다양성(diversity)과 보완성(complementarities)을 모두 고려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이 상호 의존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12) Akkoyunlu, S.(2015). The potential of rural-urban linkag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rade.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policy, 4(2), 20-40.

❍ 둘째, Caffyn & Dahlström(2005)[13]은 지역 발달 이슈의 광의적인 체계에서 농촌과 도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책과 실제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 의존성에 관한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있음

-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의존성은 많은 요소를 공유하는 농촌과 도시의 경제적 특성들과 관련이 되는데, 농촌경제는 복잡한 연결 패턴을 가지고 도시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지역경제 발달의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는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규정지어졌다면(소비자, 시장과의 연결), 현재 도시와 농촌 간 연결은 흐름의 방향은 물론 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중복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상호 의존성은 지역 또는 커뮤니티 사이에서 의존하게 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함의하며, 상호 의존성, 뿌리 내림, 공간의 연계성은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유럽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의미를 개괄하고 있는데, ESDP(1999)[14]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능적 상호 의존성, 도시-농촌의 구분을 넘어 지역주민의 자발적 협력의 필요성, 인구가 적은 농촌마을과 도시 간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음[15]
- ESDP와 유럽의 정책 담론은 농촌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새로운 도시-농촌 관계에서 다소 '도시 편중, 지역 중심'을 가져, 결국 농촌 이슈가 상실되었다고 비판함(Jensen & Richardson, 2001)
- 지역개발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계획논의의 기회를 제공한 INTERREG IIIB 프로그램('00-'06)을 통해 지역정책 입안자가 구획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셋째, Castle & Weber(2011)[16]은 농촌과 도시의 관계를 장기적 변화를 통해

---

13) Caffyn, A. & Dahlström, M.(2005). Urban-rural interdependences: Joining up policy in practice. Regional Studies, 39(3), 283-296.

14) European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ESDP)(1999), Towards Balanc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15) ESDP는 기능적 지역, 도시-농촌 파트너쉽, 다중심주의 등의 개념을 강조하여 공간설계와 발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됨(Atkinson, 2001)

살펴보고, 트렌드가 내재화되는 통합체계, 모델, 농촌-도시 공간을 제시하며 농촌경제 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 그동안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체계에 대한 '중심지 이론, 내생적 성장이론, 신경제지리학' 등은 집중화의 원동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식(틀)이 되어 규모의 경제, 지식 전이, 노동시장 풀링(pooling) 등으로 수익을 증가시키는 원천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경제적인 통합(체계)은 지역을 넘어 경제적 주체의 위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권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내부-외부 지향성(inside-outside orientation)을 가진 개인은 동일 공간(장소)에서 상호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 내부 지향성이 높은 사람보다 외부와 연결되거나 외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함
-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은 경제적인 적응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공간적인 이점과 비용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거나 재측정해온 과정이었음
- 그러면서 사람들의 장소 지향성은 거주, 통근, 이주, 투자, 상품·서비스 판매·구입 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주목하고 있음
- 그동안 자원의 이동 흐름은 농촌→도시의 일방향으로 이뤄져 왔으나, 현대 사회에서 경제 발전은 농촌과 도시 간의 역동적인 상호 의존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함

❍ 넷째, Nilsson, K. et al.(2014)[17]은 주변 도시화(peri-urbanization)로 대표되는 도시발달 전략과 정책의 반응을 정책사례로 검토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유럽의 PLUREL(Peri-urban Land use relationships)[18]가 전제하고 있는 4가지 시나리오가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16) Castle, E. N., Wu, J., & Weber, B. A. (2011). Place orientation and rural-urban interdependence.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3(2), 179-204.

17) Nilsson, K. et al.(2014). Strateg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urban-rural linkages. European Journal of Spatial Development, 2014, 1-26.

18) the PLUREL 프로젝트(Peri-urban Land use relationships)는 도시 주변의 토지이용 관계와 도시-농촌 연계를 위한 전략으로 유럽위원회의 유럽 통합 연구 프로젝트임.

- 구체적으로 ①생산적 농업지역의 손실, ②소지역 생활권 소멸, 지역구조의 분절과 분열, 환경시스템 서비스의 감소, ③휴식지역의 감소와 장거리화, ④자가용 사용 증가, 교통 혼잡, 통근시간과 출퇴근 거리 증가, 기후변화(배기가스, 소음, 대기오염) 등이 그것임[19]
- 그러면서 주변 도시화 전략은 도시, 농촌, 자연기반 가치 간의 갈등을 야기하므로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구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앞으로 도시-농촌의 관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농업)이 주변 도시화에 대응하여 도시지역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Zasada, 2011)고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생물다양성, 인간의 건강과 안녕, 에너지 절감 등에 적합한 그린지대와 블루지대(green and blue corridors)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린과 블루 서비스(Green and Blue Services, Westerink & Aalbers, 2013)는 농민들의 식량생산과 생물 다양성 향상, 농촌 생활여건(rural amenity) 확충, 사유지 개방(public footpaths)과 통합하여 자연휴식 지역발달을 위한 공공의 토지구입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임에 주목함

19)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PLUREL의 실제 부정적 영향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북부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사례를 통해 실증하고 있음

〈참고〉

〈EU의 PLUREL 프로젝트(Peri-urban Land use relationships) 개요〉

· 유럽의 도시가 앞으로 발달할 4가지 시나리오 제시. 2개의 이론 축으로 ①글로벌(global) vs 지역(regional), ②경제(economic) vs 환경(environment)로 구분하여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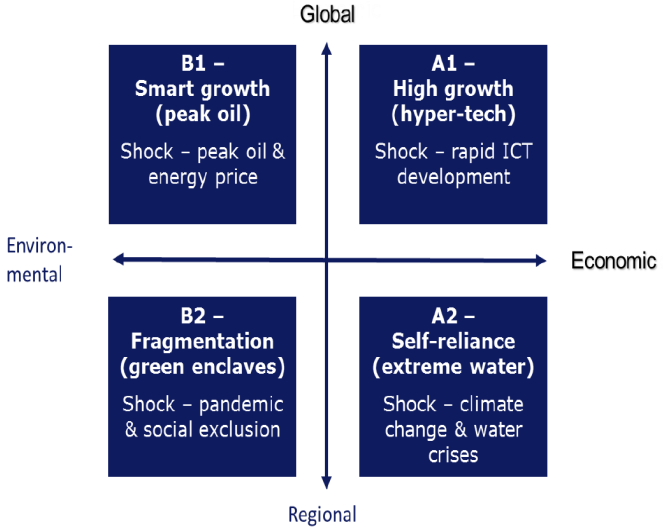
① hypertech : 급격한 경제성장, 새로운 기술의 확산, 에너지 비용의 감소되는 미래사회. 보편화되는 다기능성 도시 지역의 작은 도심(towns), 농촌 지역의 주변 도시화

② peak oil : 환경과 사회적 의식의 미래 회복세의 사회-지속가능한 발달에 글로벌한 접근, 화석연료 에너지 비용의 극적인 증가. 교통비가 출퇴근거리 허용치를 넘어설 때 대부분 좀 더 큰 도심과 도시로 회귀

③ fragmentation : 연령, 인종, 증가하는 국제적 불신 상황에서 느린 경제성장, 분열사회. 고령 원주민이 도시 밖 교외로 이주하는 반면 도심으로 젊은이들이 이주하여 거주하며 흩어지고 분리된 도시

④ self-reliance : 농촌화 지역, 지역지향 경제발전, 분절되고 느린 1인당 자본성장률(per capita economic growth)과 기술 변화. 사람들이 작고 자립가능한 공동체에 거주하도록 기후변화에 적응

〈유럽연합 PLUREL 시나리오 프레임워크와 이미지〉



자료 : Ravetz & Rounsevell(2008); Nilsson, K. et al.(2014)에서 재인용

2. 도농융합 관련 주요논의

1) 농촌-도시의 수요 변화

❍ 농촌과 도시를 둘러싼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는 크게 '①인구이동의 흐름(객관적 현황), ②농촌이주의 배경(사회적 이유), ③농촌사회의 역할(농촌공간 의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그동안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로의 집중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지역 간 교차이동이 확대되고 있는데, '농촌→도시'에서 '도시→농촌, 도시↔농촌'의 교차이동(cross flow) 증가가 그것임

-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은 귀농·귀촌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20], 이 중 귀농 인구보다 귀촌하는 인구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은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특히 귀촌인의 농촌으로의 이주 사유는 직업(34.1%), 주택(26.9%), 가족(24.8%), 건강(4.5%), 교통(2.7%), 교육(1.7%), 기타(5.3%) 등임[21]
- 이를 종합하면, 농촌 공간의 자원이 재조명되며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농촌 공간수요가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잠재적 귀촌인이 농촌생활에 쉽게 접근하도록 관계인구 확보와 두 지역 거주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송미령 외, 2020)

〈표 2-1〉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인구이동	8,226,594	7,755,286	7,378,430	7,154,226	7,297,099	7,104,398
농촌 → 도시(a)	829,814 (10.1%)	746,626 (9.6%)	707,902 (9.6%)	704,585 (9.8%)	741,380 (10.2%)	731,675 (10.3%)
도시 → 농촌(b)	926,125 (11.3%)	828,443 (10.7%)	822,271 (11.1%)	821,021 (11.5%)	786,998 (10.8%)	745,912 (10.5%)
농촌 순유입(b-a)	96,311	81,817	114,369	116,436	45,618	14,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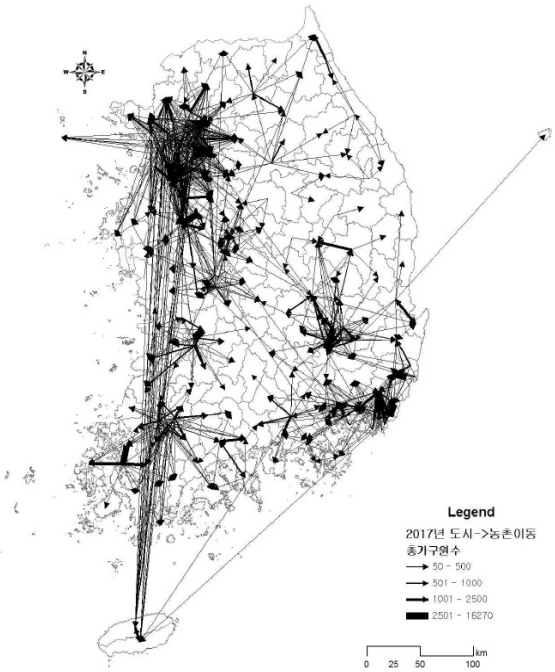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원시데이터 통합서비스; 송미령 외(2020)에서 재인용

20) 2019년 귀농·귀촌은 총 329,102가구, 460,645명임(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21) 귀촌 가구의 농촌이주 사유는 2018년에 비해 2019년 직업 33.3%→34.1%, 가족 24.4%→24.8%, 건강 4.1%→4.5%, 교육 1.4%→1.7%로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결국 '농촌(rural)+도시(urban)'가 결합되어 디자인된 공간에서 생활과 삶의 방식의 전환과 확산을 대표하는 핵심어로 이른바 농시(農市)[22] 생활이 주목되고 있는 것임
- 도시 공간에서의 자연화·농촌화, 농촌 공간에서의 도시화가 복잡한 수준과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이 중요함
- 무엇보다 초고속 전철이 일상화 되었고, 초고속 통신망이 확대되었으며, 소득 향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등과 같은 교류여건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면서, 전통적인 '도시-농촌'의 이분법적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함

〈그림 2-5〉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패턴



자료 : 송미령 외(2019), 2017년도 기준

22) 농시(農市)의 개념에 대해 마상진 외(2020)는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하여 농촌 생활권 차원에서 지역사회 주체들이 공동 과제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창출로 정의하고 있음

❍ 둘째,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주 이동의 배경을 통해 농촌에 대한 수요와 도시의 필요를 살펴볼 수 있음

-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귀농·귀촌인[23]의 이주 이유는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21.4%),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15.2%),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13.4%) 등으로 나타남
- 그러나 문화·예술·기술·전문지식의 역량을 가진 전문 계층은 '생태·공동체 가치 추구와 본인의 재능 활용'을 위한 목적이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계층은 '도시 생활비 과다와 도시생활 회의'가 높았음
- 농촌에 대한 수요는 도시민의 농촌 거주 의향[24]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문화·예술·기술·전문지식의 가진 전문계층은 농촌으로 이주 의향(22.5%)은 그렇

〈표 2-2〉 도시와 비교한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도시와 비교한 농촌에 대한 이미지(인식)		평균	전문계층	일반계층
0점 ←	보통(5점) → 10점			
타인의 시선이 차가운	타인의 시선이 따뜻한	7.3	7.3	7.4
분위기가 낯선	분위기가 친근한	7.2	7.1	7.3
심리적으로 불편한	심리적으로 편안한	7.3	7.3	7.3
가기가 먼	가기에 가까운	5.0	4.9	5.2
환경이 더러운	환경이 깨끗한	6.6	6.5	6.7
가치가 낮은	가치가 높은	6.5	6.5	6.4
절망적인	희망적인	6.5	6.5	6.5
위험한	안전한	6.5	6.5	6.6
매정한	인정이 있는	7.4	7.5	7.4
추 한	아름다운	7.4	7.5	7.3
먹고 살기 힘든	먹고 살만한	6.1	6.0	6.2
나와 관련 없는	나와 관련이 깊은	6.4	6.4	6.4
나쁜 기억이 있는	좋은 기억이 있는	7.5	7.6	7.4
즐길 만한 것이 없는	즐길 만한 것이 많은	6.0	6.0	5.9
가고 싶지 않은	가고 싶은	7.2	7.3	7.2
생산적이지 않은	생산적인	7.0	7.1	6.8
투자할 곳이 못되는	투자할 만한	6.7	6.8	6.6
살기 싫은	살기 싶은	7.0	7.1	7.0

자료 : 김광선 외(2019)

23) 2014년~2018년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으로 새롭게 활동한 56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진행한 조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김광선(2019)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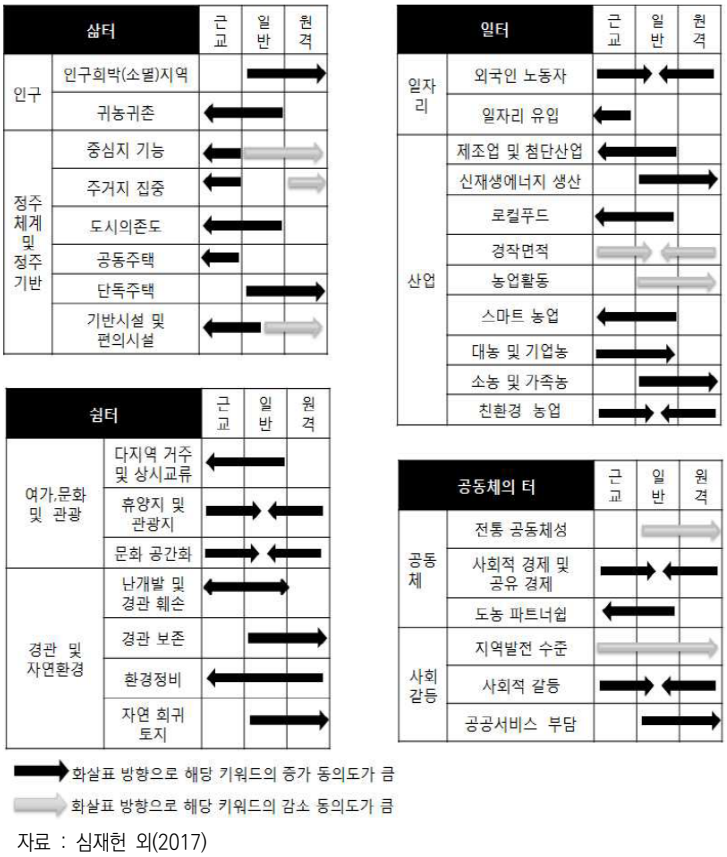
24) 7대 특·광역시 거주 도시민 700명으로 대상으로 2019년 진행한 조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김광선(2019)을 참조

지 않는 계층(17.4%)보다 높음

- 특히 주목할 사항은 완전 이주는 아니더라도 도시와 농촌에서 병행 거주할 것이라는 도시민의 비중이 53%로 높다는 점임(김광선 외, 2019)
- 이는 도시민은 도시에서의 생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인 불만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농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와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민 계층에 비해 문화·예술·기술·전문지식의 역량을 가진 계층은 농촌에 대한 이미지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에 주목해야 함

❍ 셋째, 인구이동의 양적·질적 배경을 바탕으로 농촌은 전통적 식량생산과 정주공간을 넘어 살기 좋은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

〈그림 2-6〉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농촌 이슈



자료 : 심재헌 외(2017)

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농촌이 담당하는 주요한 기능은 1970년대까지는 근대화를 지원하는 식량생산(증산) 공간, 1980년대는 주민의 기초수요에 대응한 농촌정주생활권, 2000년대 이후 귀농·귀촌과 도시민 정주 등 복합생활공간으로 흐름이 변화하였음
-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농촌은 일터, 삶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농촌사회 대응전략이 강조되고 있음
- 삶터로서 농촌은 생활기반의 차이가 생겨 도시로부터 멀어질수록 인구가 적은 지역이 많아질 것이며, 도시에 가까운 지역에는 이주 인구(귀농·귀촌자 등)가 늘어나고 있음
- 일터로서의 농촌은 농업생산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으며, 도시 연접 지역은 산업기반(제조업 등)이 입지하고 있고, 특히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증가하고 있음
- 쉼터로서의 농촌은 다(多)지역 거주와 도농교류 활동의 증대가 배경으로 농촌은 휴양과 문화기능이 강조되는 반면, 난개발과 경관 훼손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 정비와 경관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공동체 터라는 측면에서 농촌은 전통적인 공동체성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며, 공동체의 재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도농간의 파트너쉽 등을 통한 필요와 수요를 채우는 활동이 증대될 것임

❍ 이와 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 흐름과 농촌 공간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의 확대에 부응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임

❍ 도시와 농촌은 상류(上流)와 하류(下流)의 일방적 흐름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공간 관계로 바뀌고 있고, 삶터, 일터, 쉼터로 기능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인구 등 자원 이동이라는 흐름보다 도시의 수요에 부응한 농촌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관한 이슈가 주요 관심사항임

2) 농촌-도시의 관계 논의

❍ 이 연구에서 다루는 도농융합상생은 도시-농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의미하고 있는 바, '농촌-도시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도시와 농촌을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파악하는 것으로 도시는 지역에 상품을 제공하는 반면, 농촌은 농업 등의 잉여를 제공하는 구조적 흐름을 포착해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임

- 그 주요한 내용으로 유럽의 논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농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가 농업의 생산을 위해 농업에 대해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농촌의 번영에 달려 있고, 그래서 대다수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임
- 더 구체적으로 농촌과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흐름을 식별하여 농촌구조의 변화에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연결할 수 있는데, ①흐름(flow)의 패턴, ②농촌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흐름(flow)은 '사람, 생산, 상품, 자본, 정보'로 구성되며, 각각은 서로 다른 공간적 연결 패턴을 나타내면서, 농촌과 도시에 서로 다른 이익(benefits)을 제공하는 여러 구성요소와 영향을 가짐[25)]
- 단일 마을과 단일 도심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보다 여러 마을과 지역, 그 이외의 도시 간 다중 연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다중 연결(multiple linkages)은 지역 네트워크(regional networks)뿐만 아니라 지역 클러스터(regional cluster)에서 기회와 제약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흐름의 역학(investigation of the dynamics)과 네트워크·클러스터 내의 구조적 변화는 지역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농촌과 도시간의 상호 연결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25) 예를 들어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는 정보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 농작물 전망, 농촌 지역에 대한 정보가 도시 중심에서 농촌 지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 이러한 제한된 정보 흐름의 이유를 파악하고 정보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Akkoyunlu, S., 2015)

〈표 2-3〉 도시-농촌의 연계와 상호 의존성 구조

도시(urban)	↔	농촌(rural)
• 농업 물류·수송	↔	
• 농업 지원 서비스 ·생산 투입 ·수리 서비스 ·생산방식(혁신) 정보	↔	• 농업 생산 • 농업 강화 ·농촌 인프라 ·생산 인센티브 ·도입·적응의 교육과 역량
• 비농업소비 시장 ·가공 농산물 ·개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보건, 교육, 행정)	↔	• 농촌소득, 생활상품·서비스수요
• 농업기반 산업	↔	• 현금작물 생산과 농업 다각화
• 비농업 고용	↔	• 위의 모든 항목

자료 : Douglass(1998); Akkoyunlu, S.(2015)에서 재인용

〈그림 2-7〉 농촌의 지역개발 프로세스 : 구조, 흐름 및 정책 개입

농촌-도시의 연계 흐름 ↯

농촌 구조와 구조적 변화				도시의 기능과 역할
사회경제적 구조·관계	←	① 사람 ·노동 (통근·이주) ·기타 이주 (예, 교육) ·쇼핑·방문·판매	→	비농업 고용
농촌경제 (부문)	←	② 생산 ·후방연계 (업스트림 연계, 투입) ·전방연계 (다운스트림 연계, 가공·제조)	→	도시 서비스 인구 공급
농촌생산 체제	←	③ 상품 ·투입 ·소비자 비내구재·내구재 ·농촌생산	→	비내구재·내구재
자연환경과 자원	←	④ 자본·소득 ·부가가치	→	농산물 판매시장
인프라·건축 환경	←	·저축·신용 ·이전금(송금)	→	가공·제조
		⑤ 정보 ·생산·판매·가격 ·복지·사회·정치 ·고용		고용·생산·물가·복지서비스 정보

(정책개입)
농업개혁; 농업강화·다양화; 협동조합; 환경 프로그램; 관개·저장시설 및 기타 농촌기반시설; 도로·교통; 전기; 통신; 항만·공항; 시장; 판매; 가판; 도시 서비스; 은행·신용; 도시기반시설; 통신 서비스

자료 : Douglass(1998); Akkoyunlu, S.(201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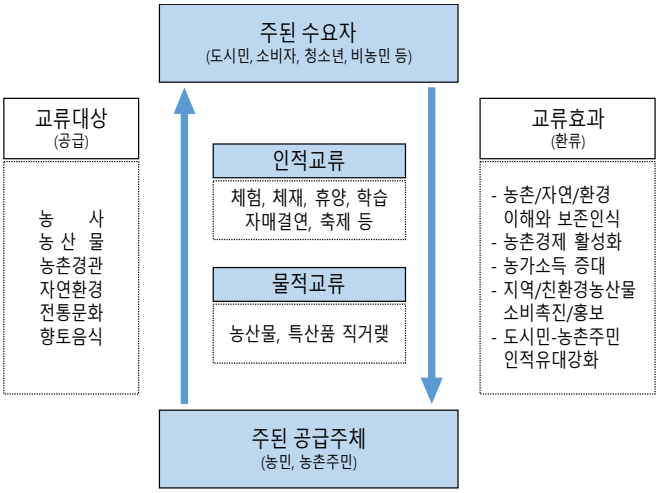
❍ 둘째,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의 필요성은 주로 농촌지역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제안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의에서는 주로 도농교류의 작동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입장임

- 공급자로서 농촌주민과 수요자로서 도시민을 교류 주체로 삼으며, 교류의 대

상과 활동은 농촌주민의 필요에 입각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은 이를 소비하는 구조로 도식화하고 있음[26]

- 농촌 내부의 교류 주체 설정을 통해, 도시에서의 교류 주체를 확실히 선택하고, 어떠한 교류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27]
- 도농교류의 주된 목표를 농촌 활성화로 삼을 때, 도시는 수요 영역, 농촌은 공급 영역을 담당하므로 도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이 갖춰야 하는 기본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음[2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일방적인 형태가 아닌 대응한 주고받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 구체적인 도농교류의 형태를 구분하는 틀로 ①정신적-물리적 관계, ②불특정-

〈그림 2-8〉 도농교류의 구성요소와 흐름



자료 : 本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2000); 임상봉 외(2004)에서 재인용

26) 이에 대한 연구는 本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2000), '都市農村交流展開の住民意義新潟県を小國町と事例として', 농촌계획논문집.

27) 이에 대한 연구로는 임상봉 외(2004),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부를 참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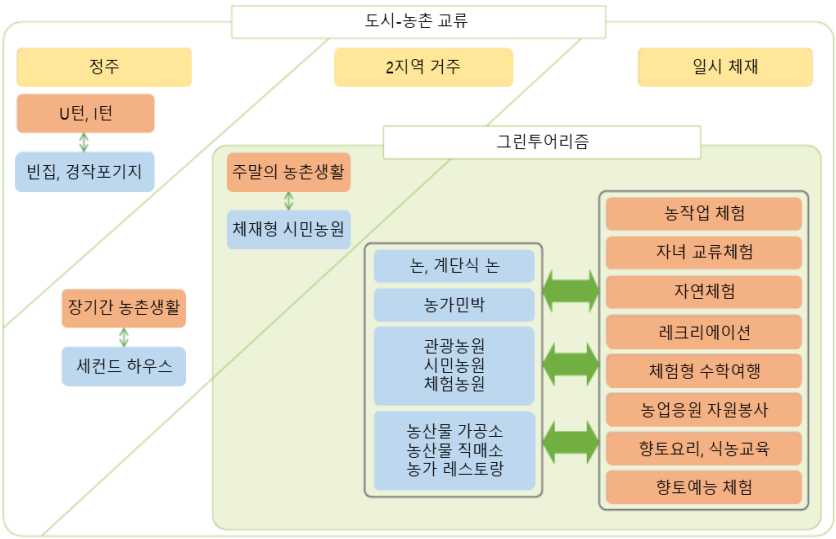
28) 도농교류 공급 측면에서 농촌이 갖춰야 할 여건으로 기본사항(농촌다움, 자연환경 등), 하드웨어(농장, 시설 등), 소프트웨어(정보, 접객 등)을 제안하고 있음

특정으로 나누면서 농촌의 매력요인과 도시의 결핍 요인 간의 필요·수요 충족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음

❍ 셋째,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와 협력은 결국 사람을 통한 자원의 이동인데, 이를 촉진하는 방안과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입장임

- 대표적 논의로 일본이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対流)'를 살펴볼 수 있음
- 도시와 농촌 간의 공생·대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사람, 물건, 정보'의 왕래를 활발하게 하고 도시와 농촌 각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역의 매력을 나누고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활동을 지칭하는 것임[29)]
-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도시민에게는 '여유와 평안'한 생활은 물론, 향토음식·전통문화·논·삼림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며, 이를 활용·이용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한 구체적인 형태로 일본은 농촌에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그림 2-9〉 일본의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 이미지



자료 : 農林水産省(2013)

29) 자세한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2013)의 '2012년 식료·농업·농촌 백서(平成24年度 食料·農業·農村白書)를 참조

'체재형, 두 지역 거주형, 정주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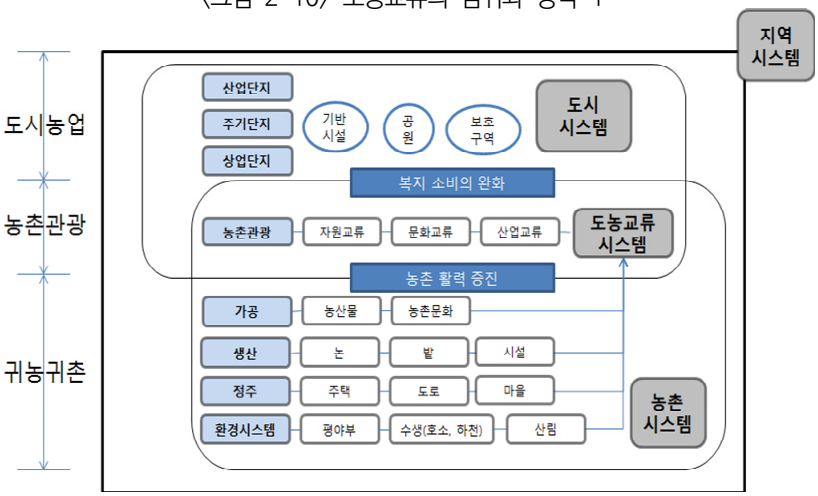
- 체재형은 농촌에 일시 거주하며 다양한 체험 등을 하는 것이며, 2지역 거주는 5도2촌(5都2村)과 같이 주말 등을 이용한 농촌 생활이고, 정주형은 아예 농촌으로 U턴·I턴을 통해 이주하는 형태를 말함[30]

○ 넷째,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구조화하여 도시농업,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과 같은 실행 방안으로 농촌-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조하는 입장임[31]

- 구체적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도시민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농촌다움과 관광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류 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융복합산업법', 일본은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 촉진법' 등을 근거로 도시와 농촌의 교

〈그림 2-10〉 도농교류의 범위와 영역-1



자료 : 윤재웅(2018b)

30) 이러한 도시민의 유입 촉진을 위한 근거로 일본은 도시민은 농촌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농림수산성 조사), 거의 모든 도시민이 농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지역에 약 50%의 도시민이 방문·체재를, 약 30%의 도시민은 거주·방문을 통한 관계를 희망하고 있는 것(국토교통성 조사)으로 파악하고 있음

31) 이에 대한 주요연구는 윤재웅(2018), '농촌관광사업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방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음

류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 도농교류의 범위를 전통적인 농촌관광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지역에 정주하는 '귀농·귀촌'과 도시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시농업'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32)
- 현행 관련 법률에 의해 정책으로 지정·지원·관리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와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농촌시설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음

〈그림 2-11〉 도농교류의 범위와 영역-2

자료 : 윤재웅(2018b)

○ 다섯째, 도시민의 삶의 질 실태를 진단하면서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토대로 하여 도시민의 인생 소원(버킷리스트)을 실현할 공간으로서 농촌에 주목하는 입장임33)

32) 주요내용으로는 ①기 투자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조직의 설치와 지원, ②교육청 및 지자체 소유 시설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의 관리 일원화, ③도농교류특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숙박업·체육시설·체험업의 지원 및 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음

33) 대표 연구로 송미령 외(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경제인문사회연

- 국민들은 도시 생활보다 농촌 생활에서 행복을 찾거나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 인프라의 차이가 있어 도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농촌주민보다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민은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주요한 공간(장소)로서 농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므로, 농촌이 가진 농촌다움 등을 유지하면서 삶의 공간, 일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농촌정책의 전환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 청년층·신중년층·은퇴자 등이 농촌을 무대로 새로운 활동을 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민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주요내용임
- 이른바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버킷리스트 조사결과 욕구가 높은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의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림 2-12〉 도시수요-농촌문제 연결 유토피아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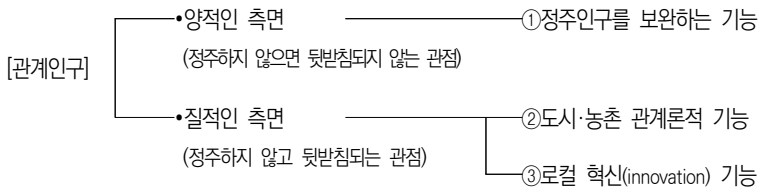
자료 : 송미령 외(2019)

구회를 꼽을 수 있음

❍ 여섯째, 과소화된 농촌지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이동과 흐름을 '관계인구'의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질적인 사회적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임[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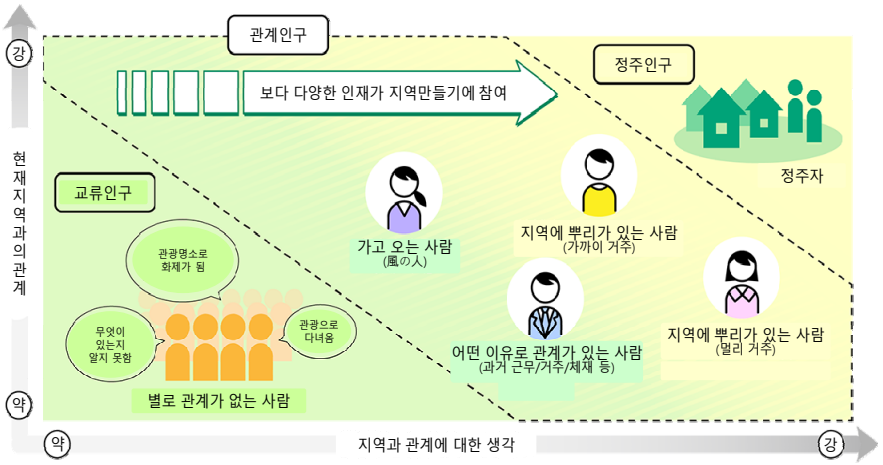
- 관계인구(關係人口)는 이주한 정주인구(定住人口)와 관광하러 온 교류인구(交流人口)가 아닌 지역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임(総務省 地域力創造グループ)
-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만들기 담당자가 부족한 현실이지만, 일부 지역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재가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

〈그림 2-14〉 관계인구의 양적·질적 분류



자료 : 作野廣和(2019); 한주성(2019)에서 재인용

〈그림 2-13〉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



자료 : 総務省 地域力創造グループ

34) 이에 관한 연구는 石山恒貴(2019), '地域とゆるくつながろう! サードプレイスと關係人口の時代', 靜岡新聞社, 河井孝仁(2020), '關係人口」創出で地域經濟をうるおすシティプロモーション2.0 まちづくり參畵への「意欲」を高めるために?', 第一法規出版를 참고할 수 있음

하고 있어 관계인구로 불리는 지역 외 인재가 지역만들기의 담당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가 아닌 제3의 인구로 양적인 면에서 정주인구를 보완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도농관계와 로컬혁신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35](한주성, 2019)

❍ 일곱째, 인구이동에 관한 요인을 거시적 요인(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초점)과 미시적 요인(개인의 이주 의사결정 고려)으로 구분하고 창조계층의 인재를 확보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입장임[36]

- 인구이동의 거시적 요인은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리적 환경 격차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함[37]
- 인구이동을 가져오는 미시적 요인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함[38]
-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이유로 구분하는데[39], 2000년도 이전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도시민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사회적 이유가 주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른바 창조계층(creative class)[40]의 인재를 확보하여 농촌지

35)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総務省)는 지역 외의 사람이 관계인구가 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제공하는 지방공공단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고 지역진흥협력대와 지역진흥기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있음

36) 김광선 외(2019),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7) 인구이동은 기대임금이 낮고 취업기회가 적은 곳에서 기대임금이 높고 취업기회가 많은 곳으로 인구가 이동하여 궁극적으로 두 지역의 기대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이뤄진다는 설명임. 그러나 이동비용과 이동지역의 기회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등은 인구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김광선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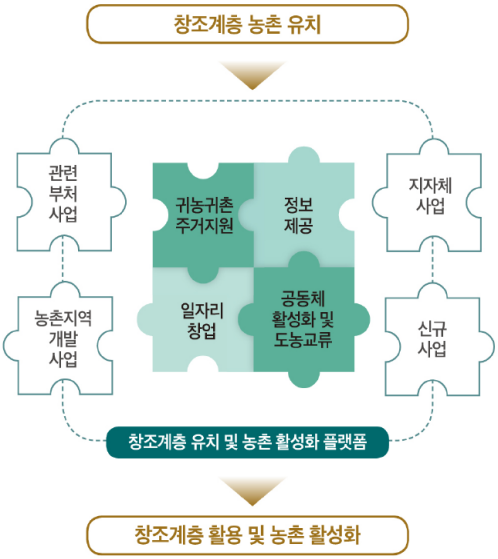
38)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과 이주로 얻을 수 있는 높은 소득이나 우수한 생활환경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여 지역 간 편익차이가 존재할 경우, 편익이 높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김광선 외, 2019)

39) 2000년도 이전에는 도시에서의 실직이나 낮은 소득으로 영농활동을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보고 도시민의 이주가 증가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도시의 부정적 환경과 새로운 대안적 삶을 찾아 건강하고 전원적 생활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함(김광선 외, 2019)

40) 창조계층은 문화·예술작품을 포함한 새로운 상품이나 체계, 관계 등을 개발, 디자인 또는 창조하는 일 즉, '의미있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함(Florida,

역 활성화를 위한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창조계층 유치를 위한 조건과 요소를 제안하고 있음

〈그림 2-15〉 창조계층 유치 플랫폼



자료 : 김광선 외(2019)

3. 주요 논의의 시사점

❍ 이상의 검토는 도시-농촌 관계에 대한 연구 관점·입장이 구체적인 관계맺기의 영역에서 대안과 대책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인데,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경제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도시-농촌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은 상호 교류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농촌은 상호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연결망과 네트워크'를 맺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그동안 농촌은 산업화를 위한 값싼 노동력과 먹거리 등 자원 동원과 공급처로 인식되어온 일방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농촌의 발전이 선행 또는 병행되

2005; 김광선 외, 2019에서 재인용)

어야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공생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 둘째,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수요자인 도시민과 공급자인 농촌주민의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농촌의 매력요인과 도시의 결핍요인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그 관계맺기의 핵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결 프로그램이 도시(민)가 원하는 수요에 농촌(주민)이 응답하는 체험·관광 위주의 이른바 '소비되는 농촌'과 농촌의 필요에 도시가 응답하는 '지원받는 농촌'이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임

❍ 셋째, 도시와 농촌은 '공생의 관점에서 사람, 물건, 정보가 서로 왕래'하는 활동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농촌에 어떻게 머물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도시민이 농촌에 '일시체재, 2지역 거주, 정주생활' 등 형태로 다양화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스쳐서 빠져나가는 체험·교류와 함께 가능한 농촌지역에 도시민이 체류할 수 있는 형태를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다층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넷째, 도농교류의 범위와 영역을 '도시농업, 농촌관광, 귀농·귀촌까지 확장'해야 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 '농촌지역의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는 농촌이 가지고 보유한 다양한 생태·환경 등의 농업자원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농촌지역개발과 같은 정책사업을 통해 조성된 여러 형태의 관련 시설(거점공간) 등을 포괄하여 시설·자원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임

❍ 다섯째, 사회적인 수요변화에 따른 '도시민이 인생소원(버킷리스트)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농촌'에 주목하여, 이를 농촌사회의 필요와 서로 연결하여 삶의 질 수준을 갖춘 농촌 유토피아를 장기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임

- 후기 산업화 사회를 지나고, 탈근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사회적 수요 분화는 농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되므로, 이에 적극 부응·대응하여 행복 삶터로 농촌을 탈바꿈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표 2-4〉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대별

연구관점	주요내용 요약
①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도시-농촌의 관계 파악	· 도시와 농촌은 상호 교류의 흐름을 가짐 · 상호 이익을 위해 연결과 네트워크를 강조
② 도시-농촌 간 교류 필요성과 작동방식 중심 검토	· 수요자인 도시민과 공급자인 농촌주민의 관계 · 농촌(매력요인)-도시(결핍요인) 연결 프로그램
③ 도농교류와 협력을 자원이동 프로그램으로 검토	· 공생의 관점에서 사람, 물건, 정보의 왕래 활동 · 체재형, 2지역 거주형, 정주형 등 단계별 확대
④ 도농교류 범위와 영역 확장을 강조하는 입장	· 도시농업, 농촌관광, 귀농/귀촌의 범위 포괄 · 도농교류을 넘어 농촌시설 전반의 체계 조성
⑤ 도시민 버킷리스트 실현공간으로 농촌을 파악	· 도시민의 인생소원 실현 공간으로 농촌에 주목 · 정주만족도 향상과 자아실현 기회 마련을 강조
⑥ 인구이동 관점에서 도농관계의 질적 관계 혁신 제안	· 정주인구·교류인구를 넘는 관계인구 개념 제안 · 관계인구를 통한 도농교류 농촌지역 혁신 강조
⑦ 인구이동 관점에서 전문인력의 수요와 유치에 주목	· 전문지식 가진 계층을 인재로 지역활성화 도모 · 창조계층 유치를 위한 농촌활성화 플랫폼 제안

❍ 여섯째, 인구이동 관점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인구 구조의 제약을 고려할 때, 이주하는 '정주인구'와 일시적 '교류인구'의 한계를 넘는 '관계인구'에 주목해, 이들이 농촌지역의 사회혁신을 실행할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장(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풍선효과의 덫'에 갇혀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사회와 관계하는 관계인구에 주목하여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일곱째, 지금까지와 같이 일반적·평균적 귀농·귀촌을 늘리려는 지원정책을 넘어서, 예술·문화·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인력(창조계층)을 주체로 파악하고, 그 구체적인 계층으로 청년의 활동 공간을 프로그램으로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임

- 농촌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고령화·과소화로 생활기술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지식·기술 등의 역량을 가진 혁신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평면적인 교류를 넘어 융합이라는 혁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장

도농융합상생, 수요진단

Jeonbuk Institute

1. 조사개요 및 응답현황
2. 삶의 질 수준의 진단
3. 농업·농촌 태도와 생활만족도
4.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필요조건
5. 농촌지역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태도
6. 조사결과 종합논의

제3장. 도농융합상생, 수요진단

❍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의 동원과 이용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 그 결과 과소화·고령화라는 현상화된 농촌의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농촌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전통적 농촌개발 방식과 도시로부터 일방적인 자원을 유입시키는 것으로는 문제의 시정·해결에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응전략이 요구되어 온 것임

❍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망은 공간이라는 영역에 갇히지 않고, 도시민과 농촌주민이라는 관계를 맺는 주체를 중심으로 다루어질 때 실효적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필요와 수요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임

❍ 이 장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주체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융합과 상생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기본방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농촌활력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함

❍ 이미 다양한 층위에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으로서 농촌에 대해 활동주체는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선행연구에서는 주목하지 않은 영역이었음

❍ 이에 첫째,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농촌지역에서의 생활과 삶의 질 수준을 어느 수준에서 평가하고, 농업·농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셋째, 농촌활력을 위해 지역에서 다양하게 기대되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참여 의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농촌활력에 대해 도시민과 농촌주민으로 구분하여 전북도민이 갖고 있는 인식, 의향, 태도는 ‘도농융합상생’을 위한 대응전략 논의 근거로서 의미가 있음

1. 조사개요 및 응답현황

❍ 도농융합상생은 도시(민)와 농촌(주민)의 교류활동을 전제로 다양한 층위에서의 혁신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북도민을 도시민과 농촌주민으로 구분하여 수요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음

❍ 이 조사는 전북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시·군 인구비례(도·농, 연령)로 표본을 할당하였고, 도시민 500명(71.4%), 농촌주민 200명(28.6%)임[41]

- 조사는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2021년 4월15일부터 4월19일까지 조사원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음
- 응답자는 남성 46%, 여성 54%, 연령은 50~60대(20.1%), 40대(18.3%), 70대(16.7%), 60대(16.0%), 30대 미만(15.0%), 30대(13.9%) 순임
- 응답자의 직업은 자영업(17.9%), 사무·관리직(15.3%), 주부(13.9%), 농림어업(10.6%), 학생(8.4%), 기타(7.4%) 등의 순임
- 평가 척도는 11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함(0-전혀 아니다~5-보통이다~10-매우 그렇다)

❍ 이상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평균값을 중심으로 항목별, 집단간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이어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측정한 '삶의 질과 생활수준, 살고 싶은 농촌 조건'은 중요도-만족도 분석(IPA)[42]을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반 IPA 분석의 한계(중요도 비율이 높음)를 고려해 수정 IPA 방법을 적용함[43]

---

41) 조사대상(표본)은 시·군별 도·농 인구(읍면부, 동부), 연령대별 인구(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대 이상)의 비중을 반영하여 표집하였음

4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중요도를 Y축으로, 만족도를 X축으로 한 2차원의 매트릭스에 표시, 중요도와 만족도 각 속성의 평균값을 적용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4사분면에 영역을 구분하며, 각 속성들을 위치시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Martilla & James, 1977; 서철현 등, 201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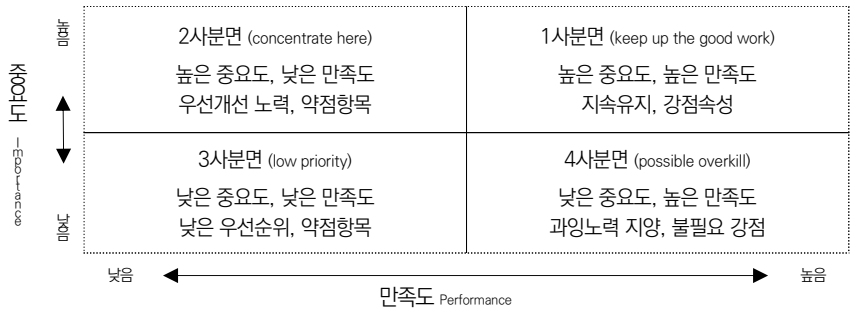
43) 이는 설문조사로 수집한 직접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 방법으로 도출된 간접 중요도가 예측 타당도가 높기 때문. 여기서는 각 속성별 만족도 항목을 자연로그로 변형하여 전반적 만족도와 편상관분석을 통해 편상관계수를 도출하고, 각 속성의 중요도 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직접 평가결과인 만족도를 X축으로고, 만족도를 자연로그로 변경하여 전반적 만족도와의 편상관 계수를 상대적 중요도인 Y축으로 사용함. 평균값(중심점)을 기준으로 X축은 성취도(명시적 만족도), Y축은 중요도(내재적 중요도)로 설정하고 4사분면에 나타내었음

〈표 3-1〉 응답자 현황

도시-농촌	빈도(명)	비율(%)	연 령	빈도(명)	비율(%)
도 시	500	71.4	30대 미만	105	15.0
농 촌	200	28.6	30~40세 미만	97	13.9
소 계	700	100.0	40~50세 미만	128	18.3
지 역	빈도(명)	비율(%)	50~60세 미만	141	20.1
전주시	247	35.3	60~70세 미만	112	16.0
군산시	103	14.7	70~80세 미만	117	16.7
익산시	111	15.9	소 계	700	100.0
정읍시	43	6.1	직 업	빈도(명)	비율(%)
남원시	31	4.4	농업·임업·어업	74	10.6
김제시	35	5.0	자영업	125	17.9
완주군	37	5.3	사무·관리직	107	15.3
진안군	10	1.4	생산·기능·노무직	46	6.6
무주군	10	1.4	전문직	29	4.1
장수군	10	1.4	교사·공무원	41	5.9
임실군	11	1.6	주 부	97	13.9
순창군	11	1.6	학 생	59	8.4
고창군	21	3.0	퇴직(은퇴)	33	4.7
부안군	20	2.9	무 직	37	5.3
소 계	700	100.0	기 타	52	7.4
성 별	빈도(명)	비율(%)	소 계	700	100.0
남 성	322	46	동거가족·소득	빈도(명)	평균값
여 성	378	54	평균 동거가족 수(명)	700	2.82
소 계	700	100	연평균 가구소득(만원)	560	4279.05

주 : 직업의 경우 복수응답

〈그림 3-1〉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의 틀



자료 : Martilla & James(1977)

2. 삶의 질 수준의 진단

○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을 관련 지표로 진단한 결과 만족도는 보통 수준(6.20), 중요도는 보통 이상(7.88)으로 나타남

- 삶의 질 만족 체감수준은 범죄(6.73), 자연재해(6.68), 생활서비스(6.63), 환경·경관(6.58), 사람들 관계(6.53), 상하수도·쓰레기처리·도로(6.47), 주택상태(6.39), 학교교육(6.25), 쓰레기·폐수·악취 등 환경오염(6.22) 순임
-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문화·여가 프로그램(5.89), 평생교육(5.92), 문화·여가 시설(5.93), 보육·돌봄 서비스(5.97) 등임

〈표 3-2〉 삶의 질의 만족도와 중요도

구 분	만족도		중요도		구 분	만족도		중요도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평균	std.
1. 주택 상태	6.39	1.85	7.85	1.77	11. 쓰레기·폐수·악취 환경오염	6.22	1.92	7.96	1.81
2. 일자리·일거리	5.15	2.11	7.81	2.07	12. 환경과 경관	6.58	1.74	7.99	1.78
3. 의료시설	6.03	1.97	8.13	3.22	13. 사람들의 관계	6.53	1.81	7.79	1.70
4. 의료서비스	6.05	1.93	8.05	1.80	14. 사회조직·단체 활동	6.02	1.90	7.41	1.83
5. 복지시설	6.10	1.87	7.87	1.76	15. 문화·여가 시설	5.93	2.02	7.62	1.89
6. 양육·보육·돌봄서비스	5.97	1.77	7.81	1.80	16. 문화·여가 프로그램	5.89	1.99	7.62	1.83
7. 학교교육	6.25	1.85	7.93	1.79	17. 자연재해	6.68	1.77	8.16	1.71
8. 평생교육	5.92	1.87	7.68	1.78	18. 범죄	6.73	1.88	8.38	1.72
9. 상하수도·쓰레기처리·도로	6.47	1.82	7.91	1.71	평균(18개 항목)	6.20		7.88	
10. 생활 서비스	6.63	1.90	7.88	1.73	표준편차	1.93		1.92	

○ 삶의 질 만족도의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도시민과 농촌주민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도시민이 높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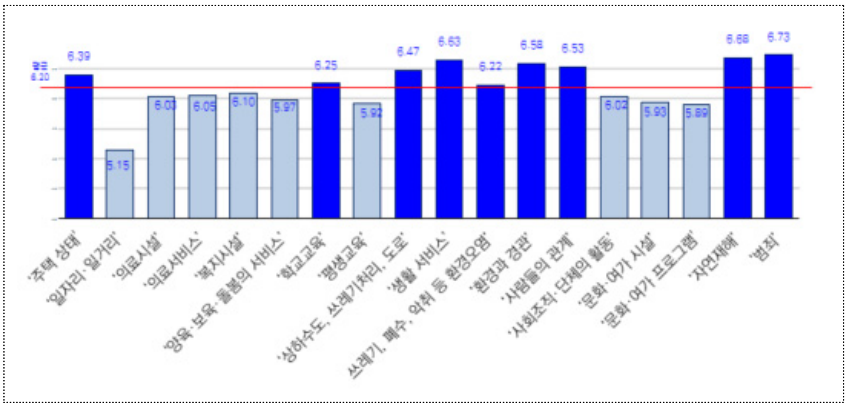
- 삶의 질 중요도는 각각의 항목별로 농촌주민이 체감하는 중요도가 도시민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삶의 질 수준에 있어서 도시-농촌 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살펴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IPA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항목별 중요도-만족도의 수준을 진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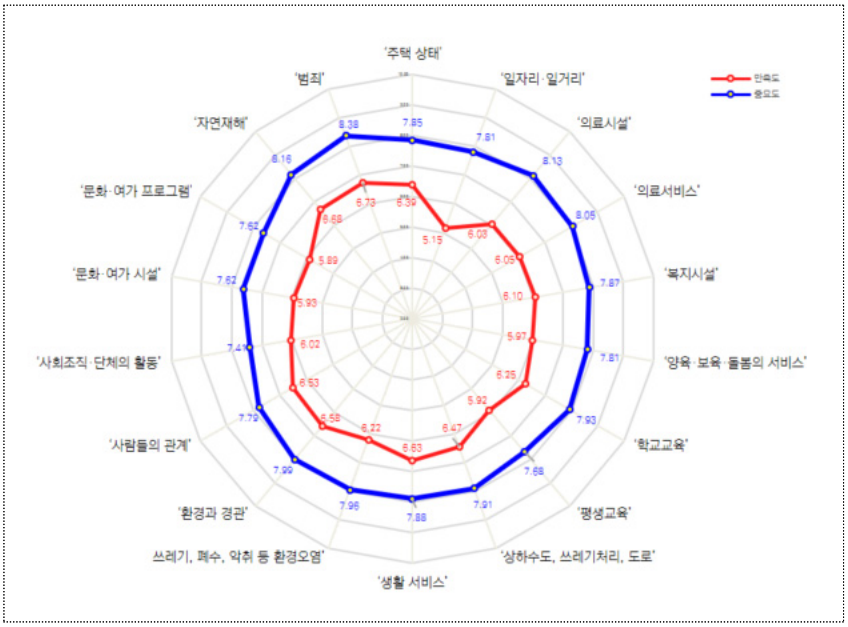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일자리·일거리, 복지시설, 양육·보육·돌봄 서비스'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우선 시정할 과제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삶의 질 만족도의 수정 IPA 분석을 농촌주민-도시민으로 구분해 분석하면, 과제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촌주민 입장에서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양육·보육·돌봄 서비스, 사회조직·단체 활동,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도시민 관점에서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평생교육'이 우선과제로 진단되었음

〈그림 3-2〉 삶의 질 항목별 만족도 비교



〈그림 3-3〉 삶의 질 항목별 도시민-농촌주민 만족도·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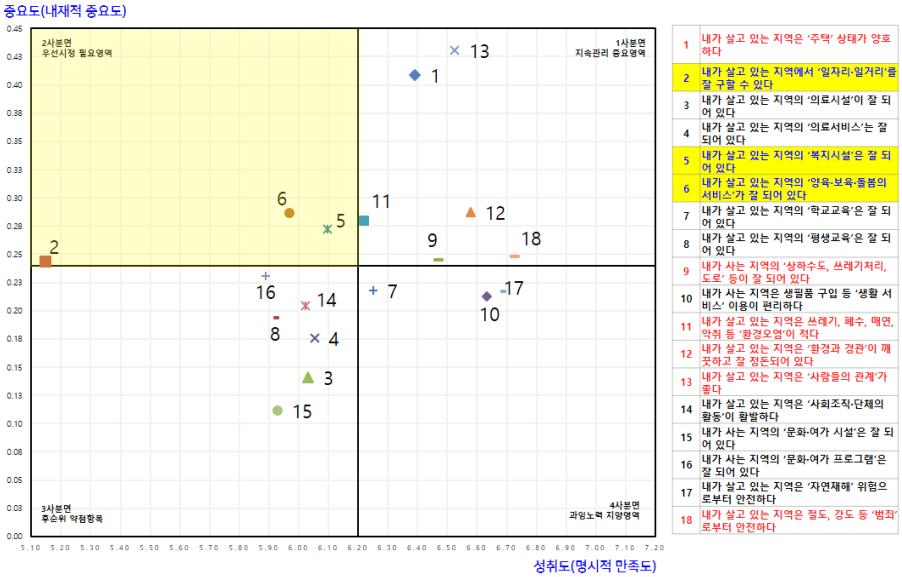


〈표 3-3〉 삶의 질 항목별 도시민-농촌주민 만족도·중요도 비교

구 분		만족도			중요도		
		평균	S.D.	T	평균	S.D.	T
1. 주택 상태	도 시 민	6.39	1.88	-0.03	7.70	1.78	-3.64***
	농촌주민	6.40	1.77		8.23	1.69	
2. 일자리·일거리	도 시 민	5.28	2.09	2.69***	7.73	2.07	-1.52*
	농촌주민	4.81	2.15		8.00	2.05	
3. 의료시설	도 시 민	6.20	1.98	3.65***	8.09	3.64	-0.49
	농촌주민	5.61	1.90		8.22	1.80	
4. 의료서비스	도 시 민	6.16	1.94	2.37***	7.98	1.84	-1.67**
	농촌주민	5.78	1.88		8.23	1.70	
5. 복지시설	도 시 민	6.16	1.84	1.48*	7.84	1.76	-0.79
	농촌주민	5.93	1.95		7.96	1.77	
6. 양육·보육·돌봄서비스	도 시 민	6.01	1.72	2.93***	7.77	1.85	-0.73
	농촌주민	5.66	1.86		7.89	1.69	
7. 학교교육	도 시 민	6.31	1.78	1.45*	7.87	1.84	-1.45*
	농촌주민	6.09	2.01		8.09	1.67	
8. 평생교육	도 시 민	6.12	1.78	4.50***	7.70	1.78	0.48
	농촌주민	5.42	2.00		7.63	1.79	
9. 상하수도·쓰레기처리·도로	도 시 민	6.59	1.75	2.77***	7.81	1.75	-2.39***
	농촌주민	6.17	1.97		8.15	1.59	
10. 생활 서비스	도 시 민	6.86	1.81	5.13***	7.79	1.78	-2.15**
	농촌주민	6.06	2.02		8.11	1.59	
11. 쓰레기·폐수·악취 환경오염	도 시 민	6.27	1.84	1.08	7.83	1.86	-2.96***
	농촌주민	6.10	2.10		8.28	1.65	
12. 환경과 경관	도 시 민	6.56	1.71	-0.49	7.86	1.85	-3.19***
	농촌주민	6.63	1.82		8.33	1.56	
13. 사람들의 관계	도 시 민	6.42	1.79	-2.50***	7.68	1.75	-2.75***
	농촌주민	6.80	1.84		8.07	1.53	
14. 사회조직·단체 활동	도 시 민	6.09	1.84	1.42*	7.40	1.88	-0.29
	농촌주민	5.86	2.03		7.44	1.72	
15. 문화·여가 시설	도 시 민	6.03	2.01	2.06**	7.56	1.96	-1.22
	농촌주민	5.68	2.04		7.76	1.71	
16. 문화·여가 프로그램	도 시 민	5.99	2.00	2.02**	7.61	1.90	-0.29
	농촌주민	5.65	1.97		7.65	1.68	
17. 자연재해	도 시 민	6.70	1.77	0.53	8.04	1.81	-2.93***
	농촌주민	6.63	1.80		8.46	1.39	
18. 범죄	도 시 민	6.72	1.81	-0.20	8.31	1.76	-1.57*
	농촌주민	6.75	2.06		8.54	1.63	

주 :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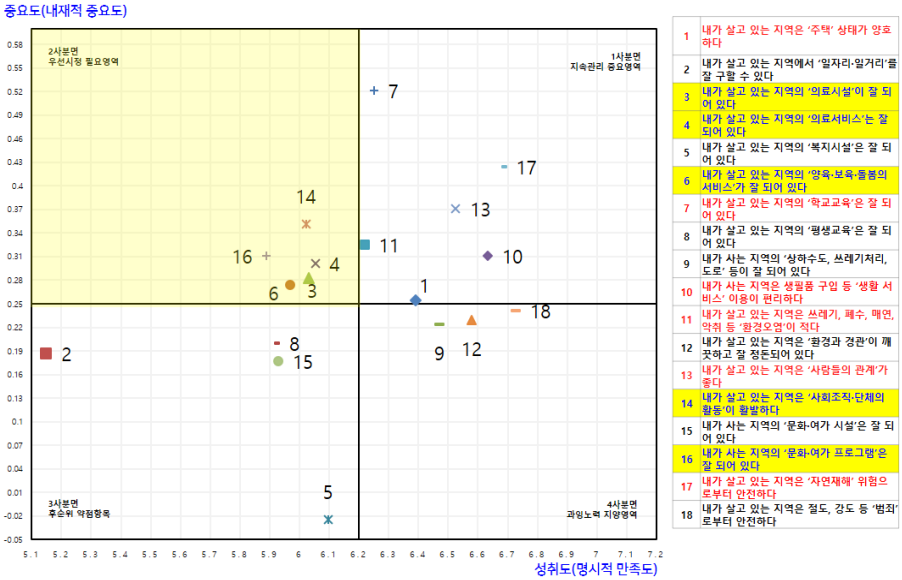
〈그림 3-4〉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전체)



〈표 3-4〉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전체)

지속관리 중요영역 (1사분면)	우선시정 필요영역 (2사분면)	후순위 약점항목 (3사분면)	지속관리 강점항목 (4사분면)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주택' 상태가 양호하다 9. 내가 사는 지역의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도로' 등이 잘 되어 있다 1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쓰레기,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다 1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 1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람들의 관계'가 좋다 1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일거리'를 잘 구할 수 있다 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은 잘 되어 있다 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양육·보육·돌봄의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 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잘 되어 있다 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생교육'은 잘 되어 있다 1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회조직·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15.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은 잘 되어 있다 16.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다	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교육'은 잘 되어 있다 10. 내가 사는 지역은 생필품 구입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1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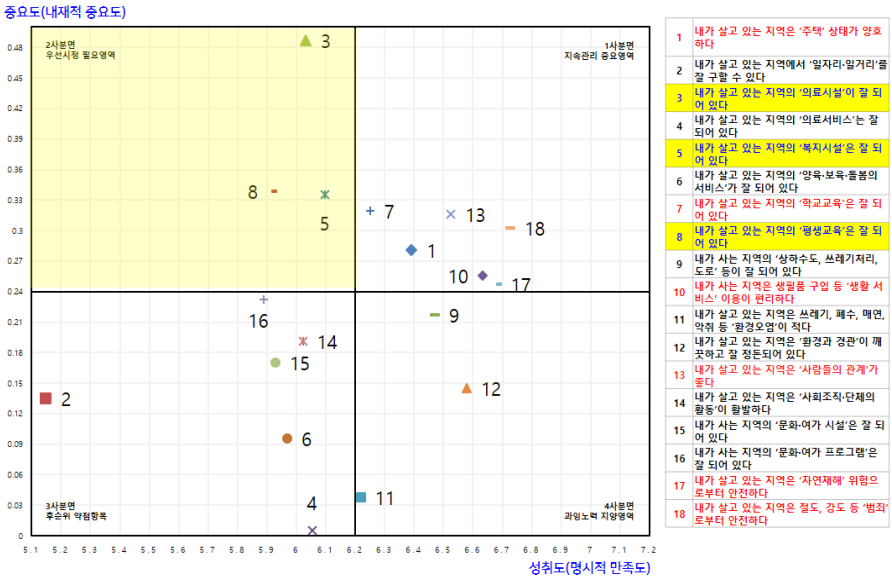
〈그림 3-5〉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농촌주민)



〈표 3-5〉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농촌주민)

지속관리 중요영역 (1사분면)	우선시정 필요영역 (2사분면)	후순위 약점항목 (3사분면)	지속관리 강점항목 (4사분면)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주택' 상태가 양호하다 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교육'은 잘 되어 있다 10. 내가 사는 지역은 생필품 구입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1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쓰레기,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다 1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람들의 관계'가 좋다 1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 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잘 되어 있다 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양육·보육·돌봄의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1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회조직·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16.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다	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일거리'를 잘 구할 수 있다 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은 잘 되어 있다 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생교육'은 잘 되어 있다 15.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은 잘 되어 있다	9. 내가 사는 지역의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도로' 등이 잘 되어 있다 1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 1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그림 3-6〉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도시민)



〈표 3-6〉 삶의 질 수준 수정 IPA 분석 (도시민)

지속관리 중요영역 (1사분면)	우선시정 필요영역 (2사분면)	후순위 약점항목 (3사분면)	지속관리 강점항목 (4사분면)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주택' 상태가 양호하다 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교육'은 잘 되어 있다 10. 내가 사는 지역은 생필품 구입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1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람들의 관계'가 좋다 1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1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 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은 잘 되어 있다 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생교육'은 잘 되어 있다	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일거리'를 잘 구할 수 있다 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잘 되어 있다 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양육·보육·돌봄의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1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회조직·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15.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은 잘 되어 있다 16.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다	9. 내가 사는 지역의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도로' 등이 잘 되어 있다 1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쓰레기,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다 1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

3. 농업·농촌 태도와 생활만족도

❍ 농업·농촌에 관한 태도와 생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보통 이상(6.06)으로 나타났음

- 농업·농촌과 정서적·심리적 가까움(6.51), 살고 있는 곳과 생활의 농업·농촌과 가까움(6.33), 농촌에서 체험·휴식·관광 수요(6.32), 농업·농촌의 관심과 애착심(6.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 만족도와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도는 평균 이상(6.38)으로 평가됨
- 농촌체험·관광 등 여가활동(5.35), 하는 일에서의 농업·농촌 관계(5.45), 농촌지역(마을)으로 이주 의향(5.72), 농업·농촌 분야의 사람관계(5.96) 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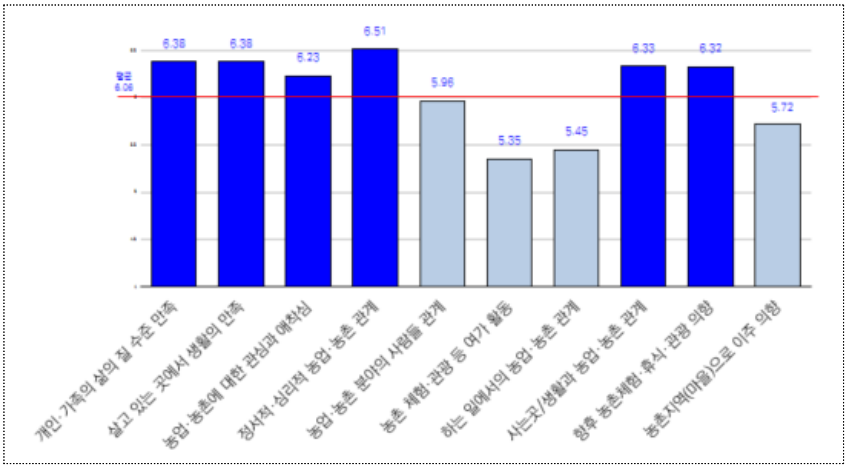
〈표 3-7〉 농업·농촌의 태도와 삶의 질 수준

구 분	전체평균	S.D.	도시-농촌	평균	S.D.	T
1. 개인·가족의 삶의 질 수준 만족	6.38	1.89	도 시 민	6.36	1.88	-0.44
			농촌주민	6.43	1.92	
2.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의 만족	6.38	1.85	도 시 민	6.31	1.80	-1.44
			농촌주민	6.54	1.95	
3.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	6.23	2.09	도 시 민	6.05	2.00	-3.69***
			농촌주민	6.69	2.23	
4. 정서적·심리적 농업·농촌 관계	6.51	2.11	도 시 민	6.26	2.04	-5.1***
			농촌주민	7.15	2.15	
5. 농업·농촌 분야의 사람들 관계	5.96	2.29	도 시 민	5.67	2.21	-5.53***
			농촌주민	6.71	2.32	
6. 농촌 체험·관광 등 여가 활동	5.35	2.35	도 시 민	5.34	2.28	-0.25
			농촌주민	5.39	2.63	
7. 하는 일에서의 농업·농촌 관계	5.45	2.59	도 시 민	5.17	2.53	-4.67***
			농촌주민	6.17	2.62	
8. 사는곳/생활과 농업·농촌 관계	6.33	2.32	도 시 민	6.02	2.23	-5.77***
			농촌주민	7.11	2.36	
9. 향후 농촌체험·휴식·관광 의향	6.32	2.28	도 시 민	6.37	2.17	0.89
			농촌주민	6.20	2.53	
10. 농촌지역(마을)으로 이주 의향	5.72	2.64	도 시 민	5.68	2.54	-0.57
			농촌주민	5.81	2.87	
전체 평균 (10개 항목)	6.06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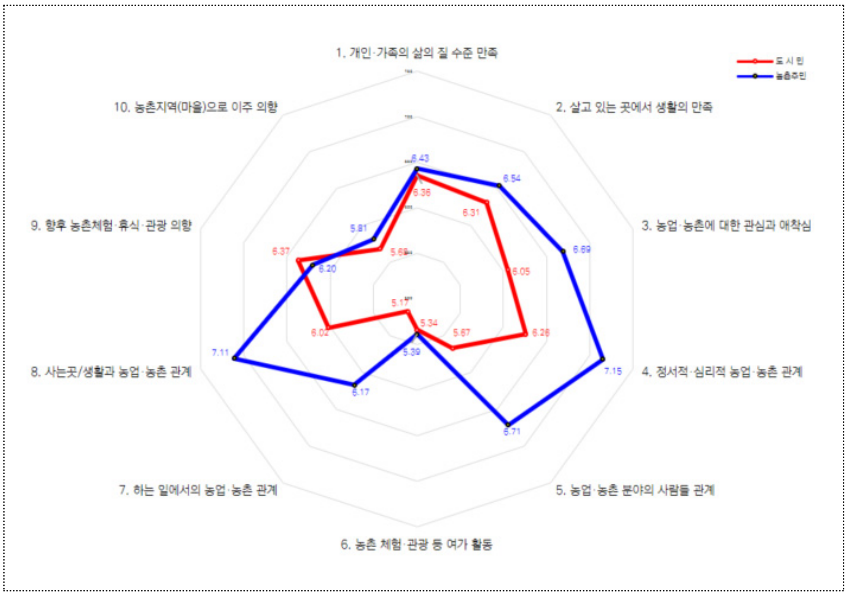
주 : p*〈0.1, p**〈0.05, p***〈0.01

○ 도시민과 농촌주민 집단을 비교하면, 농촌주민의 태도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 정서적·심리적 농업·농촌 관계, 농업·농촌 분야의 사람들 관계, 하는 일에서의 농업·농촌 관계, 사는 곳·생활과 농업·농촌 관계'에서 농촌주민의 태도가 도시민보다 높았음

〈그림 3-7〉 농업·농촌의 태도와 삶의 질 수준의 항목별 비교



〈그림 3-8〉 농업·농촌의 태도와 삶의 질 수준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4.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필요조건

○ 사람이 찾고 살고 싶은 농촌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보통 이상(7.81)으로 나타났음

- 의료·복지의 기반·서비스(8.19), 기초생활의 기반·사회서비스(8.08), 주택 등 주거환경(8.05), 일자리·경제활동 기회(8.03), 사고·재난 안전(7.99), 교통·도로의 편리성(7.98), 학교·평생교육(7.95), 농촌 환경·경관(7.91)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 반면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 프로그램(7.37), 협력 프로그램(7.43), 조직·단체 간 교류(7.45), 교류·협력 공간(7.52)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하였음
-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조건에 대한 현재 만족도(6.10)는 중요도(7.81)보다 낮았는데,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일자리·경제활동 기회(5.87), 교통·도로 접근성(5.99) 등의 항목이 더욱 낮았음

〈표 3-8〉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 필요조건의 만족도와 중요도

구 분	만족도		중요도	
	평균	std.	평균	std.
1.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 등의 주거 환경	6.49	1.72	8.05	1.75
2. 다양한 일자리 등 경제활동의 소득 기회	5.87	1.91	8.03	1.82
3. 의료와 복지 등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6.10	2.01	8.19	1.78
4.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6.14	1.88	7.95	1.77
5.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반과 사회 서비스	6.29	1.76	8.08	1.72
6. 이용에 편리한 대중 교통과 도로의 접근성	5.99	2.00	7.98	1.66
7.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산촌의 환경과 경관	6.49	1.68	7.91	1.67
8.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	6.25	1.65	7.73	1.77
9.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기반과 서비스(프로그램)	5.89	1.79	7.69	1.71
10.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여건	6.42	1.65	7.99	1.77
11. 농촌·산촌의 휴양과 관광 역할 강화	6.05	1.85	7.88	1.85
12. 도시민-농촌주민의 일회적 '교류' 프로그램 확대	5.84	1.76	7.37	1.87
13. 도시민-농촌주민의 상시적 '협력' 프로그램 확대	5.88	1.83	7.42	1.82
14.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공간' 확대	5.93	1.82	7.52	1.78
15. 도시-농촌의 '조직·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5.85	1.86	7.45	1.82
전체 평균 (15개 항목)	6.10		7.81	
전체 표준편차	1.83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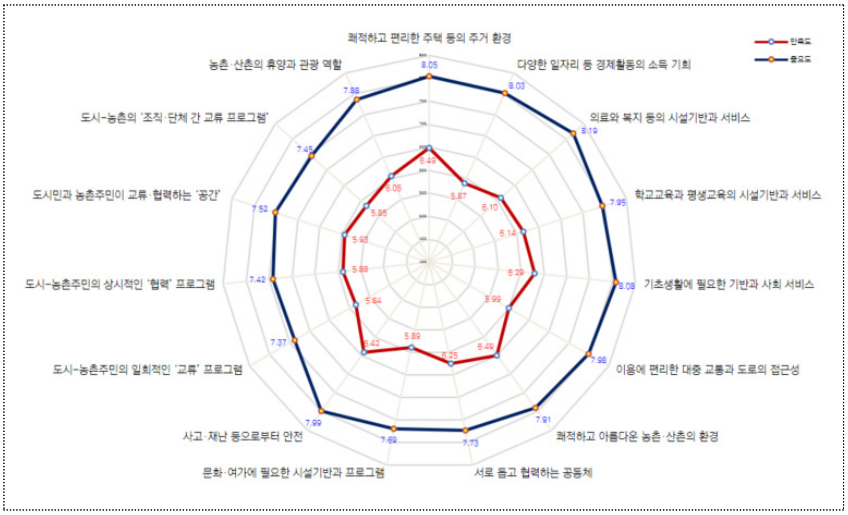
❍ 농촌에 필요한 조건의 중요도를 도시민과 농촌주민 집단으로 비교하면, 삶의 질과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도시민보다 농촌주민이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에 필요한 조건의 만족도를 도시민과 농촌주민 집단으로 비교하면, 도농 간 교류·협력과 교통·안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농촌주민보다 도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이러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의 필요조건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 IPA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항목별 중요도-만족도의 수준을 진단하였음

- 전체적으로 '의료·복지 시설·서비스, 대중교통·도로 접근성'이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우선 시정할 과제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수정 IPA 분석을 농촌주민-도시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과제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촌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활동, 교통·도로 접근성, 문화·여가 시설·서비스, 도시민 교류 프로그램, 농촌의 휴양·관광 역할'이, 도시민의 관점에서는 '의료·복지 시설·서비스, 교통·도로 접근성, 문화·여가 시설·서비스, 농촌의 휴양·관광 역할'이 우선과제로 진단되었음

〈그림 3-9〉 농촌 필요조건의 중요도·만족도의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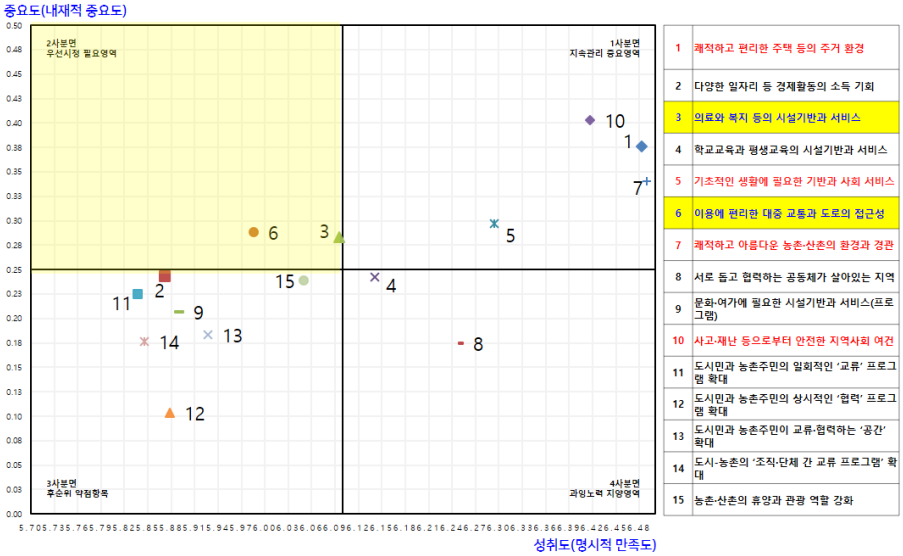


〈표 3-9〉 농촌 필요조건의 중요도·만족도의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구분	도-농	중요도			만족도		
		평균	S.D.	T	평균	S.D.	T
1.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 등의 주거 환경	도 시 민	7.88	1.81	-4.23***	6.42	1.70	-1.90*
	농촌주민	8.49	1.51		6.69	1.77	
2. 다양한 일자리 등 경제활동의 소득 기회	도 시 민	7.85	1.86	-4.05***	5.86	1.86	-0.21
	농촌주민	8.47	1.65		5.90	2.04	
3. 의료와 복지 등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도 시 민	7.99	1.86	-4.77***	6.08	2.00	-0.40
	농촌주민	8.70	1.45		6.15	2.04	
4. 학교교육·평생교육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도 시 민	7.80	1.83	-3.64***	6.15	1.86	0.28
	농촌주민	8.33	1.54		6.11	1.91	
5. 기초생활에 필요한 기반과 사회 서비스	도 시 민	7.95	1.78	-3.14***	6.34	1.73	0.96
	농촌주민	8.40	1.52		6.20	1.84	
6. 이용에 편리한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	도 시 민	7.91	1.71	-1.96**	6.14	1.98	3.03***
	농촌주민	8.18	1.51		5.63	2.04	
7. 쾌적·아름다운 농촌·산촌 환경과 경관	도 시 민	7.76	1.74	-3.57***	6.44	1.66	-1.26
	농촌주민	8.26	1.46		6.62	1.75	
8.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	도 시 민	7.65	1.87	-1.90**	6.21	1.66	-0.96
	농촌주민	7.93	1.48		6.35	1.64	
9. 문화·여가 필요 시설기반·서비스(프로그램)	도 시 민	7.61	1.80	-1.88**	5.98	1.82	2.24*
	농촌주민	7.88	1.46		5.65	1.68	
10. 사고·재난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여건	도 시 민	7.84	1.83	-3.45***	6.35	1.63	-1.75*
	농촌주민	8.35	1.53		6.59	1.69	
11. 농촌·산촌의 휴양과 관광 역할 강화	도 시 민	7.81	1.88	-1.54*	6.18	1.80	2.96***
	농촌주민	8.05	1.78		5.73	1.93	
12. 도시-농촌 일회적 '교류' 프로그램 확대	도 시 민	7.35	1.90	-0.42	5.97	1.75	3.21***
	농촌주민	7.42	1.79		5.50	1.78	
13. 도시-농촌 상시적 '협력' 프로그램 확대	도 시 민	7.38	1.87	-0.82	6.04	1.80	3.75***
	농촌주민	7.51	1.71		5.47	1.86	
14. 도시-농촌 교류·협력하는 '공간' 확대	도 시 민	7.47	1.81	-1.23	6.12	1.79	4.41***
	농촌주민	7.66	1.70		5.46	1.81	
15. 도시-농촌 '조직·단체 교류 프로그램' 확대	도 시 민	7.41	1.87	-0.95	6.05	1.84	4.62***
	농촌주민	7.56	1.68		5.34	1.81	
전체 평균 (15개 항목)		6.10			7.81		
전체 표준편차		1.83			1.79		

주 :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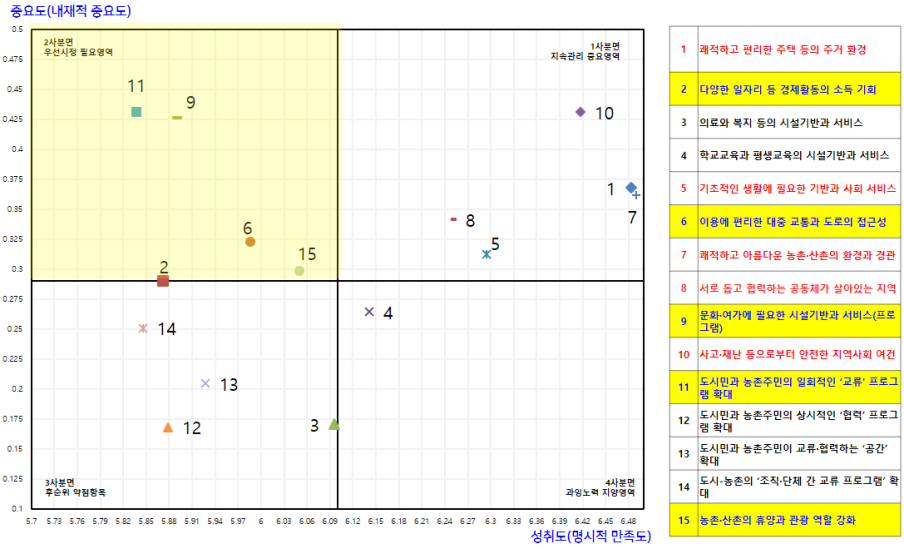
〈그림 3-10〉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전체)



〈표 3-10〉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전체)

지속관리 중요영역 (1사분면)	우선시정 필요영역 (2사분면)	후순위 약점항목 (3사분면)	지속관리 강점항목 (4사분면)
1.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 등의 주거 환경 5.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반과 사회 서비스 7.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산촌의 환경과 경관 10.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여건	3. 의료와 복지 등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6. 이용에 편리한 대중 교통과 도로의 접근성	2. 다양한 일자리 등 경제활동의 소득 기회 9.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기반과 서비스 (프로그램) 11.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일회적인 '교류' 프로그램 확대 12.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상시적인 '협력' 프로그램 확대 13.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공간' 확대 14. 도시-농촌의 '조직·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15. 농촌·산촌의 휴양과 관광 역할 강화	4.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8.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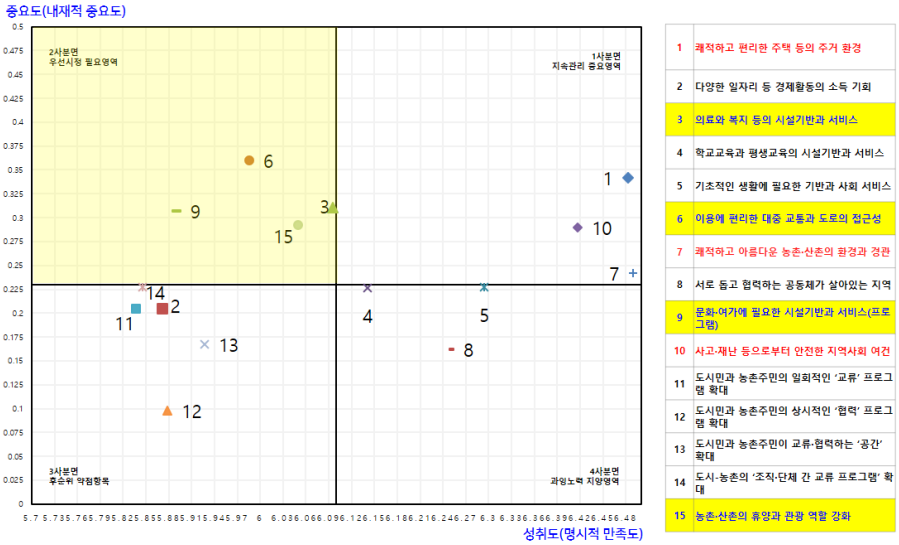
〈그림 3-11〉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농촌주민)



〈표 3-11〉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농촌주민)

지속관리 중요영역 (1사분면)	우선시정 필요영역 (2사분면)	후순위 약점항목 (3사분면)	지속관리 강점항목 (4사분면)
1.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 등의 주거 환경 5.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반과 사회 서비스 7.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산촌의 환경과 경관 8.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 10.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여건	2. 다양한 일자리 등 경제활동의 소득 기회 6. 이용에 편리한 대중교통과 도로의 접근성 9.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기반과 서비스(프로그램) 11.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일회적인 '교류' 프로그램 확대 15. 농촌·산촌의 휴양과 관광 역할 강화	3. 의료와 복지 등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12.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상시적인 '협력' 프로그램 확대 13.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공간' 확대 14. 도시-농촌의 '조직·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4.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그림 3-12〉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도시민)



〈표 3-12〉 농촌 필요조건 수정 IPA 분석 (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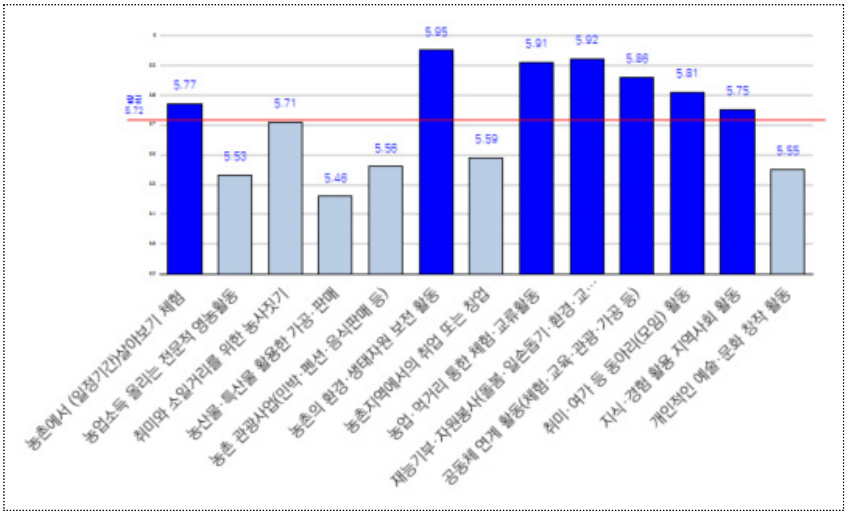
지속관리 중요영역 (1사분면)	우선시정 필요영역 (2사분면)	후순위 약점항목 (3사분면)	지속관리 강점항목 (4사분면)
1.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 등의 주거 환경 7.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산촌의 환경과 경관 10.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여건	3. 의료와 복지 등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6. 이용에 편리한 대중 교통과 도로의 접근성 9.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기반과 서비스(프로그램) 15. 농촌·산촌의 휴양과 관광 역할 강화	2. 다양한 일자리 등 경제활동의 소득 기회 11.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일회적인 '교류' 프로그램 확대 12.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상시적인 '협력' 프로그램 확대 13.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공간' 확대 14. 도시-농촌의 '조직·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4.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5.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반과 사회 서비스 8.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

5. 농촌지역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태도

❍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에서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통수준(5.72)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음

- 농촌의 환경·생태자원 보전활동(5.95), 재능기부·자원봉사(5.92), 농업·먹거리를 통한 체험·교류활동(5.91), 마을공동체 연계 참여활동(5.86), 취미·여가 등 동아리(모임) 활동(5.81), 농촌에서 (일정기간)살아보기(5.77), 지식·경험 활용 지역사회 활동(5.75)에 상대적으로 의향이 높았음
- 농촌지역에서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도시민-농촌주민의 의향은 영농활동과 예술·문화 활동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영농활동은 농촌주민이, 예술·문화 활동은 도시민의 의향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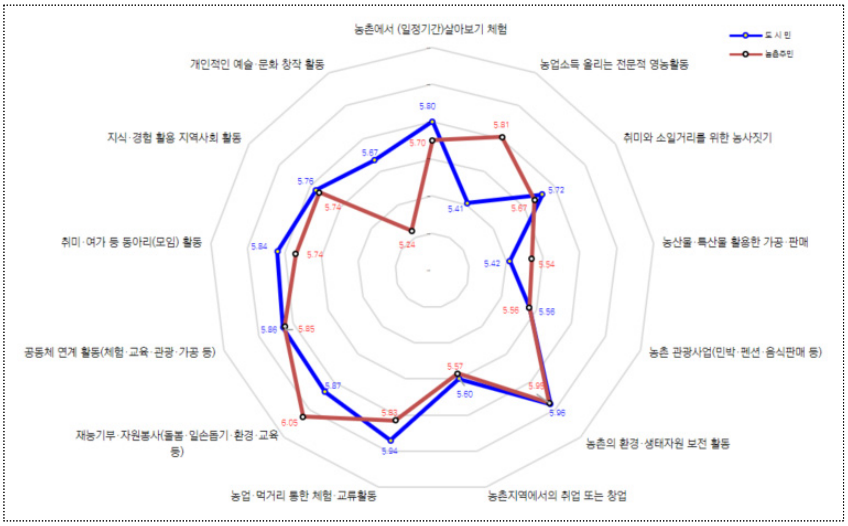
〈그림 3-13〉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



❍ 농촌지역에서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태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보통수준(5.91)으로 평가되었음

- 내가 원하는 일이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활동·일에 참여(6.13), 하고 싶은 활동·일에 적극적 참여(6.10)로 조직·집단과의 활동(5.63)보다 개인적으로 참여태도가 높았음
-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참여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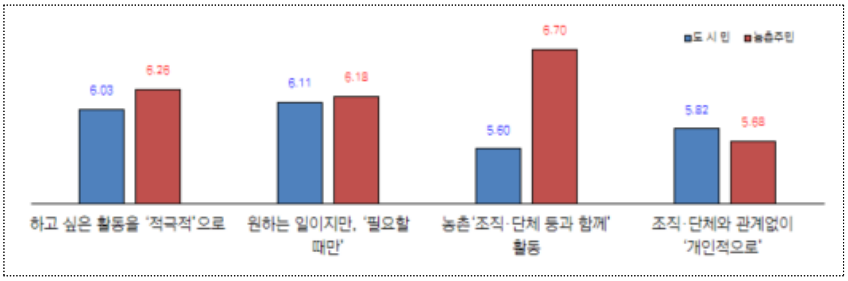


〈표 3-13〉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태도

구 분	전체평균	S.D.	도-농	평균	S.D.	T
1. 하고 싶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6.10	2.17	도 시 민	6.03	2.13	-1.25
			농촌주민	6.26	2.25	
2. 원하는 일이지만, '필요할 때만'	6.13	2.16	도 시 민	6.11	2.17	-0.4
			농촌주민	6.18	2.14	
3. 농촌'조직·단체 등과 함께' 활동	5.63	2.24	도 시 민	5.60	2.17	-0.49
			농촌주민	6.70	2.41	
4. 조직·단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5.78	2.35	도 시 민	5.82	2.31	0.69
			농촌주민	5.68	2.47	
전체 평균 (4개 항목)	5.91	2.24				

주 : p*〈0.1, p**〈0.05, p***〈0.01

〈그림 3-15〉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태도 도시민-농촌주민 비교



〈표 3-14〉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 분	전체평균	S.D.	도-농	평균	S.D.	T
1. 농촌에서 (일정기간)살아보기 체험	5.77	2.33	도 시 민	5.80	2.31	0.53
			농촌주민	5.70	2.39	
2. 농업소득 올리는 전문적 영농활동	5.53	2.36	도 시 민	5.41	2.33	-2.01**
			농촌주민	5.81	2.42	
3. 취미와 소일거리를 위한 농사짓기	5.71	2.30	도 시 민	5.72	2.23	0.27
			농촌주민	5.67	2.45	
4. 농산물·특산물 활용한 가공·판매	5.46	2.48	도 시 민	5.42	2.45	-0.57
			농촌주민	5.54	2.56	
5. 농촌 관광사업(민박·펜션·음식판매 등)	5.56	2.54	도 시 민	5.56	2.51	0.00
			농촌주민	5.56	2.61	
6. 농촌의 환경·생태자원 보전 활동	5.95	2.38	도 시 민	5.96	2.36	0.07
			농촌주민	5.95	2.41	
7. 농촌지역에서의 취업 또는 창업	5.59	2.69	도 시 민	5.60	2.67	0.16
			농촌주민	5.57	2.74	
8. 농업·먹거리 통한 체험·교류활동	5.91	2.21	도 시 민	5.94	2.18	0.61
			농촌주민	5.83	2.28	
9. 재능기부·자원봉사(돌봄·일손돕기·환경·교육 등)	5.92	2.13	도 시 민	5.87	2.13	-0.99
			농촌주민	6.05	2.14	
10. 공동체 연계 활동(체험·교육·관광·가공 등)	5.86	2.25	도 시 민	5.86	2.21	0.05
			농촌주민	5.85	2.33	
11. 취미·여가 등 동아리(모임) 활동	5.81	2.28	도 시 민	5.84	2.26	0.52
			농촌주민	5.74	2.32	
12. 지식·경험 활용 지역사회 활동	5.75	2.32	도 시 민	5.76	2.28	0.1
			농촌주민	5.74	2.42	
13. 개인적인 예술·문화 창작 활동	5.55	2.45	도 시 민	5.67	2.41	2.14**
			농촌주민	5.24	2.51	
전체 평균 (13개 항목)	5.72	2.37				

주 : p*〈0.1, p**〈0.05, p***〈0.01

6. 조사결과 종합논의

❍ 이상과 같이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와 농촌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협력을 융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도시민과 농촌주민으로 구분하여 농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의 분석을 종합하여 논의하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함

❍ 첫째, 전북도민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삶의 질 만족도 수준은 '치안, 안전, 생활서비스, 환경·경관, 사람관계, 사회기반시설, 도로, 주택' 등은 높은 반면, '문화·여가, 보육·돌봄, 평생교육'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임

- 삶의 질 만족도 수준은 인프라 등 사회서비스 기반에 결정되는 경향이 높은데, 만족도 차이는 도시민이 농촌주민보다 높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삶의 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사회서비스 확장하는 관리가 요구됨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시정할 과제로는 '일자리·일거리, 복지시설, 보육·돌봄'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농촌주민은 '사회조직, 문화·여가'를, 도시민은 '평생교육'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로 진단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일터, 삶터, 쉼터로서 농촌주민이 일정한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견지해 나가되, 돌봄,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는 도농융합의 활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데, '정서적 관계, 생활에서 관계, 관심·애착심, 체험·관광 의향' 등은 높은 반면, 현재 상태에서는 '체험·관광, 일속에서 관계, 농촌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농촌주민이 도시민에 비해 일과 사람 관계, 심리적 거리 등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거주와 생활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반영된 결과임
- 그러나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험·교류의 수요가 높은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실제 일상 생활에서의 물리적·사회적 관계가 가깝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낮은 것은 기존 방식의 활동 프로그램의 혁신과 전환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 농업·농촌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체험·관광 등의 활동을 통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실천적 결과를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셋째, 사람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의료·복지, 기초생활 기반, 주거환경, 경제활동 기회'를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도농의 '교류·협력 활동'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결과는 '건강복지, 생활여건, 경제활동' 등의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거주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음
-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의료·복지, 교통·도로'로 분석되었는데,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 '의료·복지, 문화·여가, 교통·도로, 휴양·관광'을 꼽았지만, 농촌주민은 '경제활동, 도농교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 특징임
- 이러한 결과는 도농융합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이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거부감 또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교류와 협력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임

❍ 넷째, 도농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보통 수준의 의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구분하여 개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가 요구됨

- 상대적으로 의향이 높은 활동·프로그램으로는 '환경보전, 재능기부, 체험·교류'로 나타난 반면, '가공·판매, 전문영농, 예술활동' 등은 의향이 낮았는데, 이는 농업을 매개로 하기 보다 사회적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태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를 꼽고 있어 조직적 활동보다 우선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영농 또는 체험·관광 등의 영역에서 도시민의 참여를 기대하는 농업계의 요청이 실제 도시민의 태도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시민이 가진 역량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정리할 수 있음

❍ 한편, 부록에서 다루고 있는 도농융합에 필요한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에 영향을 주는 특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도농융합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구체적인 실천주체를 대상화하거나 조직화하는데 일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태도는 경제적인 배경보다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의향과 태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우호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을 보여줌.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분석 내용은 부록을 참조

4 장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Jeonbuk Institute

1. 도농융합상생, 개념검토
2.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3. 도농융합상생, 대응방향

제4장.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 앞서 살펴본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한 주요논의와 전북도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전북도정으로 추진해 나갈 도농융합상생의 정책을 구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선하여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도농융합상생의 정의인데, 기존의 도시-농촌의 관계와 도농교류 등에서 다루어 온 개념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성격을 갖기 때문임

❍ 도농융합상생의 개념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구분되어 위치 지워져 왔는지, 이와 관련된 용어의 검토를 통해 도농융합상생의 통섭적 의미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함

❍ 이를 통해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개념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도농융합상생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통해 지향과 가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도농융합상생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책화를 전제로 전북도정에 적용할 때 마련되어야 할 기본방향, 작동방식, 실행전략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기본구상을 마련하고자 함

❍ 도농융합상생은 기존에 다루어온 유사 개념의 정책과 다른 혁신적 수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정책화하는데 있어 무엇을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할 것인가 등에 대한 사전적 답을 찾고자 함

❍ 여기서는 도농융합상생을 정책과 현장 활동으로 현실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정한 기준과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략체계를 구조화하여 정책화에 필요한 논리적 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 한편 도농융합상생은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므로 도농융합상생이 실제 이뤄지는 컨텐츠가 되는 실효적인 매개(영역)을 중심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한편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경로를 고려할 때, 농촌과 도시가 직면한 현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상수 또는 기본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1. 도농융합상생, 개념검토

❍ '도농융합상생'과 관련된 핵심어는 '①도농(都農), ②융합(融合), ③상생(相生)으로, 이 핵심어의 주요내용을 우선 검토하면서 도농융합상생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함

❍ 첫째, 농촌과 도시의 관계로서 '도농(都農)'에 대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서의 인구 유출과 (현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은 산업 노동자 계층 형성의 핵심 조건이었음
- 자본주의의 발전은 '경제적'으로 '농업'과 '공업'의 분업구조를 만들었으며, '지리적'으로는 '농촌'과 '도시'의 분화를 낳았음
- 이러한 농촌과 도시의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은 다음의 3가지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이분적인 접근'의 관점은 농촌과 도시는 확연히 이질적인 공간으로 보며, 그에 따라 독자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파악하는 입장임
- '연속적인 접근'의 관점은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맥락을 같이하여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이익사회(Gesellschaft)로의 변화에 주목하는 입장임
- '공생적인 접근'의 관점은 농촌과 도시를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파악하는 방식으로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임

❍ 둘째, '융합(融合)'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면, 융합은 수렴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융합'은 개체와 개체가 필요에 따라 다른 개체를 형성하고 그것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융합'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는데, 그 중 이 연구와 관련된 개념은 '통섭적 융합'과 '수렴적 융합'으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통섭적(統攝的) 융합'은 영어로는 'fusion'으로 표기하는데, 하나의 중심으로 다른 것을 환원하여 혼합되는 것을 이르며, 합침의 시도와 과정을 조명하며, 인과적 설명으로만 일관되게 파악하는 개념으로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함

- ‘수렴적(收斂的) 융합’은 영어로는 ‘convergence’로 표기하는데, 다른 분야와의 개념적 수렴 또는 혼성으로 결과에 주목하며, 결과에 대한 정성 평가가 내재하여 새로운 혼성적인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수렴적 영역을 창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융합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통해 ‘도시-농촌의 융합’을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특징할 수 있음
- ‘농촌-도시의 융합’은 도시의 가치(문제와 필요)와 농촌의 가치(문제와 필요)가 수렴되어 새로운 가치를 갖는 혼성적인 영역(공간과 활동)을 만들어 공생하는 것을 의미함

❍ 셋째, ‘상생(相生)’[44]은 공존(共存)과 공생(共生)을 넘어서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생태학에서 파생된 공존(co-existence)과 공생(symbiosis)보다는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개념임

- 상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내포하는데, 대등한 존재들 사이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함
- 상생의 관계는 상극의 성질과 갈등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성질과 협력의 기운이 대립과 갈등을 누르고 있는 균형 상태를 이름
- 현대화된 사회에서의 개체를 그대로 살리면서, 개체의 과도한 팽창을 생명 차원에서 수렴시켜 공동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방식이 상생임
-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선(共同善)과 공공성(公共性)은 특정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망 속에서 구현되는 것임

❍ 넷째, 이상의 ‘도농, 융합, 상생’이라는 핵심어 검토를 통해 ‘도농융합상생(都農融合相生)’의 기본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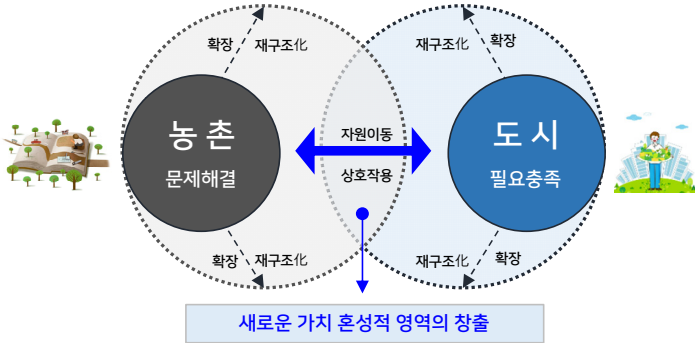
- ‘도농융합상생’은 농촌과 도시가 서로의 필요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관계(망)를 통해 공동의 선(善)(이익)을 구현해나가는 영역과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44) 상생(相生)은 음양오행 사상의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등의 조화로운 어우러짐으로 이해되거나, 생물의 공생 관계에서 관찰되는 4가지 유형(상생(相生)-편생(片生)-기생(寄生)-상극(相剋)관계)의 하나로 비유

- ‘도시와 농촌의 현실 문제’를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음[45)]
- (도시문제) 높은 집값과 생활비용,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부족, 빌딩과 건물위주의 경관, 범죄와 사고위험, 사회적 관계 약화와 공동체 부족 등
- (농촌문제)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 빈집과 시설의 유휴화, 공공·편의시설 부족, 농업 외 일자리 부족, 경관관리 악화, 사회안전 위기, 생활돌봄 부족, 원주민과 이주민간 갈등 등 등
- ‘상호 관계망’은 도시민 일방의 활동경로를 지양하면서 관계인구 방식의 다양한 혁신활동이 농촌주민의 주체역량에 근거하여 지속되는 연대와 네트워킹의 구조를 지칭함
- ‘공동의 선(共同善)’ 도시의 수요와 농촌의 필요가 관계를 통해 접점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도시-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상호간의 필요와 수요가 일정하게 결합되어 새로운 부가적인 가치영역으로 확장되는 미래 지향적 방향을 의미함
- ‘영역과 공간’은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주체 간 관계 활동이 일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를 가짐
- 이는 그동안의 단순하고 평면적이며 일회적인 ‘도농교류’를 넘어서 ‘도시와 농촌이 융합’하여 ‘상생’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치와 지향을 의미로 가짐

〈그림 4-1〉 도농융합상생, 기본개념 검토



자료 : 황영모(2019)에서 수정

45) 마상진 외(2020)를 참조하여 수정·보완

2.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 도농융합상생에 관한 개념적 검토와 기본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도농융합상생의 실천전략으로서 기본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기본구상에 관한 주요내용은 '①목적과 비전, ②기본방향, ③작동방식, ④매개와 수단' 등으로 구성하여 검토하고자 함

❍ 첫째, 도농융합상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전'[46]에 대한 검토임

- 도농융합상생은 도시와 농촌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기반하여 농촌지역의 필요와 도시지역의 수요를 혁신적인 관계와 결합방식을 통해 혼성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음
- 이렇게 본다면, 농촌이 직면한 과소화·고령화·저활력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필요를 도시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농촌지역 및 농촌주민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음
- 한편으로는 도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도시문제의 완화에 대한 도시민의 사회적 수요를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매개로 도시민의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을 추구하는데 다음의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도농융합상생의 목적과 비전을 "도농(都農)의 융합(融合)과 상생(相生)-농촌(주민)에게 활력을, 도시(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방식으로 제시함

❍ 둘째, 도농융합상생의 목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담아 제시하는 것이 '기본방향'[47]인데, 기본방향은 도농융합상생의 지향점[48]으로서 의미를 가짐

- 도농융합상생은 '농촌과 도시'라는 2차원의 방향을 '융합'이라는 방식(수단)을 '실행하는 주체'를 상정하는 3차원적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46) '비전'은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으로 '목적'은 도농융합상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방향을 의미함

47) '방향(方向)'은 방향 벡터에 의해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2차원, 3차원 방향 예가 있음

48) '지향(指向)'은 일정한 목표를 둔 방향으로 의지가 쏠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한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음

- 도농융합상생의 기본방향에는 '①도시-농촌간 필요-수요의 결합, ②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③개인·조직 등 주체역할'을 명시적으로 담는 것이 적절함
- '도시(민)의 장점(수요)과 농촌(주민)의 자원(필요)을 관계를 통해 결합'하는 것으로 '도시-농촌간 필요-수요의 결합'이 첫째 방향임
- '일터, 삶터, 쉼터로서 농촌지역의 사회기반 구축'은 농촌에 대한 선호(매력)를 높이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서비스 강화'가 둘째 방향임
- '관계를 통한 혁신활동을 담당할 주체의 다층화'로 혼성적 융합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인과 조직 등 주체역할'이 셋째 방향임

❍ 셋째, 도농융합상생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다루는 '작동방식'[49]에 대한 검토는 실행전략[50]을 마련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영역)이 될 것임
- 도농융합상생이 일어나는 작동방식은 구체적인 방법과 형식을 중심으로 실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를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관계인구를 통한 농촌사회 혁신활동 마련'을 통해 '도시민'의 체험-교류-살아보기-이주-정착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중요함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하여 '농촌주민'이 필요를 스스로 조직화는 주민주도의 지역순환경제의 '조직과 프로그램'이 중요함
- '혁신활동을 담당할 주체로서 창조계층 활동'을 통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의 다양한 실험과 활동이 일어나는 '프로그램과 거점'이 중요함
- '주체 간 관계의 융합·혁신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이 융합기술(O2O방식)[51]을 혁신적으로 적용·활용하는 추진체계로서 '행정과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 넷째, 도시-농촌(공간), 도시민-농촌주민(주체) 간 융합 활동이 실제 벌어지는

---

49) '방식(方式)'은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을 이르는 개념으로 도농융합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는 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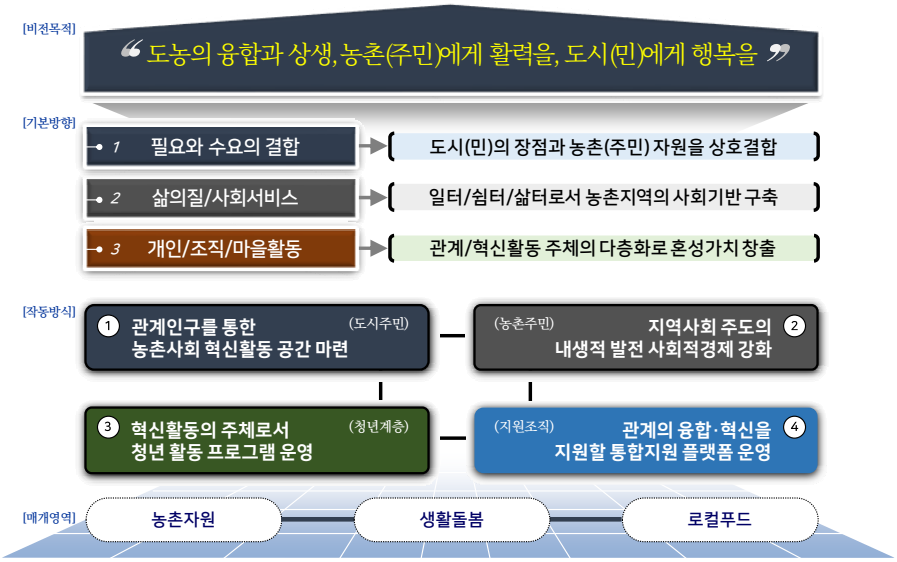
50) '실행전략'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농융합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취해야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의미함

51) O2O(Online to Offline, Offline to Online)는 연결성을 부여하여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붕괴를 다시 연결시키고 상호 장점을 살려 성장을 이끌어 시장의 트렌드와 사회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음

컨텐츠가 되는 '매개(대상)[52]와 공간'을 도농융합상생의 방향에 입각하여 설정해야 함

- '농촌다움으로 대표되는 농촌자원'을 매개로 도시민이 체험·휴양을 통해 힐링·치유하는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체험·관광 등의 일시적 형태로부터 치유·힐링 등 종합적 영역까지가 핵심 컨텐츠임
- '로컬푸드로 상징되는 지역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농업·농촌이 부응해 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푸드가 중요 컨텐츠임
- '생활돌봄으로 설명되는 생활수요'를 매개로 삶터로서 농촌생활의 필요를 다양한 인적자원이 활동으로 참여하여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컨텐츠임
- 이러한 '농촌다움, 먹거리, 생활돌봄'의 대표 컨텐츠를 매개로 도농융합의 활동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으로는 '농촌마을-읍면생활권(농촌)'과 '도심-마을(도시)'를 잇는 혁신활동 거점이 되어야 함

〈그림 4-2〉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의 전략체계



52) '매개(媒介)'는 중간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주는 것으로, 도시-농촌 간의 융합 활동이 전개되는 컨텐츠로서 의미를 가짐

○ 다섯째,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라는 '긍정적 요인'과 현재 농촌이 직면한 고령화·과소화의 '부정적 요인' 간의 간극은 앞으로도 당분간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임

-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인구이동이나 사회적 트렌드 변화 등의 추이분석을 적용하여 기회요인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긍정요인과 부정요인 간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 또한 도농융합상생을 추동해 나갈 주체로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의 필요와 절박함의 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지역과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고급기술(하이테크)가 적용된 행정 시스템의 개선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도농융합상생, 대응방향

○ 이상과 같이 검토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도농융합상생을 실행해 나갈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함

○ 도농융합상생은 농촌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①일터·삶터·쉼터인 농촌만들기'와 융합을 실행할 '주체'로서 '②혁신활동 주체의 비빌 언덕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도농융합상생의 기본배경은 농촌 여건의 악화에 있으므로 생활환경·교육·보건복지 등의 '삶터', 문화·여가·지역환경 등의 '쉼터', 지역경제·지역사회 등의 '일터'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른바 '삶의 질' 영역에서의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여건 개선, 환경·경관 개선,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둘째, 도농융합상생의 주요배경은 고령화·과소화로 농촌사회 유지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도시민이 농촌지역과 관계하는 주체(관계인구)를 형성해 혁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이 농촌지역과 여러 형태의 '관계를 맺을 접점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농촌사회 혁신활동을 담당할 핵심주체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 이러한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도농융합상생을 실현할 추진전략으로 '①농촌마을 혁신, ②생활돌봄 마련, ③로컬푸드 확장, ④청년활동 거점, ⑤일자리 지원체계, ⑥통합지원 플랫폼' 등으로 검토함

❍ (전략 1) 농촌마을 혁신 방안으로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마을만들기 혁신 프로그램을 제안함

- '생생마을 만들기'로 대표되는 그동안의 농촌마을 만들기 전략을 혁신하여 도시민이 농촌사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좋은 '농촌마을 두 번째 색깔 입히기' 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음
-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생생마을에 도시민의 '여행, 힐링, 예술' 등 수요를 결합시켜 '체험-교류-살아보기-이주-정착'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함

❍ (전략 2) 생활돌봄 체계 마련으로는 농촌생활에서 요청되는 '돌봄과 서비스'를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농촌사회에서 귀농·귀촌 등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 농촌사회는 고령화·과소화로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필수적인 돌봄 등의 사회적 수요가 매우 많은데, 이를 담당할 일자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필요충족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음
- 미충족 생활돌봄을 담당할 이른바 '홍반장[53]'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만들고, 농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키우는 '생활기술종합학교'와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 나가야 함

❍ (전략 3) 로컬푸드는 도농융합의 대표적 매개인데, 직매장 구매 중심의 방식을 넘어 도시지역에서 '먹거리를 통한 돌봄과 치유활동'을 전개하는 거점을 만들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먹거리는 농촌지역이 가진 대표적 어메니티 자원으로 누구도 먹지 않고 살아

53) 홍반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장 85쪽을 참조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도농융합의 사회적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음

- 도시지역에서 일반적인 도시민은 물론 먹거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먹거리 돌봄 공유부엌, 생활 속 도시농업,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장'을 개설·운영해 나갈 수 있음

❍ (전략 4) 혁신활동을 담당할 주체를 얼마나 확보·유지하느냐가 농촌활력과 도농융합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른바 지식·기술·전문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활동' 거점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 도농융합상생의 가장 높은 형태는 인적자원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유입·정착하여 농촌사회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의 한계로 이뤄지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는 것임
- 귀농·귀촌자가 농촌 정착에 겪는 큰 어려움은 지역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이른바 '비빌 언덕'이 부족하므로 '혁신허브, 협업농장, 리빙랩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해 나갈 수 있음

❍ (전략 5) 농촌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매개로 도시지역의 인력이 상시적으로 농촌사회와 결합하는 '농촌사회 일자리·일거리 지원체계' 운영·강화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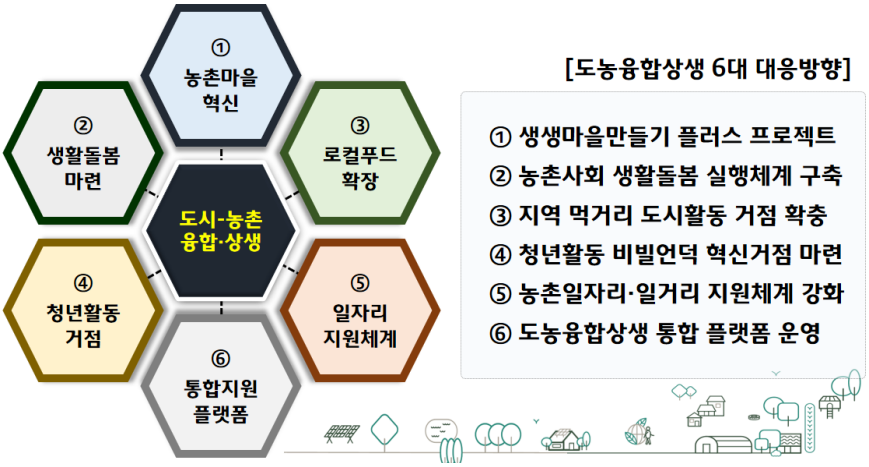
- 농촌경제의 열악함 때문에 농촌지역 일자리는 정규화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일자리·일거리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어 정보제공을 통한 도농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함
- '농촌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의 일거리 수요와 농촌의 일자리 필요를 연결(매칭)하는 '일자리·일거리 정보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전략 6) 도시-농촌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활동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수요와 농촌의 필요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O2O 방식의 지원 플랫폼'의 운영을 제안함

- 플랫폼은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 등 다양한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고, 가치있는 무언가를 교환·소비하며, 공동으로 새로운 혼성적 가치를 만드는 상호작용을 일으킴

- 도시-농촌을 연결하는 기존의 개별적인 정보지원 플랫폼과 지원조직의 특성을 살리면서, '따로 같이'의 장점을 살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 나가야 함

〈그림 4-3〉 도농융합상생의 대응방향



5 장

도농융합상생, 추진전략

Jeonbuk Institute

1.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인력 확보
2.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3. 농촌생활 돌봄과 생활기술종합학교
4. 지역 먹거리 공유부엌과 치유·돌봄농장
5.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과 협업농장
6.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 강화
7. 도농융합상생 O2O 통합 플랫폼 운영

제5장. 도농융합상생, 추진전략

❍ ‘도농융합상생’은 ‘도시 수요’와 ‘농촌 필요’를 연결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혼성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획적 활동 성격을 가지므로 대응전략을 검토해야 함

❍ 앞서 살펴본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한 ‘주요논의’, 전북도민 대상의 농촌지역에서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분석’을 종합하면,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주도할 ‘주체의 관계망과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혁신활동 주체의 관계망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온 불특정 도시민과의 교류와 협력 등의 관계방식을 넘어서, 개인의 수요를 중심으로 ‘조직과 마을에서의 고도화된 대응활동’이 핵심과제일 것임

❍ 이러한 대응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개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공통되게 관계할 수 있는 ‘공통자원’을 중심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매개 영역은 ‘농촌자원, 로컬푸드, 생활돌봄’으로 압축할 수 있음

❍ 농촌이라는 공간 내에서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혁신활동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매개·연결 고리 중 우선하는 영역이 바로 생활돌봄이라고 판단함

❍ 농촌지역에 물리적 삶의 질과 사회서비스 기반을 단기간에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농촌주민의 생활수요를 도시민이 갖고 있는 자원(인적·물적)과 적극 결합시켜 일정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유력한 방안일 것임

❍ 농촌 공간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도농융합 활동·프로그램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교두보)을 확보하면서, 분산된 정보 플랫폼을 고급기술 방식이 적용한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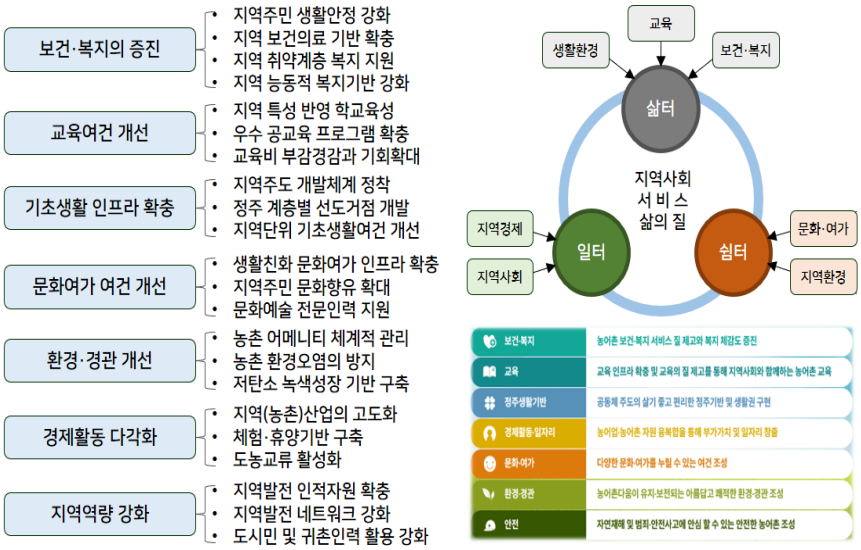
❍ 여기서는 도농융합상생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⓪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인력 확보, ①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②농촌생활 돌봄과 생활기술종합학교, ③지역 먹거리 공유부엌과 치유·돌봄농장, ④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과 협업농장, ⑤농촌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 강화, ⑥도농융합상생 O2O 통합 플랫폼 운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안하고자 함

1. 기본전제.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인력 확보'

○ 첫째, 도농융합상생의 구체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농촌'을 중심으로 하므로, 농촌을 이른바 '행복 삶터, 일터,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기준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54]

-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저한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살고 싶은 농촌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함
- '일의 공간'으로서 농촌은 농업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뤄져 왔는데, 먹거리 생산을 바탕으로 체험·관광·교류·가공 등으로 경제활동이 다각화되고 있어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함
- '쉼의 공간'으로서 농촌은 자연경관 및 농업유산 등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 주목되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강조되고 있어 농촌을 매개로 지속적 관계 맺기가 시대과제로 부각됨

〈그림 5-1〉 행복 삶터 농촌,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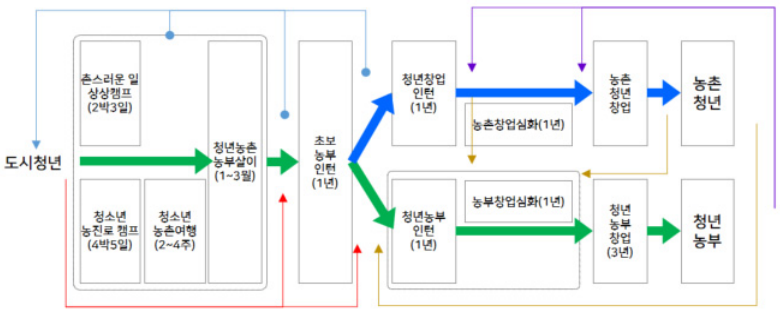
자료 : 송미령 외(2019)

54) 이 내용은 송미령 외(2019)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이러한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 삶터로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는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기준을 지역 단위에서 한층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하겠음

❍ 둘째, 고령화·과소화 된 농촌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도농융합상생의 실체적 활동은 도시민이 농촌지역과 교류·협력 또는 이주·정착하는 주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귀결되므로 그 주체를 육성해 나가야 함
-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서 이주하여 거주하는 '정주인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인 '교류인구'를 뛰어넘어 상시적으로 관계하는 주체(관계인구)를 확보해 혁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의 인구 유입·확보가 아니라, 도농융합상생의 기본배경이 되는 도시와 농촌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해나가는 활동 주체로 주목해야 한다는 점임
- 일반적 귀농·귀촌인과 달리 지식·기술·전문역량 등을 갖춘 주체(창조계층)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 활동 의지가 높으므로 이들을 겨냥한 현실적인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이 매우 중요함
- 특정한 농촌 지역(사회)에 관계를 갖춘 사람, 관계가 없지만 특정한 사안을 매개로 농촌지역에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보다 다양한 인재가 지역 만들기의 프

〈그림 5-2〉 농촌사회에서 청년인력의 유입·확보 흐름



자료 : 정민철(2019)

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간을 열어나가야 함

-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거 지원, 정보 제공, 일자리·창업 지원' 등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되, 청년인력 유입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다양한 형태로 갖춰나가야 할 것임

2. 전략 1.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 도농융합상생의 대표 프로젝트는 이른바 '마을만들기'를 통해 농촌(주체)이 대응능력을 높이고, 도시(민)의 사람과 자원의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일 수 있음

❍ 그동안 전라북도가 성과적으로 추진해온 전북형 마을만들기인 '생생마을 만들기'[55]에 도농융합상생 가치를 추가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 연구에서는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라는 전략명으로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갖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우선 검토하고자 함[56]

❍ 첫째,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의 기본개념을 우선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그동안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삼락농정(三樂農政)'은 사람중심 농정으로 성격을 갖는데, '행복 삶터 만들기'를 선도하며 '전북형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가짐
-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는 생생마을 만들기에 도농융합상생의 관점에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사회적 수요와 필요를 결합한 '두 번째 삶터로서 색깔 입히기'로 요약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장점인 생생마을을 강화하여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실현하고 싶은 사회적 수요(버킷리스트)에 대응하는 '플러스(plus, +) 프로젝트' 추진이 실효적일 것임
-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는 농촌주민 관점에서 도시민 수요에 주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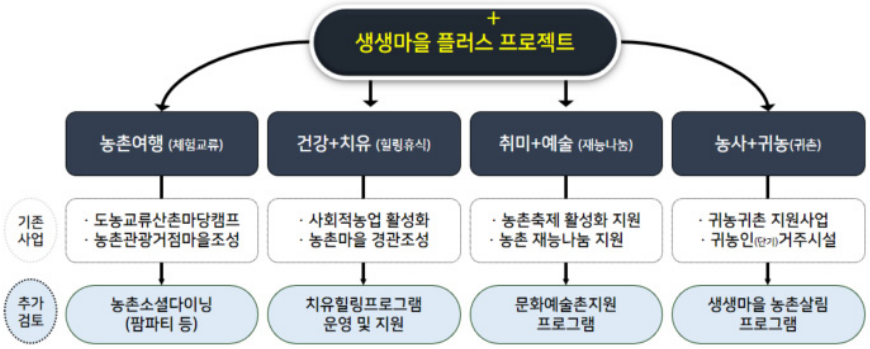
55) '생생마을 만들기'는 전북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천개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 단계, 활성화 단계, 사후 관리단계 등 단계별 전략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56) 이 내용은 전라북도(2019)의 '도농융합상생 TF' 회의자료에서 정리하였음

대응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강화하는 것으로 건축물 등의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방식은 지양해 나감

○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농촌여행 플러스, ②건강+치유 플러스, ③문화·예술촌 플러스, ④귀농(농사) 플러스' 등 4대 프로그램을 제안함

〈그림 5-3〉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의 기본구상



자료 : 전라북도(2019); 황영모(2019)에서 재인용

① 생생마을 '농촌여행 플러스' 프로그램

- 전라북도가 기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 산촌 마당캠프,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등과 연계를 하여 사업을 추가·확장해 나감
- 기존 사업에 추가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농촌 소셜다이닝(팜파티)' 등이며, 여기에 생생마을 농촌여행을 결합하여 확산함
- '농촌 소셜다이닝'은 도시민이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자연경관과 정취를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식사 등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임

② 생생마을 '건강·치유 플러스' 프로그램

- 기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치유농장, 농촌마을 경관조성, 체험휴양마을 사업' 등과 연계를 하여 사업을 확장함
- 추가할 프로그램으로는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 등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건강·치유 수요에 적극 부응해 나감
- '치유·힐링 프로그램'은 농촌공간에서 치유·힐링을 원하는 개인·단체·동호회

등에게 1박2일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57]

③ 생생마을 '문화·예술 플러스' 프로그램

- 기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축제 지원사업,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마을의 문화·예술 색깔을 한층 강화해 나감
- 추가할 프로그램으로는 '농촌거점마을 등 농촌관광마을' 지원사업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인이 농촌마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간에는 마을에서 활동하며 마을을 문화·예술적 감각으로 가꾸어가는 공간으로 유도하는 장점이 있음

④ 생생마을 '귀농·농사 플러스' 프로그램

- 기존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 거주시설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을 추가해 나감
-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인 농촌살림 지원 상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수 있는데, 농촌사회 정착 지원의 성격을 가짐
- '농촌살림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융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살림에서의 상생과 지혜를 찾아가는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임

〈그림 5-4〉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의 예시

(농촌 공감여행)

(도농상생 힐링 프로그램)

(생생마을 살아보기)

(산촌 마당캠프)

57) 농촌진흥청이 시행하고 있는 '치유형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대표 사례임

3. 전략 2. '농촌생활 돌봄과 생활기술종합학교'

❍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된 농촌사회는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돌봄 등의 사회적 수요가 많은데, 생활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담당 주체를 결합한 도농융합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생활SOC 기반이 취약하고 대다수 주민이 고령화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생생활에서의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대응한 이른바 '생활돌봄'[58]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요청되고 있음

❍ 과소화되어 고령화된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생활돌봄 서비스는 공동체 조직이 담당하면서 귀농·귀촌자 등과 같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

- 미충족 생활돌봄을 담당할 이른바 '홍반장'[59]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만들고, 농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키우는 '생활기술종합학교'와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육성해 나가야 함

❍ 첫째, 농촌지역의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① 농촌 생활돌봄 프로그램 기본구상

- 생활돌봄이 필요한 주민 대상으로 미충족 생활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 조직'이 프로그램을 맡도록 담당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 대응인력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임

- 지원내용은 '미충족 생활돌봄'으로 사업메뉴 방식의 (공적부조)수급자 돌봄 서비스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신체적 한계로 충족되지 못하는 해결 가능한 크고 작은 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

- 활동주체는 '공동체 활동조직'으로 지역의 사회적 문제해결 관점에서 공동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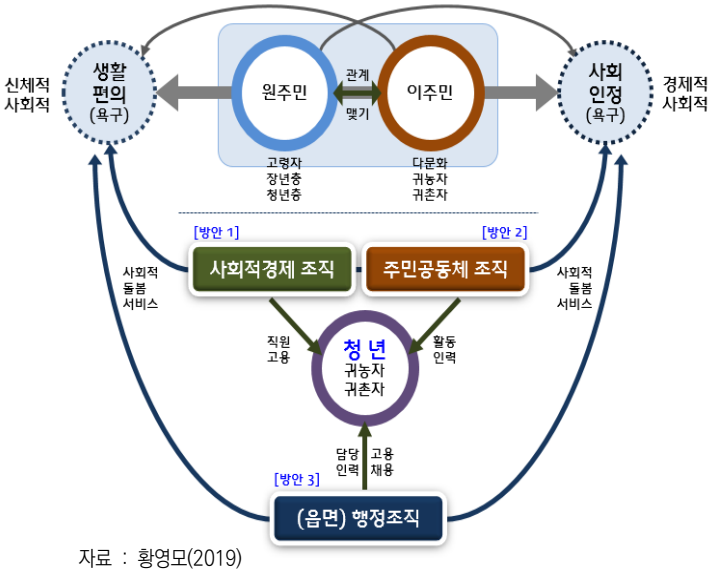
58) '생활돌봄'이란 농촌주민이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하는 생활서비스로 장보기, 말벗,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함. 생활돌봄 서비스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달리 지역사회(community)의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회자본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황영모(2019)를 참조.

59) '홍반장'은 2004년에 개봉한 영화로 시골 마을에서 서른 살의 반장이 동네의 허접한(?) 일을 도맡아서 해결하는 일을 그린 코미디 로맨스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황영모(2021)을 참조.

조직(사회적경제+주민공동체)을 활동주체로 하고 행정은 생활돌봄의 수요에 대응하는 태세(전담인력)을 갖춤

- 지원방식은 '활동인력의 고용'으로 미충족 생활돌봄을 담당할 활동주체(조직)가 실효인 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동인력을 (귀농·귀촌)청년의 사회적 활동과 연계하여 직접 고용을 지원함

〈그림 5-5〉 농촌 생활돌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개념



자료 : 황영모(2019)

② '사회적경제 조직' 방식의 생활돌봄 프로그램

- 생활상 필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60]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청년의 직원 고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생활돌봄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활동을 담당할 청년(전담직원)의 고용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음

60)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람-노동을 중시하는 경제활동 조직, 대표 사례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업법인 등(황영모 외, 2017)

-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존에 수행하던 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사업과 활동으로 생활돌봄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직원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임[61]
- 생활돌봄 서비스로는 '장보기 대행, 말벗, 이동세탁, 농번기 공동급식, 물품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픽업, 병원동행, 가전제품 이용, 이불빨래, 기차표 예매, 휴대전화 이용, 우편·택배대행' 등이 있음

③ '주민 공동체 조직' 방식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공동체 조직[62]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한 활동을 담당할 (귀농·귀촌)청년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공동체 조직이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청년(전담)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 청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
- 공동체 조직이 생활돌봄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사업·활동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활동인력 인건비와 직접 사업비를 지원함[63]
- 생활돌봄 직접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체활성화(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 순환경제(전통장터·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문화(지역 문화·전통행사, 주민참여 프로그램), 생활서비스(이동점포, 읍면복지 서비스전달), 도농교류(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함

❍ 둘째, 귀농·귀촌인 등 외부인이 농촌사회에서 활동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농촌지역 생활기술학교' 운영방안을 제안함[64]

- 귀농·귀촌인 등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역량이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농업 중심 교육의 틀에 갇혀 정착·생활 역량을 증진할 기회가 적음

---

61) 유사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음

62) '주민 공동체 조직'은 주민자치회, 마을회(영농회), 농업인단체, 농업인학습조직, 시민사회단체 등을 꼽을 수 있음

63) 유사사례로는 전라북도의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이 있음

64) 이 내용은 조원지(2021)에서 수정·보완하였음

- 귀농·귀촌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도시민이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제2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생활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은 농촌사회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과 도전에 필요한 기술인 '생활기술'을 수행하는 것임

① 농촌 생활기술학교,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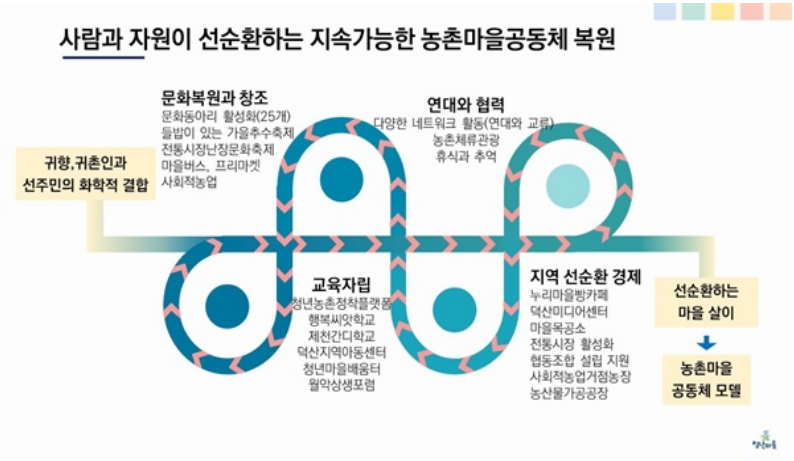
- 농촌은 농산물 생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른 개인들 간 상호 작용하며 일상생활을 만들어 가는 곳임
- 농촌사회 구성원으로서 농촌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 생활기술(life skills)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태도·능력으로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향상 가능한 삶의 기술임(WHO, 1996; 정용철·류민정, 2019에서 재인용)
- 농촌사회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등에게 농업활동, 농외 경제활동, 가정관리, 교류·참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는 농촌사회의 적응과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

② 농촌지역 생활기술학교, 운영방안

- 농업에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조직이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함
- '생활기술학교'는 공유 농지를 활용해 농사를 지으며, 도시청년이 희망하는 것을 실행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기능도 담당하는데, 3년간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함[65]
- 청년 귀촌 희망자 특성을 고려해 '힐링'을 테마로 공동체 활동, 요리, 요가 등과 연계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운영함
- 농촌지역 초등학교 등의 돌봄강사, 혁신학교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제빵,

65) 유사 사례는 충북 제천시의 '청년농촌정착 플랫폼'과 충남 서천군의 '삶기술 학교' 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김기흥(2020)을 참조

〈그림 5-6〉 청년농촌정착 플랫폼의 기본구조



자료 : 박진도(2021)

목공기술, 음악 등 강사로 활동하도록 유도·지원함

- 교육생 맞춤형 청년 작업장을 마련하여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 전문가를 만나 학습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창직(創職)을 통해 독립할 수 있도록 운영함
- 교육 프로그램은 1년에 4학기 24강좌로 개설하여, 수강 희망생이 2명 이상이면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생 청년의 숙소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함
- 주요한 교육분야는 '생활기술'(친환경농부, 생태건축목수, 봉제사, 로컬푸드 요리사 등)과 '사업기술'(마을계획가, 마을관리자, 공정여행가, 사회적기업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렇게 육성된 생활기술학교 수료자는 '농촌마을 기술사업단'을 후속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기술·재능·경험 등을 활용한 농촌마을 생활돌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4. 전략 3. '지역 먹거리 공유부엌과 치유·돌봄농장'

❍ 농촌은 농업생산 활동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며, 도시는 먹거리를 소비하는 소비지로 양분되어져 왔지만, 최근 이른바 식(食)과 농(農)의 물리적·사회

〈그림 5-7〉 부천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사례

- 마을주민이 구성한 협동조합이 지역 내 취약계층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생활 교육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대표사업) 가정이탈 청소년 조리교육, 장애인·노인계층 반찬나눔, 청년식사모임, 임산부/지역아동센터, 지역 어르신 식생활교육 등
- (식재료) 경기 G마크 농산물, 관내 농장(버섯,친환경인증농가 등)을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1)

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상생 먹거리 연대'가 강조되고 있음[66]

- 농업적인 생산 기반이 없는 도시지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촌지역과의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하며, 이것이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융합상생의 기본배경이 되는 것임
- 한편에서는 도시민의 개인화가 심화되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일상화되면서 신체적·심리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를 해결할 물리적·사회적 공간으로 농업을 매개로 한 치유활동에 주목하고 있음
- 농업은 먹거리 생산 이외의 환경·자원·문화·경관·건강·복지 등 다기능성을 가지므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음(이명헌, 2021)

❍ 이렇게 본다면, 농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원인 농업생산과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수요와 결합하는 활동방식이야 말로 도농융합상생의 전형적 활동모델이라 할 수 있음

66) 이러한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시와 농촌 상생방안으로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를 꼽을 수 있음. 서울시 강동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은 도농상생협약을 맺고 강동구 관내 공공급식소에 완주군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기업도 먹거리 도농상생에 참여하고 있는데, SK그룹과 충북 오창농협은 친환경 먹거리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SK그룹 임직원이 오창농협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황영모 외(2020)을 참조

❍ 첫째, 지역 먹거리 체계[67]의 관점에서 도시지역에서 먹거리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공유부엌(커뮤니티키친)'을 통해 먹거리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는 실천공간을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함

① 도시지역 '공유부엌' 프로그램 기본구상

- 공유부엌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68]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지역거점 공동조리장에서 도시락이나 반찬 등 식품을 조리해 식생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방식임
- 센트럴키친은 완전 조리음식이나 반조리 음식을 시설에 제공하는 조리시설로 보육시설·복지시설의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먹거리 돌봄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보호시설 등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식재료 또는 식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먹거리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음

② 도시지역 '공유부엌' 프로그램 운영방안

- 도시지역에 공유부엌(거점공동조리장)을 설치하거나 로컬푸드 매장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을 조성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형 SOC 정책을 활용하여 거점형 공유부엌(센트럴키친) 공간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추진함
- 공유부엌(센트럴키친)은 완전 조리음식이나 반조리 음식을 시설에 제공하는 조리시설로 구축하며, 기존 복지시설의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먹거리 케어가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함
- 시민사회단체·사회적경제 조직이 공유부엌의 운영주체가 되거나 식사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활동 모델의 연계가 가능함

---

67) '지역 먹거리 체계'는 특정한 지역에서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순환'되는 커뮤니티 푸드시스템을 이르며, 산업적 방식의 먹거리 체계가 강제한 먹거리 문제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관계의 재구축으로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임. 자세한 내용은 황영모 외(2020)을 참조

68) 지금까지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급식카드(바우처)를 통한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고, 노인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역시 통조림이나 즉석식품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많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경향신문, 2021)

- 영유아, 청년(대학생),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69]에게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할 수 있음
- 이를 단계별로 검토하는 '1단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한 공유부엌(센트럴키친)을 개설·운영, '2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담당하는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 확대로 제안함
- 먹거리 돌봄을 담당하는 마을부엌 거점조성과 운영에 사회적경제 조직(청년)이 참여하면서 먹거리와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는 융합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공유부엌은 비단 도시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농촌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거나, 농번기 공동급식 등의 기능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음

❍ 둘째,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농업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현대사회 도시민이 안고 있는 의학적·사회적 치료를 담당할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치유·돌봄농장'을 제안함

① '치유·돌봄농장' 프로그램 기본구상

- 치유농업은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이름(김경미 외, 2013)[70]
- 농업의 다기능성과 지역사회 내 농장주·사회보호기관·건강복지기관·참여자 등의 연대로 지역사회에 기반하는 건강치유의 개념은 치유농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함
-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의 기능은 원예·농작업·산림·축산 등 세분화하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간자격증에 관한 이슈[71]도 생겨나고 있음
- 우리나라 치유농업 교육은 대학·협회·농업기술센터·지자체 등이 관련 교육을

69)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노년층 도시락 배달, 청년 1인가구 위한 공유부엌 지원 사업 등

70) 치유농업(care farming)은 사회적농업(social farming)과 혼용해 사용되고 있으나, 지향점은 상이함. 치유농업의 대상은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인 반면, 사회적농업은 '돌봄, 교육,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임. 자세한 내용은 조원지 외(2021)을 참조.

71)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를 꼽을 수 있음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자격 치유농업사 양성과 표준화된 서비스 개발·제공·품질관리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② ‘치유·돌봄농장’ 프로그램 운영방안

-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농촌에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교육·재활·고용이 가능한 다기능 농업에 중점을 둔 치유·돌봄농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농업의 다기능성은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즐길거리·볼거리·먹거리 등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가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재충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농촌을 혁신해 나갈 수 있음
- 마을형 치유·돌봄농장은 마을의 기존 자원과 ‘치유농업’을 결합하는 것으로 체험농장·관광자원·편의시설(숙소·레스토랑·휴게시설), 인적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 치유농업과 체험·관광이 개인화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은 개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치유·돌봄농장과 농촌관광의 핵심자원(요소)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존 농촌 마을만들기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도농융합의 새로운 확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음

〈그림 5-8〉 치유농업의 개념과 작동체계

자료 : 농사로 농사백과

5. 전략 4.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과 협업농장'

❍ 지금까지 농촌 과소화·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평면적 인구 유입 촉진에 초점을 두어 실제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의 역할과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방안 등은 주요하게 다뤄오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도농융합상생의 활동은 단순한 인구유입을 넘어 혁신활동을 담당할 주체의 관계망을 농촌에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주목하여 지식·기술·전문역량을 가진 '청년활동' 거점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 농촌으로 인구이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추구하는 비경제적 요인이 늘고 있는데, 특히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경로를 고려하면 일정 활동공간을 거쳐 활동 인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그런 측면에서 귀농·귀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역의 사회자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이른바 '비빌 언덕'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첫째, 청년 활동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활동이 이뤄지는 '농촌형 사회혁신허브' 조성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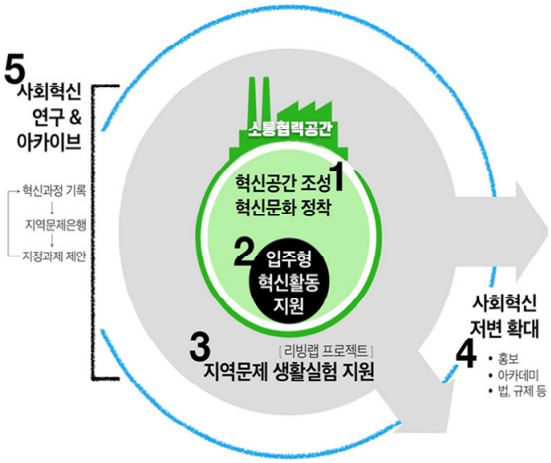
- 귀농·귀촌자 꼽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 주택, 커뮤니티'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른바 귀농·귀촌인의 '비빌 언덕'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느냐가 지금 시기의 과제로, 여기서는 사회주택 방식의 농촌형 공동체주택 사업(유휴자산 활용 토지임대부 방식 등 공동체 주택[72])을 제안함
- 농촌형 공동체 주택 사업은 거주를 위한 저렴한 집이면서, 다양한 창업을 하는 일자리를 위한 농촌형 직주(職住) 공간으로 문화 인프라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음

---

72)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지자체와 국가가 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주변시세 80% 이하, 최장 10년 거주보장)하여 조성하며, 입주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못 미치면서 민간임대주택 들어갈 여력부족 3~6분위자임. 이러한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국가와 지자체), 준공공임대주택(민간기업)과 다름

- 그러한 측면에서 '농촌형 사회혁신허브'는 컨텐츠와 작동방식이 '주거, 체험, 실험, 소셜벤처, 교류공간' 등 복합된 공간임
- 주거·일자리·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주거공간'은 농촌형 사회주택, 레지던스,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함
- '일할 공간'은 협동조합·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무공간과 스타트업의 실험공간, 창직(創職) 등 작업·실험을 갖춤
- 이와 함께 청년 활동가들이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만들어 교류협력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함
- '농촌형 사회혁신허브'는 소통과 협력,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도시-농촌, 청년-은퇴자, 정부-민간, 영리-비영리, 지역-세계 등 세대·공간 경계를 넘어 소통과 교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임
- 핵심공간의 주요 컨셉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음
- (주거공간) 청년사회주택,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체험·교류 중·단기 주거공간
- (체험공간) 비전화공방, 전환마을 등의 체험공간
- (실험공간) 다양한 의제·주체 참여하는 '리빙랩, 사회혁신랩' 등 공동작업 및 실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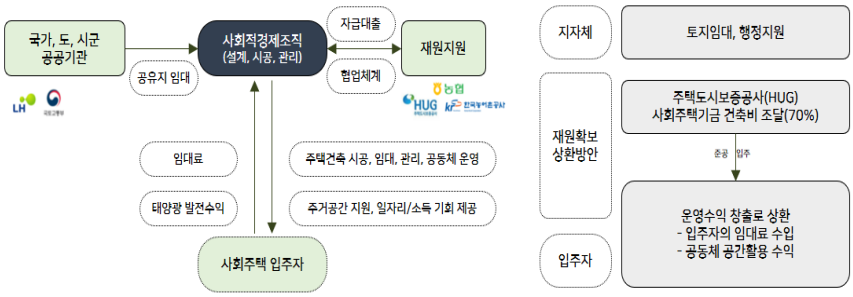
〈그림 5-9〉 농촌형 사회혁신허브 개념도



자료 :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2018)

- (소셜벤처공간)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NPO, 중간지원조직, 연구소 등 오피스 공간
- (교류공간) 도서관 등 사회혁신 아카데미·컨퍼런스, 성과공유 및 혁신네트워크 공간

〈그림 5-1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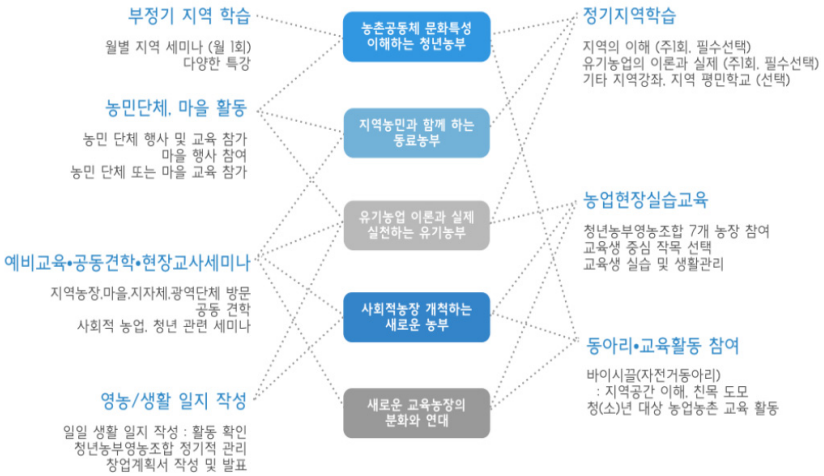


❍ 둘째, 도시지역의 청년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이주·정착경로를 고려한 '청년협업농장' 운영을 제안함

- 도시청년은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거쳐 농촌사회에 진입하지만, 영농활동·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사회 농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협업농장 방식으로 운영함
- 기존 귀농자를 인큐베이팅하는 '교육·육성농장'은 영농창업에 집중하여 농촌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활동 등은 다루지 않아 '청년협업농장'을 통해 농촌사회 정착의 마중물 붓기 역할을 부여함
- '청년협업농장'에서 영농활동을 매개로 하되, 농촌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의 수요를 파악하고, 귀촌 청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거점으로 기능함
- 이러한 청년협업농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체가 되어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도시청년이 농촌사회에 정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청년농부 육성에 집중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농촌사회 진로를 모색하고 이를 준비·실천해 나감
- 젊은협업농장을 통하여 도시청년의 농촌사회 이주·정착 지원 거점은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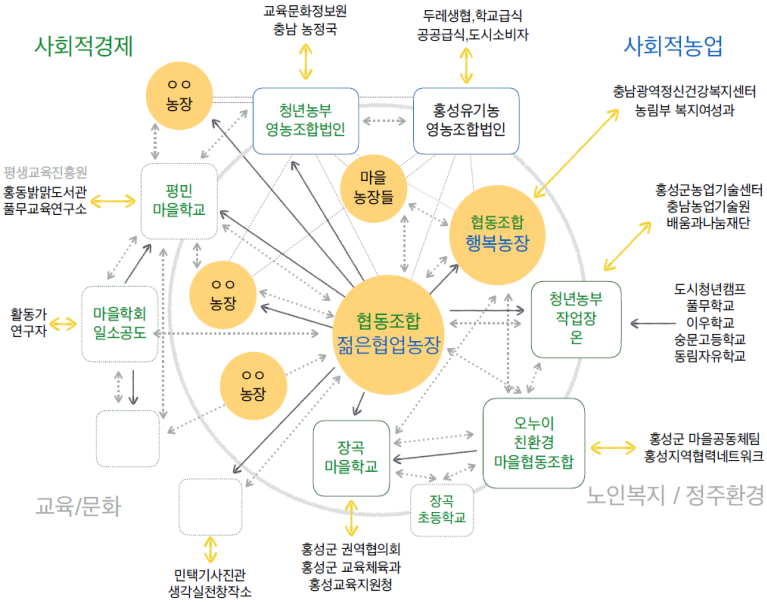
의 다양한 사회조직·활동단체 등과 결합하여 농업, 환경, 교육, 돌봄, 먹거리 등의 사회혁신 활동으로 이어지는 핵심이 됨

〈그림 5-11〉 젊은협업농장의 교육프로그램 예시



자료 : 정민철(2019)

〈그림 5-12〉 젊은협업농장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활동 연계망



자료 : 정민철(2019)

6. 전략 5.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 강화

❍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주민(사회)의 수요와 필요를 위해 농업·농촌의 여러 자원을 매개로 사업과 활동이 전개되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음

❍ 과소화·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 유지를 위해서는 전통적 방식의 농업 일자리를 벗어나 농업과 관련된 농촌사회 일자리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업·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매개로 도시지역의 인력이 상시적으로 농촌사회와 결합하는 '농촌사회 일자리·일거리 지원체계' 운영·강화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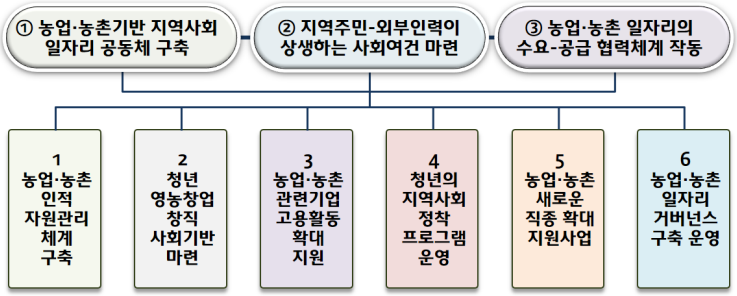
❍ 첫째,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과 정책대응을 위해 시군 '농업·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가 관련 주체들의 구심점이 되어 농촌 일자리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기존의 지역 일자리 정책은 행정 부서 내 정책 칸막이로 일자리 업무의 조정·통합이 어렵고, 현장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의 시너지 창출에 많은 한계가 있었음
- 농업·농촌 일자리와 관련된 주체들(수요자-공급자) 간의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기획·프로젝트로 정책사업 실행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관건임
- 농업·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는 단순한 노동력을 중개하고 일자리·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 중개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한 종합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감

❍ 둘째, 농업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는 '청년의 창직과 정착기반' 조성, 농촌기업의 '지역사회 고용확대' 촉진, 지역사회 '농업·농촌 일자리 DB구축'을 통한 통합적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감

- 영농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창농(創農)의 관점을 농업·농촌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직(創職)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정착기반을 사회적으로 지원

〈그림 5-13〉 농촌사회 일자리·일거리 지원 핵심전략



해 나감

- 농업·농촌 분야는 '농자재-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관광-돌봄-복지-지역개발-연구개발-지원' 등 단계별 일자리·일거리가 필요하며, 기업·단체·조직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지원함
-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일거리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담아낼 뱅크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단체·기관의 수요에 매칭시킬 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

❍ 셋째, 농업·농촌의 일자리·일거리는 농업·농촌을 매개로 하는 지역의 생산활동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지역사회 일자리'를 방향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해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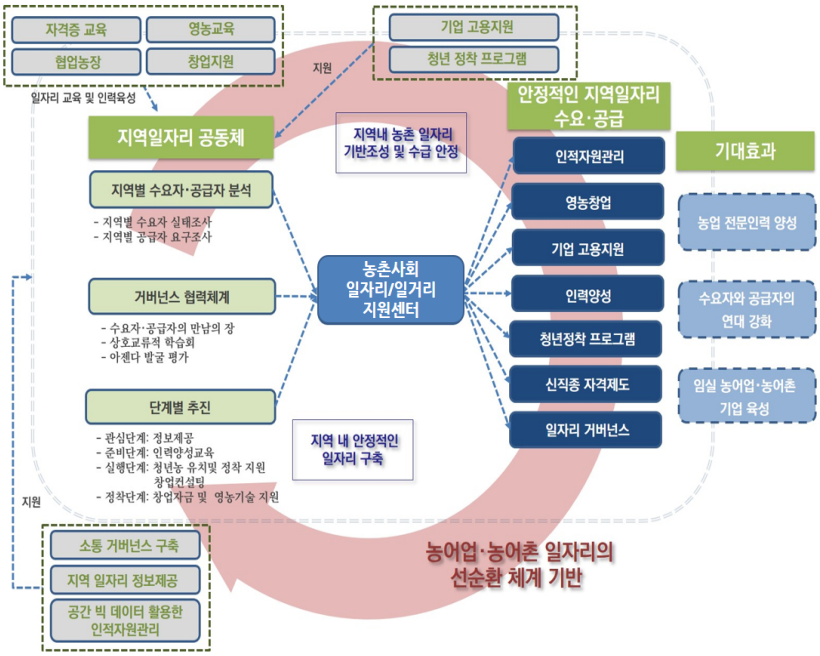
- 농업·농촌 인적자원관리(HRM)[73] 체계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농업·농촌 인적자원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감[74]
- 청년의 영농창업과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창직(創職)의 사회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 창직을 촉진하고 지원해 나감
- 농업·농촌 관련 기업 고용활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단체·기관 등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함

73)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74) 대표사업으로 농업·농촌 일자리 실태조사, 농업·농촌 일자리 정보 시스템 구축, 농업·농촌 일자리 소셜허브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75]을 운영하여 지역의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암묵지를 사회자본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는 세밀한 프로그램을 운영함[76]
- 농업·농촌 새로운 직종 확대를 위해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일자리로 귀결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함[77]
- 지역사회에서 농업·농촌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 체계로 상시적인 정보의 교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감[78]

〈그림 5-14〉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의 역할 구조



자료 : 황영모 외(2019)

75) 대표사업으로 찾아가는 농업·농촌 일자리 설명회, 농업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일자리 희망자 농업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음

76) 대표사업으로 청년 멘토멘티 프로그램, 사회적 농장 돌봄일자리 연계 지원, 지역사회 청년참여 할당제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77) 대표사업으로 농업·농촌 신직종 아카데미 기획, 찾아가는 신직종 교육 프로그램, 농업·농촌 신직종 가이드 북 제공 등을 들 수 있음

78) 대표사업으로 농업·농촌 일자리 운영협의회 운영, 농업·농촌 일자리 학습회와 강좌, 농업·농촌 일자리 아젠다 발굴과 평가 등을 들 수 있음

7. 전략 6. ‘도농융합상생 O2O 통합 플랫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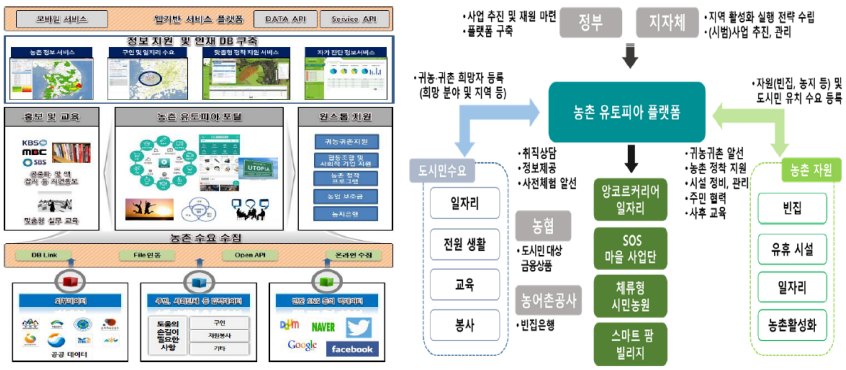
○ 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시의 수요와 농촌의 필요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O2O 방식의 지원 플랫폼’ 운영이 필요함

○ 플랫폼은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 등 다양한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고, 가치있는 무언가를 교환·소비하며, 공동으로 새로운 혼성적 가치를 만드는 상호작용을 일으킴

- O2O 플랫폼[79]은 연결성을 부여하여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시 연결시키고 상호 장점을 살려 성장을 이끌어 시장의 트렌드와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음
- 현재의 모바일 기기 등이 만드는 혁신은 뿌리 깊은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가 붕괴되었다가 다시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임[80]

○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기존의 개별적인 정보지원 플랫폼과 지원조직의 특성을 살리면서 ‘따로 같이’의 장점을 살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 나

〈그림 5-15〉 도농 연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예시



자료 : 송미령 외(2019)

79) O2O는 Online to Offline, Offline to Online의 줄임

80) 검색은 온라인에서 하고 실질적인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둘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음

가야 함

○ 도농융합상생과 관련한 전라북도 차원의 정보지원 플랫폼으로는 '농촌마을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융복합지원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생태관광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은 별도 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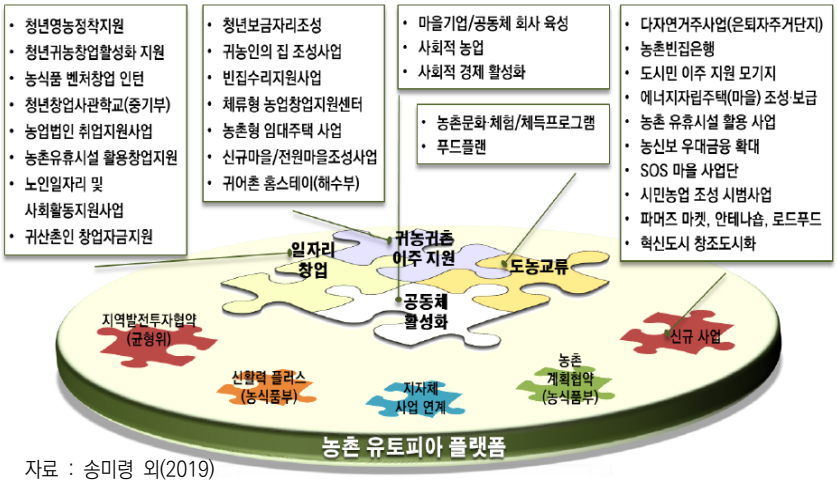
-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현재와 같은 개별 홈페이지(모바일 기반) 방식의 정보로는 접근성과 가용성 등이 낮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취득과 이용에 제약이 큼

○ 이에 '도농융합상생'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도시-농촌의 교류와 협력, 융합을 촉진시킬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기존 홈페이지 기능과 연결하여 개설·운영해 나가야 함

- 이러한 '도농융합상생 통합 플랫폼'에는 농촌사회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농지, 주택, 일자리, 재능기부, 먹거리 등과 관련한 지원조직·사업조직의 정보도 통합적으로 연결해야 함

○ 통합 플랫폼은 온라인 기반으로 해당 정보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이용자 편의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정보제공·상담 등의 오프라인 창구도 마련함

〈그림 5-16〉 도농 연계 통합지원 플랫폼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예시



자료 : 송미령 외(2019)

- 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전라북도, 시군, 농어촌공사,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각종 중간지원조직, 소비자 단체 등)가 참여하는 도농융합상생 협약을 통해 정보와 업무협조 체계를 갖춰야 함

6 장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연구배경과 목적〉

❍ 농업·농촌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인 변화로 인한 농촌에 대한 도시(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실천전략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시점임

❍ 이는 농업·농촌에만 국한된 문제해결 방안과 노력으로는 현재 농촌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효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음

❍ '도농융합상생'은 '도농분리 사회'에 주목한 대응전략으로서 '도농교류'를 넘는 새로운 개념으로 성격을 갖는 바, 도농융합상생의 개념과 실천적 논의의 근거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전라북도가 농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융합상생'의 정책적 근거와 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전라북도가 정책으로 우선 검토해 나갈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는 도농융합상생에 대한 '①주요논의, ②수요분석, ③기본구상, ④대응전략' 등 4개 영역에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도농융합상생 주요논의〉

❍ 도농융합상생의 열쇠말을 중심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도농융합상생의 사회적 이슈를 검토하면서 도시-농촌의 구체적인 관계맺기의 영역에서 다루는 대안과 대책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경제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도시-농촌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은 상호 교류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농촌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결망과 네트워크'를 맺어가야 함이 중요함

❍ 둘째,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수요자인 도시민과 공급자인 농촌주민의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의 매력요인과 도시 지역의 결핍

요인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그 관계맺기의 핵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함

❍ 셋째, 도시와 농촌은 '공생의 관점에서 사람, 물건, 정보가 서로 왕래'하는 활동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농촌에 어떻게 머물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도시민이 농촌에 '일시체재, 2지역 거주, 정주생활' 등으로 다양화해야 함

❍ 넷째, 도농교류의 범위와 영역을 '도시농업, 농촌관광, 귀농·귀촌까지 확장'해야 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 '농촌지역의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다섯째, 사회적인 수요변화에 따른 '도시민이 인생소원(버킷리스트)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농촌'에 주목하여, 이를 농촌사회의 필요와 서로 연결하여 삶의 질 수준을 갖추는 장기적인 대응전략 실행이 중요함

❍ 여섯째, 인구이동 관점에서는 인구구조 제약을 고려할 때, 이주하는 '정주인구'와 일시적 '교류인구'의 한계를 넘는 '관계인구'에 주목해, 이들이 농촌지역의 사회혁신을 실행할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장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일곱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귀농·귀촌을 늘리려는 지원정책을 넘어서, 예술·문화·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인력(창조계층)을 주체로 파악하고, 그 구체적인 계층으로 청년의 활동 공간을 프로그램으로 적극 마련해야 함

〈도농융합상생 수요진단〉

❍ 도시와 농촌이 주체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융합과 상생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기본방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농촌활력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았음

- 조사는 전북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시·군 인구비례로 표본을 할당하였는데, 도시민 500명(71.4%), 농촌주민 200명(28.6%)임

❍ 첫째, 전북도민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삶의 질 만족도 수준은 '치안, 안전, 생활서비스, 환경·경관, 사람관계, 사회기반시설, 도로, 주택' 등은 높은 반면, '문화·여가, 보육·돌봄, 평생교육'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임

- 삶의 질 만족도 수준은 인프라 등 사회서비스 기반에 결정되는 경향이 높은데, 만족도 차이는 도시민이 농촌주민보다 높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삶의 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사회서비스 확장하는 관리가 요구됨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시정할 과제로는 '일자리·일거리, 복지시설, 보육·돌봄'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농촌주민은 '사회조직, 문화·여가'를, 도시민은 '평생교육'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로 진단하였음
- 결국 일터, 삶터, 쉼터로서 농촌주민이 일정한 수준에서 만족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되, 돌봄,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함

❍ 둘째,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는 도농융합의 활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데, '정서적 관계, 생활에서 관계, 관심·애착심, 체험·관광 의향' 등은 높은 반면, 현재는 '체험·관광, 일속에서 관계, 농촌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농촌주민이 도시민보다 일·사람 관계, 심리적 거리 등에서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거주와 생활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반영된 결과임
-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험·교류의 수요가 높은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물리적·사회적 관계가 가깝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낮은 것은 기존 활동 프로그램의 혁신과 전환이 중요함을 시사함
- 결국,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 농업·농촌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우호적 인식을 갖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실천적 결과를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함

❍ 셋째, 사람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의료·복지, 기초생활 기반, 주거환경, 경제활동 기회'를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도농의 '교류·협력 활동'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음
- 이는 '건강복지, 생활여건, 경제활동' 등의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거주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과임
- 농촌활력을 위해 필요조건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료·복지, 교통·도로'로 분석되었고,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 '의료·복지, 문화·여가, 교통·도로, 휴양·관광'을 꼽았지만, 농촌주민은 '경제활동, 도농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음
- 결국, 도농융합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이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거부감 또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교류와 협력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야 함

❍ 넷째, 도농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촌지역에서의 활

동·프로그램에 보통 수준 의향을 보였는데,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개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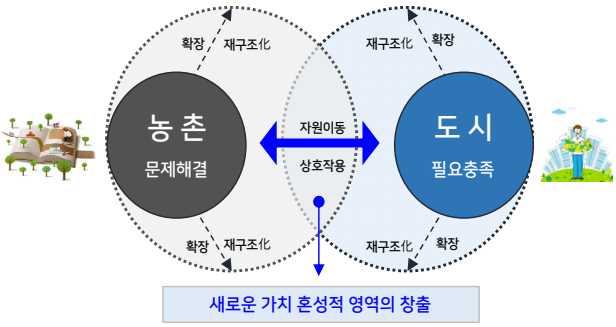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의향이 높은 활동·프로그램은 '환경보전, 재능기부, 체험·교류'인 반면, '가공·판매, 전문영농, 예술활동' 등은 낮았는데, 이는 농업을 매개로 하기 보다 사회적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태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를 꼽고 있어 조직적 활동보다 우선하고 있음
- 결국, 영농 등 영역에서 도시민 참여를 기대하는 농업계 요청이 실제 도시민의 태도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시민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됨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

❍ 첫째, '도농융합상생'과 관련된 '도농(都農), 융합(融合), 상생(相生)'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도농융합상생의 개념을 제안하였음

- '도농융합상생'은 농촌과 도시가 서로의 필요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관계(망)를 통해 공동의 선(善)(이익)을 구현해나가는 영역과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상호 관계망'은 도시민 일방의 활동경로를 지양하며 관계인구 방식의 혁신활동이 농촌주민 주체역량에 근거해 지속되는 연대·네트워킹의 구조를 지칭함

〈도농융합상생,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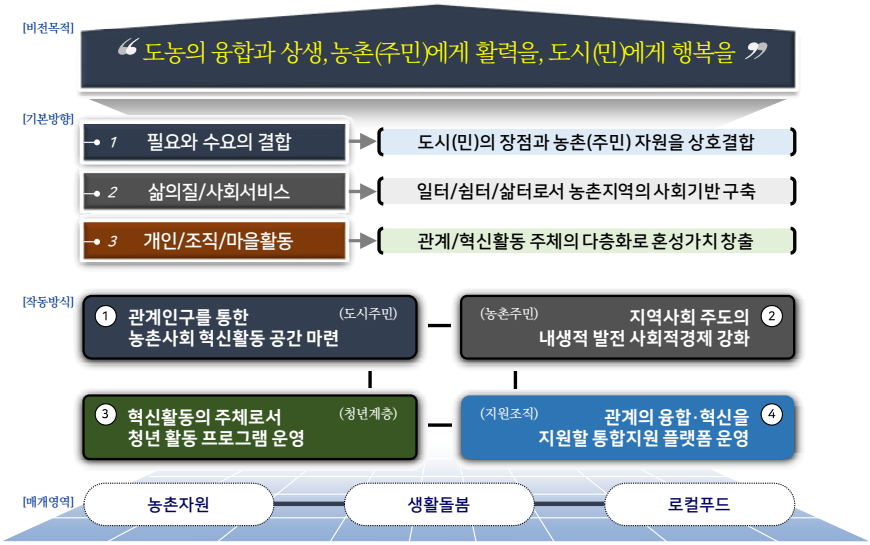
자료 : 황영모(2019)에서 수정

- '공동의 선(共同善)'은 도시의 수요와 농촌의 필요가 관계를 통해 접점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도시-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상호간의 필요와 수요가 일정하게 결합되어 새로운 부가적인 가치영역으로 확장되는 미래 지향적 방향을 의미함
- '영역과 공간'은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주체 간 관계 활동이 일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를 가짐

○ 둘째, 도농융합상생에 관한 개념적 검토와 기본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도농융합상생의 실천전략으로서 기본구상을 '목적과 비전, 기본방향, 작동방식, 매개와 수단' 등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음

- 도농융합상생의 목적과 비전을 "도농(都農)의 융합(融合)과 상생(相生)-농촌(주민)에게 활력을, 도시(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방식으로 제시함
- 도농융합상생은 '농촌과 도시' 2차원 방향을 '융합'이라는 방식(수단)을 '실행하는 주체'를 상정하는 3차원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함
- 도농융합상생의 기본방향에는 '도시-농촌간 필요-수요의 결합,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개인·조직 등 주체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아 제시함
- 도농융합상생의 '작동방식'은 '관계인구를 통한 농촌사회 혁신활동 마련,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방식, 혁신활동을 담당할 주

〈도농융합상생, 기본구상의 전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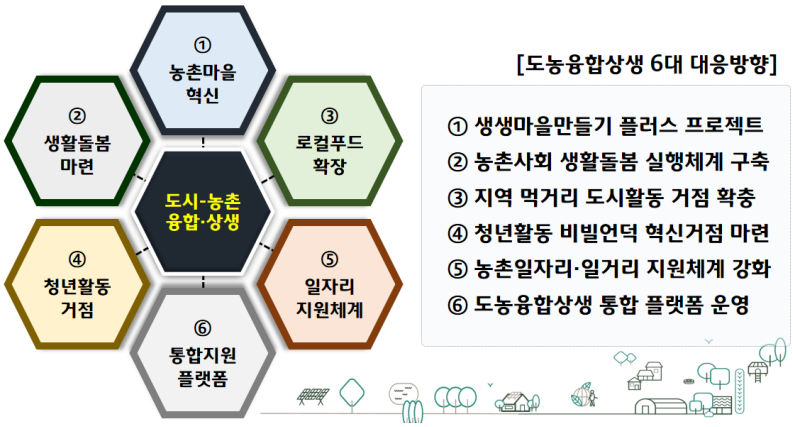


체로서 창조계층 활동, 주체 간 관계의 융합·혁신 지원'으로 제안함

- 도시-농촌(공간), 도시민-농촌주민(주체) 간 융합 활동이 실제 벌어지는 컨텐츠는 '농촌다움으로 대표되는 농촌자원, 로컬푸드로 상징되는 지역 먹거리, 생활돌봄으로 설명되는 생활수요'를 매개로 '농촌마을-읍면생활권(농촌)'과 '도심-마을(도시)'를 잇는 혁신활동 거점을 제안함

○ 셋째, 도농융합상생의 대응전략은 '삶의 질'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도시민이 농촌지역과 관계하는 주체(관계인구)를 형성해 혁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농촌마을 혁신, 생활돌봄 마련, 로컬푸드 확장, 청년활동 거점, 일자리 지원체계, 통합지원 플랫폼' 등 6대 전략을 제안하였음

〈도농융합상생의 대응방향〉



〈도농융합상생 추진전략〉

○ 기본전제.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인력 확보'

- 도농융합상생의 구체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농촌'을 중심으로 하므로, 농촌을 이른바 '행복 삶터, 일터,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기준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고령화·과소화된 농촌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도농융합상생의 실체적 활동은 도시민이 농촌지역과 교류·협력 또는 이주·정착하는 주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귀결되므로 이를 육성해 나가야 함

○ 추진전략 1.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

-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는 생생마을에 도농융합상생 관점에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사회적 수요·필요를 결합한 ‘두 번째 삶터로서 색깔 입히기’ 성격임
-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①농촌여행 플러스, ②건강+치유 플러스, ③문화·예술촌 플러스, ④귀농(농사) 플러스’ 등 4대 프로그램을 제안함

○ 추진전략 2. ‘농촌생활 돌봄과 생활기술종합학교’

- 생활돌봄이 필요한 주민 대상으로 미충족 생활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 조직’이 프로그램을 맡도록 담당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 대응인력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임
-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사회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과 도전에 필요한 기술인 ‘생활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농촌생활기술학교’ 운영을 제안함

○ 추진전략 3. ‘지역 먹거리 공유부엌과 치유·돌봄농장’

- 지역 먹거리 체계의 관점에서 도시지역에서 먹거리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공유부엌(커뮤니티키친)’을 통해 먹거리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는 실천공간을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함
-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농업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현대사회 도시민이 안고 있는 의학적·사회적 치료를 담당할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치유·돌봄농장’을 제안함

○ 추진전략 4.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과 협업농장’

- 청년 활동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농촌, 청년-은퇴자, 정부-민간, 영리-비영리, 지역-세계 등 세대·공간 경계를 넘어 소통과 교류, 연결이 이루어지는 ‘농촌형 사회혁신허브’ 조성을 제안함
- 도시지역의 청년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고려하여 영농활동을 매개로 농촌사회에 필요한 사회혁신 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귀촌 청년의 역할을 모색하는 거점 ‘청년협업농장’ 운영을 제안함

○ 추진전략 5. ‘농촌지역 일자리·일거리 지원센터’ 강화

-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과 정책대응을 위해 시·군 ‘농업·농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관련 주체들의 구심점이 되어 농촌 일자리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제안함

- 농업·농촌 일자리·일거리 지원조직은 '청년의 창직과 정착기반' 조성, 농촌기업의 '지역사회 고용확대' 촉진, 지역사회 '농업·농촌 일자리 DB구축'을 통한 통합적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감

❍ 추진전략 6. '도농융합상생 O2O 통합 플랫폼' 운영

- 도시-농촌의 교류와 협력, 융합을 촉진시킬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기존 홈페이지 기능과 연결하여 개설·운영할 것을 제안함
- 도농융합상생 통합 플랫폼에는 농촌사회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농지, 주택, 일자리, 재능기부, 먹거리 등과 관련한 지원조직·사업조직의 정보도 통합적으로 연결해야 함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 이 연구는 도농교류라는 평면적 수단을 넘어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도농융합상생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과 농촌 마을만들기의 혁신전략 도출과 정책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전라북도 삼락농정 농촌활력 영역(사람찾는 농촌)의 정책을 고도화하여 살기 좋은 행복삶터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개념은 학술적, 정책적으로 더 많은 후속논의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에 따른 체계와 추진전략 등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세부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기흥(2020),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김병국 외(2018), ‘농촌관광사업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1), ‘국가식량계획(안)-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내부자료.

민인식·최필선(2012), 「STATA 고급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 학회.

박진도(2021), ‘자립하려는 도시 청년들, 이 마을로 오세요’, 오마이뉴스.

이정해(2021), ‘영국의 농촌재생 정책과 현황’, e-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호준(2021), ‘취약계층에 균형 잡힌 ‘공공 급식’…바우처 대신 ‘공유 부엌’에서 제공’, 경향신문 기사

정민철(2019), ‘농업과 농촌, 홍동과 장곡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처·서용석(2010), ‘국내 관광학연구에 사용된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의 재고찰’, 관광연구논총 22(1).

조원지 외(2021), ‘전라북도 마을형 농촌치유관광 모델 구축 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미발간).

조원지(2021), ‘지역사회 생활기술종합학교 지정 및 운영방안’, 연심회 자료, 전북연구원.

전라북도(2019), ‘생생마을만들기 추진전략’, 삼락농정위원회 TF회의 자료

천재박(2020), ‘도농교류 플랫폼을 만듭니다, 쌈지농부의 삶’, 계간 농정연구 56, 농정연구센터.

한주성(2019), ‘농업교육과 체험에 의한 관계인구의 지역활동-서울시와 지방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54(4).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201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

황영모 외(2019), ‘임실군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황영모 외(202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황영모(2019),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황영모(2019), '도농융합상생의 구상검토와 적용방안', 전라북도 심포지엄 발표자료.
황영모(2021), '홍반장을 아십니까? 농촌 생활돌봄 정책실험의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칼럼.

総務省 地域力創造グループ
石山恒貴(2019), '地域とゆるくつながろう! サードプレイスと關係人口の時代', 靜岡新聞社.
作野廣和(2019), '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關係人口の意義と可能性,' 経済地理学年年報 65
河井孝仁(2020), '關係人口」創出で地域經濟をうるおすシティプロモーション2.0 まちづくり參畵への「意欲」を高めるために?', 第一法規出版.

Akkoyunlu, S. (2015). The potential of rural-urban linkag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rade.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policy, 4(2), 20-40.
Albrechts, L. (2006). Bridge the gap: From spatial planning to strategic projects. European Planning Studies, 14(10), 1487-1500.
Allison, P. D. (1999).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Cary, NC.: SAS Institute.
Brant, R. (1990). "Assessing proportionality in the proportional odds model for ordinal logistic regression." Biometrics. vol. 46, pp. 1,171-1,178.
Burton, R. J. F., Kuczera, C., & Schwarz, G. (2008). Exploring farmers' cultural resistance to voluntary agri-environmental schemes. Sociologia Ruralis, 48(1), 16-37.
Burton, R. J. F., & Wilson, G. A. (2006). Injecting social psychology theory into conceptualisations of agricultural agency: Towards a post-productivist farmer self-identity?. Journal of Rural Studies, 22, 95-115.
Caffyn, A. & Dahlström, M. (2005). Urban-rural interdependences: Joining up policy in practice. Regional Studies, 39(3), 283-296.
Castle, E. N., Wu, J., & Weber, B. A. (2011). Place orientation and rural-urban interdependence.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3(2), 179-204.
Clogg, C., & Shihadeh, E. S. 1994. Statistical models for ordinal variable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Dilley, L. (2009). Consumption, identity and case of local food(Centre for Rural Economy Discussion Paper No. 23.
Dubé, L., Pingali, P., & Webb, P. (2012). Paths of convergence for agriculture, health, and wealth. PNAS, 109(31), 12294-12301.
Farrington, J. & Lomax, J. (2001). Rural development and the 'New Architecture of Aid': Convergence and constrains. Development Policy Review, 12(4), 533-544.
Greene,W.H. (2012). Econometric Analysis. 7th edition. Pearson.
Lee SW, Min SH, Park JY, Yoon SD. (2005). An application of logit and probit model, Parkyongsa.
Mannion, E. & Konstantinos, Z. (2009). Metro-nonmetro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in the Plaints States-Rethinking the rural-urban relationship in a global economy. Online Journal of Rural Research & Policy, 4(1), 1-21.
Nilsson, K. et al. (2014). Strateg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urban-rural linkages. European Journal of Spatial Development, 2014, 1-26.
Pugliese, P. (2001). Organic farming and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A multifaceted and promising convergence. Sociologia Ruralis, 41(1), 112-130.
Salvati, L. & Venanzoni, G. (2017). Work in (slow) progress: Latent suburbanization, economic restructuring, and urban-rural convergence in a southeastern European city. Journal of Urban Affairs, 39(3), 436-451.
SAS Institute. (1996). SAS/ST AT Software Changes and Enhancements. SAS Institute.
Spellerberg, A., Huschka, D., Habich, R. (2007).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Processes of divergence and converg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3, 283-307.

Jeonbuk Institute

맺
마

부록 1.

농촌지역 활동·프로그램 참여의향 특성 분석

❍ 도농융합상생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81]에 대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참여의향은 각 주체의 사회적 특성과 태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참여의향이 어떠한지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음

❍ 이를 위해 순서형 프로빗 모델(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인 농촌지역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의향 정도(11점 리커트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화로 전환함

❍ 설명변수는 표본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주 지역(도시-농촌), 삶의 질 만족도, 농업·농촌에 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 의향, 개인적 활동 태도, 농촌 이주의향, 연령과 성별 등을 반영하여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프로빗 모델은 로지스틱 모델과 비교해서 등분산성의 가정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Lee et al. 2005), 이 연구에서 사용된 순서형 프로빗 모델은 아래와 같음

(1) $Y_i^* = \acute{\beta} X_i + \epsilon_i, \epsilon_i \sim N(0,1)$

$$
\begin{aligned}
Y_i &= 1 \ \text{ if } \ Y_i^* \le \mu_1 \\
Y_i &= 2 \ \text{ if } \ \mu_1 < Y_i^* \le \mu_2 \\
Y_i &= 3 \ \text{ if } \ \mu_2 < Y_i^* \le \mu_3 \\
&\ \ \vdots \\
Y_i &= n \ \text{ if } \ Y_i^* > \mu_{n-1}
\end{aligned}
$$

- 식 (1)에서 Y^*는 응답자 i가 농촌지역 활동·프로그램의 참여를 결정하는 잠재

81) 이 연구에서 측정한 활동·프로그램은 '농촌에서 (일정기간)살아보기 체험, 농업소득 올리는 전문적 영농활동, 취미와 소일거리를 위한 농사짓기, 농산물·특산물 활용한 가공·판매, 농촌 관광사업(민박·펜션·음식판매 등), 농촌의 환경·생태자원 보전 활동, 농촌지역에서의 취업 또는 창업, 농업·먹거리 통한 체험·교류활동, 재능기부·자원봉사(돌봄·일손돕기·환경·교육 등), 공동체 연계 활동(체험·교육·관광·가공 등), 취미·여가 등 동아리(모임) 활동, 지식·경험 활용 지역사회 활동, 개인적인 예술·문화 창작 활동' 등임

변수이며, n은 종속변수 범주의 수, β는 추정계수, X는 설명변수를 의미함(ϵ와 μ는 오차항과 임계치를 의미)

- 응답자가 농촌지역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을 선택할 확률은 식 (2)와 같음

(2) $$\begin{aligned}\Pr(Y_i = n) &= \Pr(\mu_{n-1} < Y_i^* \leq \mu_n) \\ &= \Pr(\mu_{n-1} < \acute{\beta} X_i + \epsilon_i \leq \mu_n) \\ &= \Phi(\mu_n - \acute{\beta} X_i) - \Phi(\mu_{n-1} - \acute{\beta} X_i) \\ &= 1 - \Phi(\mu_{n-1} - \acute{\beta} X_i)\end{aligned}$$

- 식 (2)에서 Φ는 오차항의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며, 추정계수 β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순서형 프로빗 모델에서 계수 추정치를 그대로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에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위해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별도의 산식으로 산출함(Greene, 2012)
- 이 분석의 설명변수들은 대부분 더미변수들로 한계효과를 구하는 산식은 식 (3)과 같음

(3) $$\frac{\triangle \Pr(Y = n)}{\triangle X_k} = \Pr(Y_i = n | X_k = 1) - \Pr(Y_n = n | X_k = 0)$$

- 연령대의 경우 연속형 변수로 한계효과를 구하는 산식은 식 (4)와 같음

(4) $$\frac{\partial \Pr(Y = n)}{\partial X_k} = \beta_k \left[\Phi(\mu_{n-1} - \acute{\beta} X) - \Phi(\mu_n - \acute{\beta} X) \right]$$

❍ 분석에 앞서 순서형 프로빗 모델[82]의 평행선 가정 검정 결과, 5% 유의수준 하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공동체 연계 활동, 취미·여가 동아리, 지역사회 활동, 개인적 예술·문화 창작'만 평행선 가정이 전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순서형 프로빗 모델을 통해 농촌지역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의 세부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82) 종속변수가 순서화된 형태를 가지는 모형은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응답변수 범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평행선 가정(parallel lines assumption), proportional odds 가정을 전제로 하나, 평행선 가정의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설명변수가 많거나 표본 수가 크거나, 연속형 변수가 존재할 경우 빈번히 위반되어 평행선 가정 위반 시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모형 분석의 유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Brant, 1990;Allison, 1999; Clogg·Shihaden,1994; SAS Institute, 1996)

○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의 선택확률[83]을 살펴보면, 삶의 질 만족도,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에서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 농촌으로 이주의향이 높고, 여성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도시민이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의향이 높아, 비교적 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는 고령층과 도시민이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프로

〈부표-1〉 농촌에서 (일정기간) 살아보기 체험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098	0.0558	0.1023	0.4412	0.2742	0.1266
	농촌주민		0.0660	0.1129	0.4513	0.2597	0.1101
	한계효과		0.0102	0.0106	0.0101	-0.0145	-0.0165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447***	0.0688***	0.1245***	0.4911***	0.2403***	0.0753***
	평균이상		0.0294***	0.0733***	0.4305***	0.3169***	0.1500***
	한계효과		-0.0394***	-0.0512***	-0.0606***	0.0765***	0.0747***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172*	0.0637***	0.1126***	0.4591***	0.2601***	0.1045***
	평균이상		0.0469***	0.0938***	0.4392***	0.2862***	0.1339***
	한계효과		-0.0167*	-0.0188*	-0.0199*	0.0261*	0.0293*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423***	0.0703***	0.1242***	0.4847***	0.2419***	0.0788***
	평균이상		0.0319***	0.0764***	0.4298***	0.3121***	0.1498***
	한계효과		-0.0384***	-0.0479***	-0.0549***	0.0702***	0.0710***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240**	0.0657***	0.1157***	0.4662***	0.2557***	0.0969***
	평균이상		0.0427***	0.0892***	0.4375***	0.2931***	0.1376***
	한계효과		-0.0230**	-0.0265**	-0.0287**	0.0374**	0.0407**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530***	0.0733***	0.1311***	0.5006***	0.2293***	0.0656***
	이주의향 없음		0.0264***	0.0692***	0.4288***	0.3236***	0.1520***
	한계효과		-0.0470***	-0.0619***	-0.0718***	0.0943***	0.0864***
연령	20대 후반	0.002	0.0613	0.1082	0.4476	0.2660	0.1169
	30대 후반		0.0595	0.1063	0.4457	0.2686	0.1199
	40대 후반		0.0577	0.1044	0.4438	0.2712	0.1229
	50대 후반		0.0560	0.1025	0.4419	0.2737	0.1259
	60대 후반		0.0543	0.1007	0.4398	0.2762	0.1290
	70대 후반		0.0526	0.0988	0.4377	0.2787	0.1322
	한계효과		-0.0002	-0.0002	-0.0002	0.0003	0.0003
성별	남성	0.278***	0.0744***	0.1210***	0.4561***	0.2488***	0.0998***
	여성		0.0460***	0.0913***	0.4267***	0.2886***	0.1474***
	한계효과		-0.0284***	-0.0297***	-0.0293***	0.0398***	0.0476***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53.899, Chi-Square(χ^2): 218.03(p=0.000), Pseudo R2: 0.1132.

83) 이하의 선택확률과 한계효과의 해석은 참여의향이 매우 높음(Pr(y=5))을 기준으로 서술함

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7.5% 높으며,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을수록 2.9%, 농촌지역의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7.1%,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4.1%, 이주의향이 높으면 8.6%, 여성일 경우 4.8%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적 영농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은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에서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 농촌으로 이주의향이 높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도시민이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부표-2〉 농업소득을 올리는 전문적 영농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047	0.0700	0.1058	0.4863	0.2218	0.1161
	농촌주민		0.0755	0.1105	0.4898	0.2156	0.1086
	한계효과		0.0056	0.0047	0.0035	-0.0062	-0.0075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574***	0.0894***	0.1330***	0.5402***	0.1788***	0.0587***
	평균이상		0.0310***	0.0695***	0.4812***	0.2714***	0.1469***
	한계효과		-0.0584***	-0.0635***	-0.0590***	0.0926***	0.0882***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097	0.0748	0.1111	0.4951	0.2145	0.1044
	평균이상		0.0638	0.1013	0.4874	0.2276	0.1199
	한계효과		-0.0111	-0.0098	-0.0077	0.0131	0.0155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652***	0.0931***	0.1378***	0.5465***	0.1706***	0.0520***
	평균이상		0.0274***	0.0649***	0.4783***	0.2786***	0.1508***
	한계효과		-0.0656***	-0.0730***	-0.0682***	0.1080***	0.0988***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의향	평균이하	0.264***	0.0806***	0.1185***	0.5115***	0.2032***	0.0862***
	평균이상		0.0513***	0.0909***	0.4885***	0.2415***	0.1278***
	한계효과		-0.0293***	-0.0276***	-0.0230***	0.0383***	0.0416***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306***	0.0811***	0.1206***	0.5182***	0.1994***	0.0807***
	이주의향 없음		0.0477***	0.0880***	0.4910***	0.2451***	0.1282***
	한계효과		-0.0334***	-0.0326***	-0.0273***	0.0457***	0.0476***
연령대	20대 후반	0.002	0.0761	0.1111	0.4909	0.2146	0.1072
	30대 후반		0.0735	0.1090	0.4894	0.2175	0.1106
	40대 후반		0.0710	0.1069	0.4878	0.2203	0.1139
	50대 후반		0.0686	0.1048	0.4861	0.2231	0.1174
	60대 후반		0.0662	0.1027	0.4843	0.2259	0.1209
	70대 후반		0.0639	0.1006	0.4824	0.2286	0.1245
	한계효과		-0.0002	-0.0002	-0.0002	0.0003	0.0003
성별	남성	0.045	0.0740	0.1092	0.4883	0.2173	0.1111
	여성		0.0688	0.1047	0.4849	0.2232	0.1184
	한계효과		-0.0052	-0.0045	-0.0034	0.0059	0.0072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34.535, Chi-Square(χ^2): 237.38(p=0.000), Pseudo R2: 0.1245.

높을수록, 남성일 경우 참여의향이 높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8.8% 높고, 농촌지역의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9.9%, 개인적인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4.2%, 이주의향이 높으면 4.8%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짐

❍ '취미 및 소일거리 등을 위한 농사짓기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 농촌으로 이주 의향이 높으며, 도시민과 여성인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참여의향이 높은데, 이 경우

〈부표-3〉 취미와 소일거리 등을 위한 농사짓기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178*	0.0538***	0.1039***	0.4554***	0.2688***	0.1181***
	농촌주민		0.0726***	0.1234***	0.4711***	0.2418***	0.0911***
	한계효과		0.0188*	0.0196*	0.0157*	-0.0270*	-0.0271*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436***	0.0685***	0.1277***	0.5027***	0.2317***	0.0694***
	평균이상		0.0301***	0.0771***	0.4487***	0.3069***	0.1371***
	한계효과		-0.0384***	-0.0505***	-0.0540***	0.0752***	0.0677***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007	0.0572	0.1079	0.4596	0.2631	0.1122
	평균이상		0.0565	0.1071	0.4588	0.2642	0.1134
	한계효과		-0.0007	-0.0008	-0.0007	0.0011	0.0012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484***	0.0703***	0.1306***	0.5077***	0.2268***	0.0646***
	평균이상		0.0280***	0.0741***	0.4468***	0.3119***	0.1391***
	한계효과		-0.0423***	-0.0564***	-0.0609***	0.0851***	0.0745***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404***	0.0699***	0.1275***	0.4982***	0.2328***	0.0716***
	평균이상		0.0331***	0.0809***	0.4503***	0.3016***	0.1341***
	한계효과		-0.0368***	-0.0465***	-0.0479***	0.0687***	0.0625***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491***	0.0712***	0.1324***	0.5109***	0.2233***	0.0621***
	이주의향 없음		0.0279***	0.0744***	0.4502***	0.3112***	0.1363***
	한계효과		-0.0433***	-0.0580***	-0.0608***	0.0878***	0.0742***
연령	20대 후반	0.003	0.0634	0.1145	0.4654	0.2541	0.1026
	30대 후반		0.0602	0.1111	0.4627	0.2587	0.1072
	40대 후반		0.0572	0.1078	0.4598	0.2632	0.1120
	50대 후반		0.0543	0.1046	0.4566	0.2677	0.1169
	60대 후반		0.0515	0.1013	0.4532	0.2720	0.1219
	70대 후반		0.0488	0.0981	0.4497	0.2763	0.1271
	한계효과		-0.0003	-0.0003	-0.0003	0.0004	0.0005
성별	남성	0.191**	0.0684***	0.1193***	0.4666***	0.2478***	0.0980***
	여성		0.0492***	0.0986***	0.4480***	0.2757***	0.1286***
	한계효과		-0.0191**	-0.0207**	-0.0186**	0.0279**	0.0306**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40.408, Chi-Square(χ^2): 226.39(p=0.000), Pseudo R2: 0.1187.

는 가벼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촌주민인 경우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2.7% 낮아지는 반면, 농업·농촌 관심이 높으면 6.8%,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7.5%,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6.3%, 이주의향이 높으면 7.4%, 여성은 3.1% 정도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판매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은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개인적 활동 의향, 농촌 이주의향이 높고, 여성인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부표-4〉 농산물·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과 판매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169	0.0802	0.1212	0.4415	0.2382	0.1190
	농촌주민		0.1036	0.1388	0.4496	0.2148	0.0932
	한계효과		0.0235	0.0176	0.0081	-0.0234	-0.0258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387***	0.0996***	0.1435***	0.4733***	0.2079***	0.0756***
	평균이상		0.0523***	0.0997***	0.4451***	0.2672***	0.1357***
	한계효과		-0.0473***	-0.0438***	-0.0282***	0.0592***	0.0601***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019	0.0834	0.1236	0.4420	0.2348	0.1162
	평균이상		0.0859	0.1256	0.4431	0.2322	0.1131
	한계효과		0.0025	0.0020	0.0011	-0.0026	-0.0031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651***	0.1088***	0.1593***	0.4983***	0.1826***	0.0510***
	평균이상		0.0340***	0.0801***	0.4430***	0.2949***	0.1480***
	한계효과		-0.0748***	-0.0792***	-0.0553***	0.1123***	0.0970***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497***	0.1051***	0.1509***	0.4845***	0.1961***	0.0635***
	평균이상		0.0451***	0.0928***	0.4471***	0.2768***	0.1383***
	한계효과		-0.0600***	-0.0581***	-0.0374***	0.0806***	0.0749***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398***	0.1009***	0.1455***	0.4769***	0.2047***	0.0721***
	이주의향 없음		0.0519***	0.0999***	0.4485***	0.2670***	0.1327***
	한계효과		-0.0490***	-0.0456***	-0.0283***	0.0623***	0.0606***
연령	20대 후반	0.000	0.0843	0.1246	0.4433	0.2337	0.1142
	30대 후반		0.0843	0.1246	0.4433	0.2337	0.1142
	40대 후반		0.0843	0.1246	0.4433	0.2337	0.1142
	50대 후반		0.0843	0.1246	0.4433	0.2337	0.1142
	60대 후반		0.0843	0.1246	0.4433	0.2337	0.1142
	70대 후반		0.0843	0.1246	0.4433	0.2336	0.1141
	한계효과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성별	남성	0.172**	0.0979***	0.1345***	0.4461***	0.2207***	0.1008***
	여성		0.0751***	0.1167***	0.4363***	0.2436***	0.1283***
	한계효과		-0.0228**	-0.0178**	-0.0097**	0.0229**	0.0274**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67.083, Chi-Square(χ^2): 251.69(p=0.000), Pseudo R2: 0.1267.

-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도시민이 참여할 확률이 높았고, 연령대는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참여 확률은 낮게 나타남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6.0% 높고,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9.7%,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7.5%, 이주의향이 높으면 6.1%, 여성일 경우 2.7% 정도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관광사업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보면,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개인적 활동 의향, 농촌으로 이주의향이 높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부표-5〉 농촌 관광사업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016	0.0950	0.1064	0.4260	0.2471	0.1254
	농촌주민		0.0928	0.1050	0.4248	0.2492	0.1282
	한계효과		-0.0023	-0.0014	-0.0012	0.0021	0.0028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338***	0.1096***	0.1201***	0.4534***	0.2272***	0.0897***
	평균이상		0.0638***	0.0880***	0.4242***	0.2771***	0.1469***
	한계효과		-0.0458***	-0.0322***	-0.0292***	0.0499***	0.0572***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025	0.0932	0.1051	0.4240	0.2490	0.1288
	평균이상		0.0969	0.1073	0.4258	0.2457	0.1244
	한계효과		0.0036	0.0022	0.0019	-0.0033	-0.0044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740***	0.1270***	0.1414***	0.4908***	0.1898***	0.0509***
	평균이상		0.0340***	0.0630***	0.4128***	0.3195***	0.1707***
	한계효과		-0.0931***	-0.0784***	-0.0781***	0.1297***	0.1198***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381***	0.1117***	0.1230***	0.4604***	0.2220***	0.0828***
	평균이상		0.0603***	0.0859***	0.4271***	0.2807***	0.1460***
	한계효과		-0.0515***	-0.0371***	-0.0333***	0.0586***	0.0633***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395***	0.1135***	0.1241***	0.4603***	0.2206***	0.0815***
	이주의향 없음		0.0598***	0.0856***	0.4262***	0.2813***	0.1472***
	한계효과		-0.0538***	-0.0385***	-0.0341***	0.0607***	0.0657***
연령	20대 후반	-0.005**	0.0796***	0.0968***	0.4175***	0.2611***	0.1450***
	30대 후반		0.0862***	0.1013***	0.4220***	0.2548***	0.1357***
	40대 후반		0.0931***	0.1057***	0.4260***	0.2483***	0.1268***
	50대 후반		0.1004***	0.1102***	0.4295***	0.2416***	0.1183***
	60대 후반		0.1081***	0.1147***	0.4323***	0.2347***	0.1102***
	70대 후반		0.1162***	0.1191***	0.4346***	0.2277***	0.1024***
	한계효과		0.0007**	0.0004**	0.0004**	-0.0007**	-0.0009**
성별	남성	0.047	0.0985	0.1084	0.4270	0.2440	0.1220
	여성		0.0919	0.1043	0.4236	0.2502	0.1300
	한계효과		-0.0067	-0.0041	-0.0034	0.0061	0.0080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83.520, Chi-Square(χ^2): 243.52(p=0.000), Pseudo R2: 0.1211.

-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참여 확률이 높고, 농촌주민의 참여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농촌 관광사업이 도시민보다 직접 수혜자인 농촌주민의 더 많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는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5.7% 높고,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12.0%, 개인적 활동 의사가 높을수록 6.3%, 이주의향이 높으면 6.6%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0.09%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환경·생태자원 보전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은 삶의 질 만족도,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 농촌으로 이주의향이 높으며, 도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고령층에서는 덜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촌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성이 3.4%, 이주의향이 높으면 3.4%, 연령이 높을수록 0.1%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11.2%,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을수록 5.4%,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12.7%, 개인적 활동 의사가 높을수록 7.5%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6〉 농촌의 환경·생태자원 보전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183*	0.0539***	0.0884***	0.4233***	0.2684***	0.1660***
	농촌주민		0.0729***	0.1055***	0.4427***	0.2472***	0.1317***
	한계효과		0.0190*	0.0172*	0.0194*	-0.0213*	-0.0343*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574***	0.0725***	0.1142***	0.4859***	0.2356***	0.0918***
	평균이상		0.0245***	0.0574***	0.4003***	0.3143***	0.2035***
	한계효과		-0.0480***	-0.0567***	-0.0857***	0.0788***	0.1117***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279***	0.0663***	0.1032***	0.4541***	0.2513***	0.1250***
	평균이상		0.0405***	0.0764***	0.4184***	0.2853***	0.1793***
	한계효과		-0.0258***	-0.0268***	-0.0357***	0.0340***	0.0543***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661***	0.0735***	0.1181***	0.5009***	0.2279***	0.0797***
	평균이상		0.0203***	0.0515***	0.3961***	0.3254***	0.2067***
	한계효과		-0.0532***	-0.0666***	-0.1048***	0.0975***	0.1270***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389***	0.0682***	0.1072***	0.4686***	0.2460***	0.1100***
	평균이상		0.0336***	0.0692***	0.4153***	0.2968***	0.1852***
	한계효과		-0.0346***	-0.0380***	-0.0533***	0.0508***	0.0752***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177*	0.0620***	0.0982***	0.4465***	0.2577***	0.1356***
	이주의향 없음		0.0455***	0.0814***	0.4241***	0.2790***	0.1700***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한계효과		-0.0165*	-0.0168*	-0.0225*	0.0213*	0.0344*
연령	20대 후반	-0.005**	0.0469***	0.0815***	0.4136***	0.2759***	0.1821***
	30대 후반		0.0514***	0.0862***	0.4205***	0.2707***	0.1712***
	40대 후반		0.0562***	0.0910***	0.4269***	0.2651***	0.1608***
	50대 후반		0.0614***	0.0959***	0.4328***	0.2592***	0.1507***
	60대 후반		0.0669***	0.1008***	0.4381***	0.2531***	0.1410***
	70대 후반		0.0728***	0.1058***	0.4429***	0.2467***	0.1318***
	한계효과		0.0005**	0.0005**	0.0006**	-0.0006**	-0.0010**
성별	남성	0.067	0.0611	0.0951	0.4308	0.2600	0.1531
	여성		0.0546	0.0889	0.4230	0.2673	0.1661
	한계효과		-0.0065	-0.0062	-0.0077	0.0074	0.0131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44.799, Chi-Square(χ^2): 267.83(p=0.000), Pseudo R2: 0.1368.

○ '농촌지역 취업·창업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의향, 농촌으로 이주의향이 높으며, 도시민과 연령이 낮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계층 등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남성의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남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촌주민인 경우 3.4%, 연령대가 높아질 경우 0.12%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4.7%,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13.9%,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10.9%, 이주의향이 높으면 8.3%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짐

〈부표-7〉 농촌지역에서의 취업 또는 창업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182*	0.1025***	0.1024***	0.4036***	0.2253***	0.1661***
	농촌주민		0.1317***	0.1166***	0.4130***	0.2066***	0.1322***
	한계효과		0.0291*	0.0141*	0.0094*	-0.0187*	-0.0339*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240**	0.1195***	0.1139***	0.4231***	0.2128***	0.1307***
	평균이상		0.0841***	0.0940***	0.4062***	0.2385***	0.1772***
	한계효과		-0.0354**	-0.0199**	-0.0170**	0.0257**	0.0465**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014	0.1088	0.1057	0.4062	0.2211	0.1582
	평균이상		0.1066	0.1046	0.4053	0.2225	0.1610
	한계효과		-0.0022	-0.0011	-0.0009	0.0014	0.0028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738***	0.1398***	0.1372***	0.4722***	0.1801***	0.0708***
	평균이상		0.0406***	0.0652***	0.4008***	0.2837***	0.2097***
	한계효과		-0.0992***	-0.0720***	-0.0714***	0.1036***	0.1390***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579***	0.1352***	0.1300***	0.4569***	0.1910***	0.0868***
	평균이상		0.0537***	0.0760***	0.4079***	0.2665***	0.1958***
	한계효과		-0.0815***	-0.0540***	-0.0490***	0.0755***	0.1090***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433***	0.1304***	0.1232***	0.4404***	0.2010***	0.1051***
	이주의향 없음		0.0673***	0.0851***	0.4076***	0.2523***	0.1877***
	한계효과		-0.0630***	-0.0381***	-0.0328***	0.0513***	0.0826***
연령	20대 후반	-0.006**	0.0878***	0.0949***	0.3968***	0.2339***	0.1867***
	30대 후반		0.0964***	0.0999***	0.4018***	0.2283***	0.1735***
	40대 후반		0.1056***	0.1049***	0.4062***	0.2223***	0.1610***
	50대 후반		0.1154***	0.1099***	0.4097***	0.2160***	0.1490***
	60대 후반		0.1258***	0.1148***	0.4125***	0.2094***	0.1375***
	70대 후반		0.1368***	0.1196***	0.4144***	0.2026***	0.1266***
	한계효과		0.0010**	0.0005**	0.0004**	-0.0006**	-0.0012**
성별	남성	-0.102	0.0989	0.1007	0.4030	0.2276	0.1698
	여성		0.1143	0.1088	0.4095	0.2175	0.1499
	한계효과		0.0154	0.0081	0.0065	-0.0101	-0.0199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89.153, Chi-Square(χ^2): 290.19(p=0.000), Pseudo R2: 0.1403.

❍ '농업 및 먹거리 교류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살펴보면, 삶의 질 만족도,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이 높고, 연령대가 낮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도시민이 참여할 확률이 높았고, 이주의향이 높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높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9.1%,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을수록 3.6%, 농촌지역의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10.1%,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8.2%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 가능성은 0.0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8〉 농업과 먹거리를 통한 체험·교류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053	0.0369	0.0969	0.4648	0.2692	0.1322
	농촌주민		0.0408	0.1029	0.4716	0.2618	0.1229
	한계효과		0.0039	0.0060	0.0068	-0.0074	-0.0093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517***	0.0482***	0.1222***	0.5202***	0.2329***	0.0765***
	평균이상		0.0165***	0.0621***	0.4381***	0.3163***	0.1671***
	한계효과		-0.0318***	-0.0601***	-0.0821***	0.0834***	0.0906***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202**	0.0425***	0.1080***	0.4867***	0.2549***	0.1079***
	평균이상		0.0287***	0.0848***	0.4585***	0.2845***	0.1436***
	한계효과		-0.0139**	-0.0232**	-0.0282**	0.0295**	0.0357**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588***	0.0478***	0.1252***	0.5350***	0.2252***	0.0668***
	평균이상		0.0136***	0.0559***	0.4363***	0.3264***	0.1678***
	한계효과		-0.0343***	-0.0693***	-0.0987***	0.1012***	0.1010***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475***	0.0473***	0.1210***	0.5204***	0.2339***	0.0775***
	평균이상		0.0177***	0.0652***	0.4463***	0.3117***	0.1592***
	한계효과		-0.0296***	-0.0558***	-0.0741***	0.0778***	0.0817***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051	0.0386	0.1002	0.4720	0.2651	0.1241
	이주의향 없음		0.0350	0.0944	0.4651	0.2722	0.1332
	한계효과		-0.0036	-0.0058	-0.0069	0.0072	0.0091
연령	20대 후반	-0.004*	0.0315***	0.0884***	0.4542***	0.2794***	0.1465***
	30대 후반		0.0342***	0.0928***	0.4602***	0.2740***	0.1388***
	40대 후반		0.0370***	0.0974***	0.4659***	0.2685***	0.1313***
	50대 후반		0.0399***	0.1020***	0.4711***	0.2628***	0.1241***
	60대 후반		0.0431***	0.1068***	0.4760***	0.2569***	0.1172***
	70대 후반		0.0465***	0.1116***	0.4805***	0.2510***	0.1105***
	한계효과		0.0003*	0.0005*	0.0005*	-0.0006*	-0.0007*
성별	남성	0.107	0.0422	0.1049	0.4726	0.2593	0.1210
	여성		0.0345	0.0928	0.4586	0.2740	0.1401
	한계효과		-0.0078	-0.0121	-0.0140	0.0147	0.0191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24.181, Chi-Square(χ^2): 217.28(p=0.000), Pseudo R2: 0.1165.

○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살펴보면, 삶의 질 만족도,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이 높으며, 연령이 낮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8.9% 높고,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을수록 5.6%,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9.7%,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6.5%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은 0.0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9〉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075	0.0374	0.0875	0.4882	0.2643	0.1226
	농촌주민		0.0430	0.0951	0.4975	0.2539	0.1105
	한계효과		0.0055	0.0076	0.0093	-0.0104	-0.0120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564***	0.0487***	0.1114***	0.5526***	0.2225***	0.0648***
	평균이상		0.0152***	0.0528***	0.4617***	0.3161***	0.1541***
	한계효과		-0.0334***	-0.0586***	-0.0909***	0.0936***	0.0893***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350***	0.0464***	0.1042***	0.5271***	0.2382***	0.0841***
	평균이상		0.0234***	0.0679***	0.4769***	0.2917***	0.1401***
	한계효과		-0.0230***	-0.0363***	-0.0502***	0.0535***	0.0560***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628***	0.0487***	0.1139***	0.5653***	0.2148***	0.0572***
	평균이상		0.0130***	0.0481***	0.4596***	0.3246***	0.1546***
	한계효과		-0.0358***	-0.0658***	-0.1057***	0.1097***	0.0974***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414***	0.0464***	0.1060***	0.5380***	0.2332***	0.0763***
	평균이상		0.0203***	0.0628***	0.4757***	0.2995***	0.1417***
	한계효과		-0.0261***	-0.0432***	-0.0623***	0.0663***	0.0654***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103	0.0404	0.0928	0.5022	0.2564	0.1082
	이주의향 없음		0.0332	0.0823	0.4882	0.2712	0.1250
	한계효과		-0.0071	-0.0105	-0.0140	0.0148	0.0168
연령	20대 후반	-0.006**	0.0302***	0.0772***	0.4734***	0.2782***	0.1410***
	30대 후반		0.0337***	0.0826***	0.4818***	0.2710***	0.1309***
	40대 후반		0.0375***	0.0882***	0.4896***	0.2634***	0.1213***
	50대 후반		0.0416***	0.0940***	0.4967***	0.2555***	0.1122***
	60대 후반		0.0461***	0.0999***	0.5030***	0.2474***	0.1036***
	70대 후반		0.0510***	0.1059***	0.5086***	0.2392***	0.0954***
	한계효과		0.0004**	0.0006**	0.0007**	-0.0008**	-0.0009**
성별	남성	0.084	0.0420	0.0938	0.4949	0.2557	0.1135
	여성		0.0360	0.0853	0.4841	0.2673	0.1273
	한계효과		-0.0061	-0.0085	-0.0108	0.0115	0.0139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785.178, Chi-Square(χ^2): 252.25(p=0.000), Pseudo R2: 0.1384.

○ ‘마을공동체 연계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살펴보면, 삶의 질 만족도,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이 높고, 여성인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도시민이 참여할 확률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높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8.8%,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을수록 3.5%,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14.1%,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3.4%, 여성일 경우 2.3%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짐

〈부표-10〉 마을공동체 연계 참여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112	0.0494	0.0871	0.4658	0.2696	0.1282
	농촌주민		0.0599	0.0976	0.4780	0.2546	0.1100
	한계효과		0.0105	0.0105	0.0122	-0.0150	-0.0182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540***	0.0643***	0.1095***	0.5249***	0.2312***	0.0701***
	평균이상		0.0226***	0.0567***	0.4463***	0.3168***	0.1577***
	한계효과		-0.0417***	-0.0529***	-0.0785***	0.0856***	0.0875***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210**	0.0576***	0.0975***	0.4886***	0.2540***	0.1022***
	평균이상		0.0395***	0.0776***	0.4627***	0.2833***	0.1369***
	한계효과		-0.0181**	-0.0200**	-0.0259**	0.0293**	0.0347**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918***	0.0727***	0.1275***	0.5709***	0.1901***	0.0387***
	평균이상		0.0104***	0.0350***	0.4141***	0.3606***	0.1800***
	한계효과		-0.0624***	-0.0926***	-0.1568***	0.1705***	0.1413***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207**	0.0564***	0.0966***	0.4911***	0.2549***	0.1009***
	평균이상		0.0388***	0.0769***	0.4648***	0.2845***	0.1351***
	한계효과		-0.0176**	-0.0197**	-0.0263**	0.0296**	0.0341**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151	0.0550	0.0946	0.4851	0.2584	0.1070
	이주의향 없음		0.0420	0.0802	0.4664	0.2795	0.1319
	한계효과		-0.0130	-0.0143	-0.0187	0.0211	0.0250
연령	20대 후반	-0.004	0.0446	0.0820	0.4589	0.2765	0.1380
	30대 후반		0.0476	0.0853	0.4635	0.2720	0.1317
	40대 후반		0.0507	0.0886	0.4678	0.2673	0.1255
	50대 후반		0.0540	0.0920	0.4719	0.2626	0.1196
	60대 후반		0.0574	0.0954	0.4757	0.2578	0.1138
	70대 후반		0.0610	0.0988	0.4792	0.2528	0.1082
	한계효과		0.0003	0.0003	0.0004	-0.0005	-0.0006
성별	남성	0.140*	0.0588***	0.0965***	0.4752***	0.2562***	0.1134***
	여성		0.0461***	0.0835***	0.4594***	0.2743***	0.1368***
	한계효과		-0.0127*	-0.0130*	-0.0158*	0.0181*	0.0234*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02.226, Chi-Square(χ^2): 267.45(p=0.000), Pseudo R2: 0.1429.

○ '취미와 여가 등 동아리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도시민과 남성이 참여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10.1%,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14.2%,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6.0%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이 높으면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0.13% 낮아짐

〈부표-11〉 취미와 여가 등의 동아리(모임)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161	0.0539	0.0846	0.4778	0.2474	0.1363
	농촌주민		0.0703	0.0987	0.4932	0.2279	0.1099
	한계효과		0.0164	0.0141	0.0154	-0.0195	-0.0263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609***	0.0742***	0.1096***	0.5398***	0.2064***	0.0701***
	평균이상		0.0237***	0.0535***	0.4572***	0.2945***	0.1711***
	한계효과		-0.0504***	-0.0561***	-0.0826***	0.0881***	0.1010***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079	0.0594	0.0902	0.4882	0.2396	0.1227
	평균이상		0.0520	0.0833	0.4797	0.2491	0.1360
	한계효과		-0.0074	-0.0069	-0.0085	0.0095	0.0134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903***	0.0777***	0.1220***	0.5839***	0.1744***	0.0420***
	평균이상		0.0122***	0.0355***	0.4382***	0.3303***	0.1838***
	한계효과		-0.0655***	-0.0865***	-0.1457***	0.1559***	0.1418***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366***	0.0662***	0.1002***	0.5220***	0.2223***	0.0893***
	평균이상		0.0342***	0.0666***	0.4763***	0.2732***	0.1497***
	한계효과		-0.0319***	-0.0335***	-0.0457***	0.0508***	0.0604***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102	0.0595	0.0907	0.4921	0.2388	0.1189
	이주의향 없음		0.0499	0.0817	0.4808	0.2514	0.1362
	한계효과		-0.0096	-0.0090	-0.0113	0.0126	0.0173
연령	20대 후반	-0.008***	0.0419***	0.0733***	0.4628***	0.2617***	0.1603***
	30대 후반		0.0480***	0.0798***	0.4727***	0.2535***	0.1460***
	40대 후반		0.0548***	0.0864***	0.4815***	0.2448***	0.1324***
	50대 후반		0.0623***	0.0931***	0.4891***	0.2357***	0.1197***
	60대 후반		0.0706***	0.1000***	0.4954***	0.2261***	0.1079***
	70대 후반		0.0796***	0.1069***	0.5005***	0.2162***	0.0968***
	한계효과		0.0007***	0.0007***	0.0008***	-0.0009***	-0.0013***
성별	남성	-0.011	0.0562	0.0866	0.4804	0.2444	0.1324
	여성		0.0573	0.0876	0.4816	0.2431	0.1304
	한계효과		0.0011	0.0010	0.0012	-0.0013	-0.0019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794.229, Chi-Square(χ^2): 288.20(p=0.000), Pseudo R2: 0.1536.

○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 농촌으로 이주의향이 높고, 도시민과 연령이 낮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남성이 참여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8.7%,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14.8%,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5.1%, 이주의향이 높으면 2.8%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증가되는 반면, 농촌주민일

경우 4.6%, 연령이 높을수록 0.13%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낮아짐

〈부표-12〉 지식·경험을 활용한 지역사회(단체·조직)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325***	0.0562***	0.0966***	0.4460***	0.2731***	0.1282***
	농촌주민		0.0927***	0.1258***	0.4665***	0.2329***	0.0821***
	한계효과		0.0365***	0.0292***	0.0205***	-0.0402***	-0.0461***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585***	0.0801***	0.1241***	0.5003***	0.2306***	0.0649***
	평균이상		0.0285***	0.0676***	0.4374***	0.3145***	0.1520***
	한계효과		-0.0517***	-0.0565***	-0.0628***	0.0839***	0.0871***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034	0.0639	0.1035	0.4527	0.2635	0.1163
	평균이상		0.0605	0.1004	0.4500	0.2675	0.1216
	한계효과		-0.0034	-0.0031	-0.0027	0.0040	0.0053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1.119***	0.0881***	0.1495***	0.5703***	0.1673***	0.0247***
	평균이상		0.0088***	0.0331***	0.4023***	0.3830***	0.1727***
	한계효과		-0.0793***	-0.1165***	-0.1680***	0.2157***	0.1480***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341***	0.0715***	0.1144***	0.4853***	0.2461***	0.0827***
	평균이상		0.0400***	0.0817***	0.4519***	0.2931***	0.1333***
	한계효과		-0.0315***	-0.0326***	-0.0335***	0.0470***	0.0507***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186*	0.0679***	0.1090***	0.4680***	0.2561***	0.0991***
	이주의향 없음		0.0499***	0.0917***	0.4516***	0.2795***	0.1274***
	한계효과		-0.0180*	-0.0173*	-0.0164*	0.0235*	0.0283*
연령	20대 후반	-0.008***	0.0458***	0.0867***	0.4357***	0.2839***	0.1479***
	30대 후반		0.0527***	0.0940***	0.4439***	0.2754***	0.1339***
	40대 후반		0.0604***	0.1014***	0.4511***	0.2664***	0.1207***
	50대 후반		0.0688***	0.1089***	0.4571***	0.2568***	0.1084***
	60대 후반		0.0781***	0.1163***	0.4619***	0.2467***	0.0970***
	70대 후반		0.0882***	0.1237***	0.4655***	0.2362***	0.0864***
	한계효과		0.0008***	0.0007***	0.0006***	-0.0009***	-0.0013***
성별	남성	-0.061	0.0592	0.0991	0.4481	0.2693	0.1244
	여성		0.0653	0.1045	0.4530	0.2622	0.1150
	한계효과		0.0061	0.0055	0.0049	-0.0070	-0.0094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786.292, Chi-Square(χ^2): 352.15(p=0.000), Pseudo R2: 0.1830.

○ '개인적인 예술·문화 창작 활동 참여'의 선택확률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농촌지역 활동 참여도, 개인적 활동 의향, 농촌으로 이주의향이 높으며, 도시민과 연령이 낮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음
-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5.4%, 농촌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높으면 11.7%, 개인적 활동의사가 높을수록 9.7%, 농촌으로 이주의향이 높으면 5.2%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농촌촌주민일 경우

5.2%, 연령이 높을수록 0.24%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짐

〈부표-13〉 개인적인 예술·문화 창작 활동 참여 확률

Division		Coef.	Pr(y=1)	Pr(y=2)	Pr(y=3)	Pr(y=4)	Pr(y=5)
거주지역	도 시 민	-0.354***	0.0724***	0.1137***	0.4307***	0.2469***	0.1363***
	농촌주민		0.1196***	0.1470***	0.4465***	0.2029***	0.0839***
	한계효과		0.0472***	0.0333***	0.0158***	-0.0440***	-0.0524***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평균이하	0.334***	0.0941***	0.1344***	0.4570***	0.2210***	0.0934***
	평균이상		0.0561***	0.1010***	0.4318***	0.2637***	0.1473***
	한계효과		-0.0380***	-0.0334***	-0.0252***	0.0427***	0.0539***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하	0.087	0.0853	0.1241	0.4386	0.2339	0.1180
	평균이상		0.0749	0.1158	0.4328	0.2443	0.1322
	한계효과		-0.0104	-0.0084	-0.0058	0.0103	0.0142
농촌지역 활동참여 의향	평균이하	0.778***	0.1045***	0.1578***	0.5060***	0.1821***	0.0495***
	평균이상		0.0266***	0.0690***	0.4290***	0.3085***	0.1668***
	한계효과		-0.0779***	-0.0888***	-0.0771***	0.1264***	0.1173***
개인적인 활동 참여의향	평균이하	0.635***	0.1028***	0.1512***	0.4910***	0.1940***	0.0610***
	평균이상		0.0353***	0.0809***	0.4357***	0.2906***	0.1575***
	한계효과		-0.0675***	-0.0703***	-0.0552***	0.0965***	0.0965***
이주의향	이주의향 있음	0.328***	0.0938***	0.1351***	0.4603***	0.2197***	0.0911***
	이주의향 없음		0.0563***	0.1018***	0.4358***	0.2628***	0.1433***
	한계효과		-0.0375***	-0.0333***	-0.0244***	0.0431***	0.0522***
연령	20대 후반	-0.014***	0.0456***	0.0907***	0.4125***	0.2713***	0.1799***
	30대 후반		0.0585***	0.1047***	0.4280***	0.2570***	0.1517***
	40대 후반		0.0739***	0.1191***	0.4397***	0.2409***	0.1264***
	50대 후반		0.0921***	0.1336***	0.4472***	0.2231***	0.1040***
	60대 후반		0.1131***	0.1477***	0.4505***	0.2043***	0.0844***
	70대 후반		0.1371***	0.1611***	0.4495***	0.1847***	0.0676***
	한계효과		0.0017***	0.0014***	0.0009***	-0.0017***	-0.0024***
성별	남성	0.097	0.0882	0.1252	0.4352	0.2320	0.1194
	여성		0.0766	0.1161	0.4291	0.2431	0.1351
	한계효과		-0.0116	-0.0091	-0.0061	0.0111	0.0158

주 1. y=1은 참여의향이 매우 낮고 y=5에 가까울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p*〈0.1, p**〈0.05, p***〈0.01
2. Log likelihood: -833.960, Chi-Square(χ^2): 331.55(p=0.000), Pseudo R2: 0.1658.

부록 2.

ID		-	

‘삶의 질 수준 진단과 농촌에 대한 수요’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은 전북도민(도시주민-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농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도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 **‘현재 수준과 중요 정도’**를 각각 묻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질문마다 생각하시는 현재 수준과 중요 정도 등을 각각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옳고 그름이 따로 없습니다. 제시된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에 기입하신 개인 사항을 비롯한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연구기관 :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위원 (063-280-7132), · 조사담당 : 정호중 전문연구원 (063-280-7138)

①도시주민 (동 지역)	②농촌주민 (읍면 지역)	①전주시, ②군산시, ③익산시, ④정읍시, ⑤남원시, ⑥김제시, ⑦완주군, ⑧진안군, ⑨무주군, ⑩장수군, ⑪임실군, ⑫순창군, ⑬고창군, ⑭부안군

〈선생님의 ‘개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성별	①남성, ②여성	연령	____세	동거가족 (본인포함)	____명	가구소득	연간 ____만원
직업	①농업/임업/어업 ⑥교사/공무원	②자영업 ⑦주 부	③사무/관리직(일반회사 등) ⑧학 생		④생산/기능/노무직 ⑨퇴직(은퇴)	⑤전문직(의사/교수/연구원) ⑩무직	⑪기타( )

1. 선생님께서 '현재 사시는 곳(마을을 중심으로 읍·면·동 수준)에 대한 생활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현재 수준'과 '중요 정도'를 생각하시는 해당하는 란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현재 수준 평가 (만족도)	중요 정도 평가 (중요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함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함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주택' 상태가 양호하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일거리'를 잘 구할 수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은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양육·보육·돌봄의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교육'은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생교육'은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내가 사는 지역의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도로' 등이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내가 사는 지역은 생필품 구입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쓰레기,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람들의 관계'가 좋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회조직·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은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6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아래에 제시된 '생활 만족 정도와 농업·농촌에 관한 일반적 질문'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란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생활의 만족도와 농업·농촌 관계	전혀 아니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마을·지역)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평소 농업·농촌에 관심과 애착심이 많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나는 정서적·심리적으로 농업·농촌과 가깝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나는 농업·농촌 분야의 사람들과 관계가 많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는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 등 여가활동을 자주 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내가 하는 일은 농업·농촌과 관계가 많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생활은 농업·농촌과 가깝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는 앞으로 농촌을 찾아 체험·휴식·관광 등을 하고 싶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나는 앞으로 농촌지역(농촌마을)으로 집을 옮길 생각이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찾고 살고 싶은 농촌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수준'과 '중요 정도'를 해당하는 란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사람이 찾고 살고 싶은 농촌에 필요한 조건	현재의 수준 평가(만족도)											앞으로 중요 정도(중요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함	
1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 등의 주거 환경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다양한 일자리 등 경제활동의 소득 기회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의료와 복지 등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설기반과 서비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반과 사회 서비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no	사람이 찾고 살고 싶은 농촌에 필요한 조건	현재의 수준 평가(만족도)										앞으로 중요 정도(중요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함									
6	이용에 편리한 대중 교통과 도로의 접근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산촌의 환경과 경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기반과 서비스(프로그램)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여건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일회적인 '교류' 프로그램 확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상시적인 '협력' 프로그램 확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공간' 확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도시-농촌의 '조직·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농촌·산촌의 휴양과 관광 역할 강화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아래에 제시한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란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실 의향	전혀 아니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농촌·산촌에서 (일정기간) 살아보기 체험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농업소득을 올리는 전문적인 영농 활동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취미와 소일거리 등을 위한 농사 짓기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과 판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농촌·산촌의 관광사업 (민박·펜션·음식판매 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농촌·산촌의 환경·생태자원 보전 활동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농촌·산촌 지역에서의 취업 또는 창업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no	농촌지역에서의 활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실 의향	전혀 아니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8	농업과 먹거리를 통한 체험·교류활동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돌봄·일손돕기·환경·교육 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마을공동체 연계 참여활동 (체험·교육·관광·가공 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취미와 여가 등의 동아리(모임) 활동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지식·경험을 활용한 지역사회(단체·조직) 활동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개인적인 예술·문화 창작 활동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위 4번 질문과 같은 '농촌지역에서의 활동 참여'에 대한 아래 질문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해당하는 란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전혀 아니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과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싶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가 원하는 일이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활동과 일을 하고 싶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농촌지역의 '조직·단체 등과 함께' 활동과 일을 하고 싶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나는 조직·단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활동과 일을 하고 싶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끝으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

.....

.....

.....

.....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5 -

기획연구 2021-01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6월 1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22-3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520
9 788966 123223
ISBN 978-89-6612-322-3